

#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4

MARCH

vol.267

## Cover Story

2014 신춘음악회 - 봄의 갈라  
반갑습니다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불멸의 거장 효산 강태홍의 생  
그곳에 가면 오영수문학관



단 하루,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No.3, 4, 5 연주!

‘젊은 오로비츠’ 감성적인 연주의 비르투오조

프레디 켈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 FREDDY KEMPF

**Beethoven Piano Concerti**

with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2014 | 5 | 19 | Mon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문화회관 공연문의 홍보마케팅부 607-3100 / 공연과 607-6057  
입장권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B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ticketlink](http://ticketlink.com) 1588-7890 / 부산은행전지점





협연 · 강은정 (플루트)

정덕기 · 아리랑에 의한 기상곡  
라이네케 · 플루트 협주곡 라장조 작품283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3번 가단조 작품44


# RACHMANIN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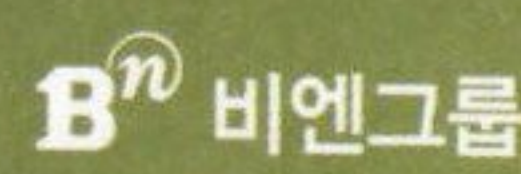


## Symphony Series III

Maestro Oh Choong-Keun & Busan Symphony Orchestra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시리즈 III

2014년 3월 31일(월)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광페인트 비엔그룹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굿모닝백이안과

티켓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 A석 1만원 (전석 학생 50%할인)

예매 부산은행 전지점, 문화포털 팝부산 [www.popbusan.com](http://www.popbusan.com) 문의 051)621-4577 [www.bso21.com](http://www.bso21.com)

\* 본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보조받아 시행됩니다.





# 춘설

春雪

예술감독 | 김원명 경성대학교 교수  
 작곡가 | 김인철 창원대학교 교수  
 가야금 | 김남순 부산대학교 교수  
 지휘 | 이효상 T.I.F Symphony 상임지휘자  
 연주 |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 Program

김인철 A piece for Orchestra 십자가상의 칠언 (七言)  
 황병기 New spring for gayageum & Orchestra  
 Schumann Symphony No.1 B Flat Major op.38 "Spring"

# 2014. 3.13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사)한국음악협회부산광역시지회, T.I.F심포니오케스트라 문의 | 051-220-5812 관람 | 초등학교 이상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금액 | 2천원 무대감독 | 전광수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이광섭



08



- 06 **커버스토리**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4 신춘음악회 - 봄의 갈라

## Cultural Story

- 08 **공연 일정**
- 10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 1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히로시마[廣島] 라이프-부활된 전통 북연주 '이카리다이크'
- 16 **불멸의 거장**  
효산 강태홍의 생
- 18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머나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유엔기념공원 정문'
- 20 **그곳에 가면**  
울산이 낳은 대표적인 서정소설 작가 오영수문학관
- 22 **우리는 문화가족**  
그랜드자연요양병원 그랜타(打)
- 24 **테마가 있는 여행**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합천
- 28 **하인상의 생각그림**  
그곳에 가면 개가 된다

## Boards Inside

- 30 **프리뷰**
- 36 **리뷰**
- 38 **프로그램 가이드**
- 54 **새로 나온 음반**
- 55 **새로 나온 책**
- 56 **스페셜 무비**
- 57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Center News

-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 60 **부산문화회관로**

12



18



2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예술에의 초대가 2014년 3월호로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과 만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친근한 공연정보지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3월호 통권 267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대연동 848-4)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발행일 2014년 2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4 신춘음악회 - 봄의 갈라



## 오랜만에 부산 찾는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지호가 전하는 싱그러운 봄 편지

따뜻한 봄기운을 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년 신춘음악회 '봄의 갈라' 무대가 3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천부적인 오페라 해석력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대표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지호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베르디, 푸치니, 레온카발로 등 명작곡가들의 유명 오페라 아리아로 싱그러운 새봄의 기운을 전해준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에서 유학한 고성현은 이탈리아의 푸치니 국제콩쿠르와 밀라노 국제콩쿠르, 나비부인 국제콩쿠르,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 국제콩쿠르 등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았다. 고성현은 세계 유명극장의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하며 그 공로로 난파음악상, 젊은 음악가상, 옥관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고성현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유명극장에서 리골레토, 토스카, 오텔로 등 40여 편의 오페라 무대, 베를린필하모닉 초청 G. Verdi 서거 100주년 기념 독창회 등 수많은 콘서트에 출연, 온화한 카리스마로 청중들을 사로잡아 왔다. 고성현은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일 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고성현 외 창원대학교 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유섬, 쿠바국립오페단 초청 오페라 '팔리아치'(아바나 대극장) 주역 출연 및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지호가 함께 신선하고 활기찬 새봄의 아리아를 노래한다. 소프라노 김유섬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G.Rossini 국립음악원, OSIMO 아카데미 및 MANTOVA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마리오델모나코 국제콩쿠르 1등, 마리오델모나코 국제콩쿠르 1등, 이리스아다미 꼬라멧띠 국제콩쿠르 1등 등 국제 콩쿠르에서 수 회 입상한 바 있다. 테너 김지호는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와 독일 쾰른국립음대, 러시아 마그니타 고르스크(연주학 박사)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수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해 왔다.

## PROGRAM

- 주세페 베르디 | '운명의 힘' 서곡
- 주세페 베르디 | '운명의 힘' 중 '삶이란 지옥' ... Ten. 김지호
- 루제로 레온카발로 | '팔리아치' 중 '잠시만... 여러분. 실례합니다'... Bar. 고성현
- 주세페 베르디 | '라 트라비아타' 중 '이상해!... 아, 그이인가?'... Sop. 김유섬
- 주세페 베르디 | '운명의 힘' 중 '소용없다 알바로'... Ten. & Bar.
- 주세페 베르디 | '리골레토' 중 '말해봐, 우리뿐이다...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Sop. & Bar.
- 주세페 베르디 | '에르나니' 중 '고맙네, 사랑하는 친구들'... Ten. 김지호
- 아구스틴 라라 그라나다... Bar. 고성현
- 자코모 푸치니 |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Sop. 김유섬
- 조아키노 로시니 | '세비아의 이발사' 서곡
- 자코모 푸치니 | '나비 부인' 중 '저녁이 되었소'... Sop. & Ten.



지휘자\_ 리 신차오



소프라노\_ 김유섬



테너\_ 김지호



바리톤\_ 고성현



# CULTURAL SCHEDULE

3월 문화공연일정

## SUN



### 전시

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사진전**  
1월 5일(일)-4월 12일(토) 대전시실

### 입장료

일반·대학생 1만 2천원, 중고생 1만원,  
초등, 유아 8천원(만 4세 미만 무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매에 한해 2천원 할인)

※해설시간 : 오전 11시, 오후 2시, 5시

문 의 디커뮤니케이션(612-6619)

## MON

## TUE

2

부산시립극단 우수 레퍼토리  
Season II - 언쟁이 곡마단 15:00, 19:30  
1만원,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3

9

김혜자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 부산  
15:00 6만 6천원, 5만 5천원, 4만 4천원  
극단 화랑(1800-8987)

10

16

이민아의 춤 - 筍(순) 18:00  
초대/이민아(010-5051-0242)

17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1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8

아미치 세멜레 제4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  
아미치 세멜레(010-9334-6105)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4

U.K.O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U.K.O(010-3863-3087)

23

Piano Duo 양상블 클랑 창단 연주회  
18:00 무료  
클랑(625-6012, 010-8706-7424)

부산음악사랑회 제8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음악사랑회(010-3885-6600)

Jung Dance Company Project 2014  
19:30 정신혜 무용단(010-8234-2342)

30

라온제나 청소년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김혜정(010-2425-5204)

31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시리즈Ⅲ' 19:30  
3만원, 2만원, 1만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옥수예술단 평화와 손잡다 19:00 균일 5천원  
옥수예술단(070-7512-3528, 010-8291-2311)

25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6회 정기연주회 2014 오페라속  
오케스트라 시리즈 I '독일 오페라'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한국피아노연주와 교수법협회 '피아노  
양상블로 듣는 봄의 향연' 19:30 균일 1만원  
한국피아노연주와 교수법협회(010-4280-7365)

Jung Dance Company  
Project 2014 19:30 3일 관람권 2만원  
정신혜 무용단(010-8234-2342)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 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WED

THU

FRI

SAT



**1**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초청 '라 바야데르' 15:00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 부산시립극단 우수 레퍼토리  
 Season II-연창이 곡마단 15:30, 19:30  
 1만원,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5** ● 제7기 시민클래식교실 '오페라 속 다양한 사랑의 스펙트럼' 수료식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6**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8회 정기연주회  
 '그레이트(The Great)' 19:30  
 2만원, 1만 5천원, 1만원,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7** ● 해금·아쟁 연주단 奚牙淵 창단연주회  
 '2014 활의 노래' 19:30  
 초대/해아연(010-2396-0540)

**8** ● 김혜자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부산  
 19:00 6만 6천원, 5만 5천원, 4만 4천원  
 극단 화랑(1800-8987)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봄이 오는 길목에서'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12** ●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3**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만남, 아름다운 봄!'  
 19:30 1만원, 7천원,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4** ●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5** ● 2014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  
 특별연주회 19:00  
 무료/코랄하우스(010-4183-2293)

**19** ●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0** ●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1**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신춘음악회-봄의 갈라' 19:30  
 2만원, 1만 5천원, 1만원,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크누아윈드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19:30  
 초대/크누아윈드오케스트라(02-746-9252)

**22**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공연 11: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 토요일상설무대-'재즈밴드 러브레터'가 들려주는 이른 봄의 재즈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6** ● Jung Dance Company Project 2014  
 19:30 3일 관람권 2만원  
 정신혜 무용단(010-8234-2342)

**27** ● 임미성 콰텟과 함께하는  
 시네마 재즈 콘서트 19:30  
 4만원, 3만원, 2만원/부산문화(1600-1803)

● 부산시립합창단 제149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맛보는 음식백화점-오늘 저녁에... 뭐 무까?'  
 19:30 1만원, 7천원,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28**

**29** ● 청소년·일반을 위한 제 10 회 박한주  
 Wings Dance Company 발레 공연 18:00  
 2만원, 1만원/박한주(010-4552-9605)

● 부산국제무용제 '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심사  
 14:00 부산국제무용제사무국(868-7881)

● 토요일상설무대-일파가야금합주단  
 '봄의 향기, 꽃의 향기, 가야금의 향기'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반갑  
습니다



# 신용삼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일상생활 속에 문화의 온기를 선사

2014년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산지역의 문화체육관광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은 신용삼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은 365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본격적인 행사들이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신용삼 국장은 요즘 어느 때보다 더욱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부문간의 연계,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화,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용삼 국장은 1974년 10월 공직에 몸담은 이래 자치행정담당, 청사관리팀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교통국 대중교통과장, 총무과장, 인재개발원장 등 부산시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부산발전을 위해 봉사해왔다. 평소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신용삼 국장의 문화체육관광국 입성을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부산시는 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속 문화향유기반 조성', '세계로 나아가는 축제문화 육성', '아시아 영상 중심도시 조성',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체육환경 조성', '감동과 매력이 있는 세계 관광도시로의 도약' 등 5개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삼 국장은 2014년 업무시작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체육 여건을 조성하고 해양의 강점을 살린 머물고 싶은 세계 관광도시, 2020 세계 10대 국제회의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 직원들과 땀 흘린다는 각오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신용삼 국장의 술선수범 정신은 부산시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음주가무가 필수코스인 왓지지결한 회식문화를 바꾸기 위해 신용삼 국장은 오래전부터 직원들과 공연관람, 영화감상 등 문화활동과 연계한 이른바 문화회식 분위기를 주도해왔다.

“우연한 기회에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게 되었죠.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웅장한 음악, 무대미술 등에 반해 작품에 몰입하게 되면서 뮤지컬, 연극 무대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직원들과 나누고 싶어 부담스러운 술자리 대신 공연관람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았죠.”

명성황후에 대한 감동은 청사관리팀장 재직 중이던 2008년 전국 관공서 최초로 '로비콘서트' 기획으로 이어져 문화를 사랑하는 신용삼 국장의 열정을 실감하게 한다. 당시 삭막한 시청 로비에서 진행되는 '한낮의 공연'을 제안했을 때 지금과 같은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매주 수요일 12:30 펼쳐지는 시청 로비콘서트는 다른 시도에서도 모델로 삼아 다양한 틈새공연들을 운영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용삼 국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속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인창작 공간 조성·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부산문화계의 최고 관심사인 북항재개발지역 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비롯하여 국립아트센터, 부산현대미술관, 부산미디어아트벙커, UN평화기념관, 이우환갤러리 등 지역 내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 중 부산미디어아트벙커, UN평화기념관, 이우환갤러리는 2014년에 완공, 시민들의 문화 쉼터로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많은 사업 중 신용삼국장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무엇보다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이다.

“뛰어난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어도 시민들과 문화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지요. 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문화를 쉽게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어느 때 보다 많은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 신용삼 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관람료 지원, 문화나눔 사업, 달리는 부산문화사업, 부산사랑티켓 등과 같은 '일상 속 문화나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부산지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선정되어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운대, 전국적인 명물로 재탄생된 영도다리, 감천 문화마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 부산과 부산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부산 시민이 부산과 부산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생활속의 문화'를 널리 실천해온 신용삼 국장. 부산과 부산문화를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으로 청마의 해 시민들의 일상에 신명이 넘친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글  
손수진  
일본통신원

사진제공  
이카리다이코  
보존회



# 히로시마[廣島] 라이프

## 부활된 전통 북연주 '이카리다이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인터넷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서 2013년 외국인들에게 인기있었던 일본의 관광명소 중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이 2년 연속으로 1위에 올랐다고 한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은 원폭과 평화에 관한 방대한 자료와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자료관이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아픈 상처와 희망의 상징인 원폭돔 건너편, 약 3만 7천평이나 되는 넓은 공원 내에 있어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산책을 하듯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하다. 평화로운 일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1945년 8월 6일 원폭돔에서 가까운 폭심지(爆心地)를 중심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당시 모습과 기적으로 재건된 현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전쟁의 무모함과 평화의 소중함 등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한다. 이곳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고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오늘과 같은 평화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절망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생명력을 불어넣은 결과일 것이다. 지금도 변화, 발전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히로시마에서 꺼져가는 전통 북연주의 불씨를 다시 살아나게 한 보통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이카리다이코



**하쿠시마  
이카리다이코(碓太鼓)  
보존회**

시내 관광명소의 하나인 일본식 정원 숙케이엔(縮景園)과 현립(縣立)미술관 쪽을 향해 중심가 핫초보리에서 노면전차 하쿠시마선(白島線)이 달리고 있다. 하쿠시마선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운치 있는 한 칸짜리 기차가 종착역 하쿠시마에서 핫초보리까지 세 정거장, 총 1.2킬로미터 정도의 직선거리를 하루 수차례 왕복하는 100년이 넘는 노선이다. 봄에는 강둑길에 만개하는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이곳 하쿠시마에 이카리다이코 이름의 유래가 된 신사 '이카리진자(碓神社)'가 자리잡고 있다.

하쿠시마 전차역에서 3분정도 될까. 시내 반대방향으로 걷다보면 소방차가 두어대 대기하고 있는 소방출장소가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소박한 신사가 바로 이카리진자이다. 에도시대의 하쿠시마는 히로시마 성(城)의 죠카마치(城下町; 무가시대에 제후의 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 舊시가지)였기에 많은 무사가 살았으며 매우 번창하였다. 이카리진자 또한 많은 우지코(같은 수호신을 모시는 고장 사람)가 있었으므로 지금의 신사 모습과는 달리 크게 번영했었다고 한다.

현재의 하쿠시마 지역에 그 모습은 없지만 옛 하쿠시마는 하코시마(상자 섬)라고 불리는 작은 섬이었다. 16세기 말, 히로시마 성이 축성되기 이전의 하쿠시마 주변은 해변이었고, 큰 암반이 있어 배가 조난하는 일이 잦았었다. 이에 원래 하코시마 다이묘진(大明神)으로 이미 모시고 있던 신사를 해신(海神)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



広島東照宮秋季例大祭 중 연주모습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글  
손수진  
일본통신원

사진제공  
이카리다이코  
보존회



이카리진자

한 수호신으로 모시기 위해, 일본 전국시대(戰國時代, 15세기 말-16세기 말)의 무장 모리 모토나리(毛利元就)의 손자인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가 이카리진자로 개명하여 보호한 것으로, 신사 이름은 왕래하던 배가 당시 해변이었던 현재의 신사 근처에 닻(이카리)을 내린 것에 유래했다고 한다.

이카리진자는 히로시마의 죠카마치에서도 가장 오래된 수호신으로, 전신(前身)인 하코시마 다이묘진은 1,200년이나 전에 미하라(三原)시에 있는 라쿠온지(樂音寺)의 신명(神名)장부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을 정도로 유서있는 신사였다고 한다. 오오와타쓰미노카미(大綿津見神)로 불리는 해상교통의 안전과 산업의 번영을 지배하는 신을 모시고 있으며, 미야지마(宮島)의 이쓰쿠시마진자(嚴島神社)와는 우연하게도 사문(社紋)이 같다는 인연도 있다. 이러한 유서깊은 이카리진자에 전해 내려오는 것 중의 하나가 전통 북연주 이카리다이코(碓太鼓)이다. 바다에서 육지가 된 하쿠시마의 영원한 역사의 추의를 북채로 표현하며, 축제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는 다른 일본북 연주에서 느낄 수 없는 특유의 품위가 있는 연주라고 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카리진자 임원들의 발안으로 1975년에 지역 소방단 청년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이카리다이 코바야시(북으로 박자를 맞추고 흥을 돋우기 위한 반주음악), 세이류다이코(清流太鼓) 등과 같은 명곡을 창작하였고, 오늘날의 다이코바야시 붐의 선구가 되었다. 이후 어린이들도 함께 활동하게 되어 여러 지역축제에서 연주를 하고, 시마네(島根) 현에 있는 유명한 신사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



이카리다이코보존회 회장을 4년째 맡고 있는 다가와 회장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카리다이코를 연주했던 회사원 세라 다이스케 씨가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에도 매년 연주를 봉납하여 10년, 20년 봉납표창을 받고 기념 은배를 수상하는 등 장기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후계자가 없어지자 어른들의 연주활동은 10여년 전에 중지되었고, 이후 어린이 연주자도 3명으로 줄어들어 이카리다이코를 존속시키는 것이 위태로워졌다. 여기서 이카리다이코의 등불을 끌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이카리진자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를 계승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기운을 북돋우어 지역의 활기를 되찾자는 데에 뜻을 모아 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회계, 감사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이카리진자에 '하쿠시마 이카리다이코 보존회'를 결성,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카리다이코를 연주했던 회사원 세라 다이스케(37세) 씨의 지도하에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중학생, 공무원, 자영업, 회사원, 주부 및 70세 중반을 넘긴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으로 구성된 보존회 회원들이 매주 토요일 저녁 신사 경내에 있는 회관에서 한 시간씩 땀을 흘리며 연습에 임하고 있다. 회원은 현재 어른 7명, 어린이가 8명.

보존회 회장을 4년째 맡고 있는 다가와 히로타카(66세) 씨는 어린이들에게 먼저 기본적인 인사와 예의를 몸에 익히게 한 다음 북연주의 즐거움을 가르치고 있다. 북소리가 좋아서, 북을 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온 아이들이 만큼 연습에 임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실력향상도 빨라 어른들을 놀라게 한다고 한다. 설계업을 하는 다가와 회

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북을 두드릴 수 있게 방음시설을 갖추어 주고 싶은 바람이 있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소음이 될 수도 있는 북소리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사를 다닌다고 하는데, 누구도 북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크게 항의를 해오는 주민이 없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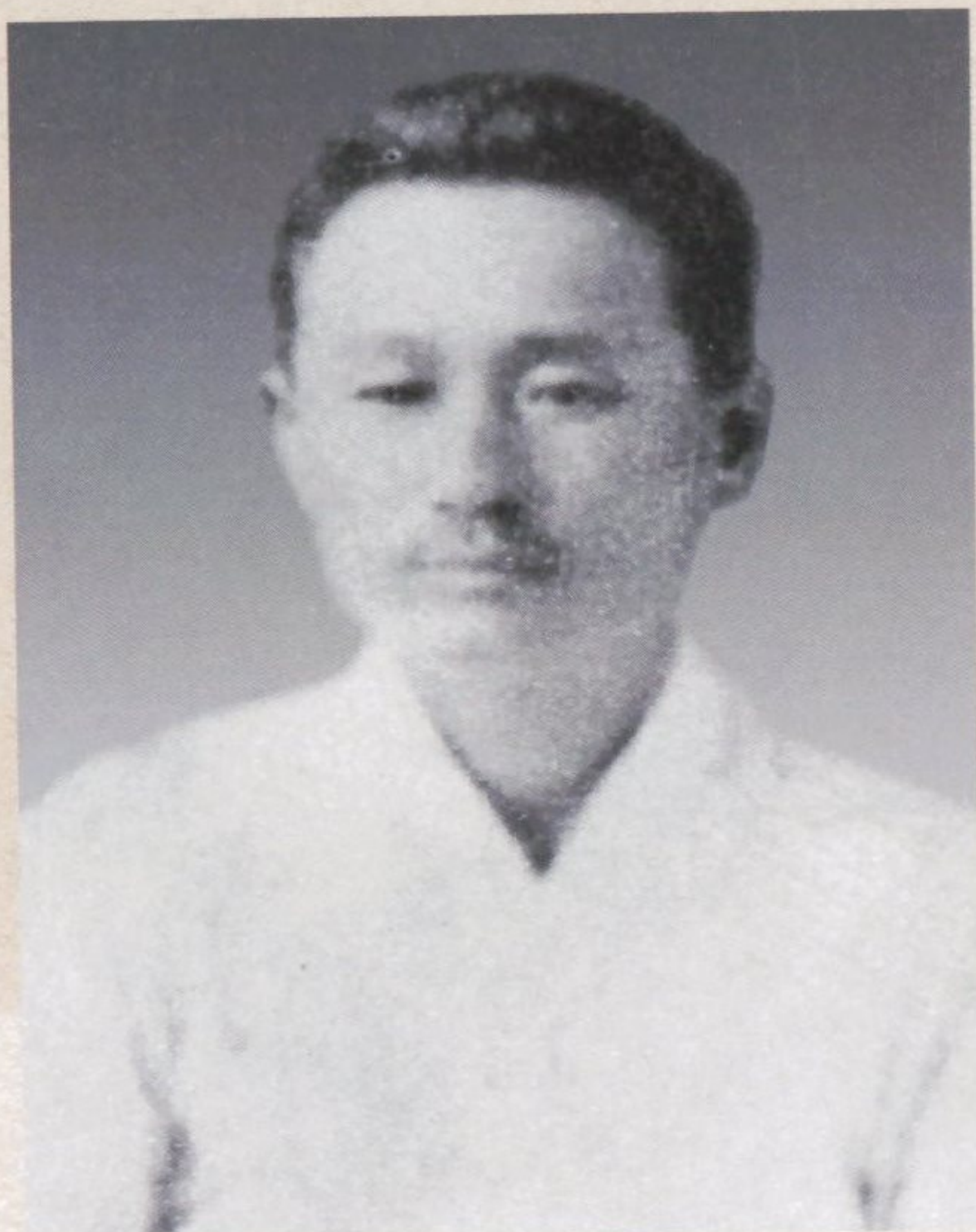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부활된 전통 북 연주.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기에 보통 사람들인 이웃들이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모습에 고개가 숙여졌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한 지킴목이 되어 어린 나무들을 지켜주고 있는 이들이 있는 이곳에 따뜻함과 희망을 느낀다.



글 김혜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가야금산조 보유자 후보

사진 강태홍류가야금보존회

# 효산 강태홍의 생



효산 강태홍 선생

강태홍(姜太弘)은 1893년 전남 무안 태생이다. 판소리나 산조의 명인, 명창들 집안의 거개가 그렇듯이 강태홍도 대대로 내려오는 세습무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때문에 그의 집안사람들 중에는 음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았고, 강태홍도 자연스럽게 그런 음악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그의 큰아버지 강준한(姜俊漢)은 소리를 잘했고 해금, 피리에도 능했다고 하며, 그의 부친인 강용한(본명 姜用安)은 고종 때의 어전광대로 사고참봉 벼슬을 제수한 명창이었으며, 형 강태중(姜太鐘)은 대금 연주자였고, 사촌인 강남중은 판소리 명창이었다.

강태홍은 이러한 가계, 음악을 업으로 삼는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한 형편이었음에도 서당만은 다녔으나 어려서부터도 서당 가기보다는 음악 하기를 더 좋아해서 귀동냥으로 음악을 배워오기도 했다고 전해온다.

그가 어렸을 적에 현경면 구산리에서 잠시 살았을 당시 어느 산 밑 동네에 성이 조씨인 가야금을 타는 남자가 살았다. 어린 강태홍은 제대로 돈을 내고 배울 수가 없어 창 너머로 가락을 듣고 집에 와서 가야금을 타보는 방법으로 가야금을 익혔다고 한다. 효산이 처음으로 가야금을 배운 것이 아홉 살 때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후 그 조씨 집안은 진도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상은 알 수 없다고 한다.

강태홍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가 광주 신청(神廳)에 잠시 머물다가 19세 때 고향을 떠난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강태홍은 한때의 활발한 서울활동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별로 연주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1932년 조선악협회 요곡부(謠曲部)의 일원으로 참가, 1933년 조선음률협회 주최의 일류명창대회에 출연, 1934년 조선성악연구회의 발기인

으로 참가, 이 해 6월에 연쇄창극 유충렬전에서 '정한담'역을 맡아 출연했고, 1939년 이동백의 은퇴공연에 찬조 출연한 것과 몇 장의 SP음반을 남긴 것이 그의 대외 활동의 전부이다.

이 외 그의 생활은 주로 제자를 양성하거나 자신의 음악을 창작하는 데 열중했던 것 같다. 경주권변과 대구 달성권변, 부산 동래권변의 가야금선생으로 있었고, 제자들과 풍류회를 조직하여 영제풍류를 정리하였으며, 부산에서는 '한국음악무용연구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원옥화, 강남월, 박차경, 김춘지, 구연우, 신명숙 등의 제자를 남기고 그는 1957년 부산에서 작고하였다. 강태홍의 일생에서 음악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가야금 뿐만 아니라 해금, 피리, 양금, 장고반주 등에도 능했다고 하지만 가르침을 받은 스승에 대해서는 늘 함구하고 있었으므로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고, 다만 몇 가지 가능성들을 추측해 볼 뿐이다. 강태홍의 가야금 선생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지만 김창조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설을 따르다면 그것은 아마도 1918년경으로 보인다. 강태홍이 19세(1912년)에 고향을 떠나 대구



로 가서 삼십대 초 경주권변으로 옮겨가기 전까지의 시기(1912년~1923년경)에 김창조가 1918년 대구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강태홍이 김창조에게서 산조를 배웠다면 이 시기이거나 김창조가 살던 영암과 강태홍의 고향인 무안이 멀지 않았으므로, 잠시 동안이라도 김창조의 문하에서 배웠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강태홍의 생존 시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나에게는 선생이 없다'고 한 적이 있으며, 한 번은 '내 선생은 이북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한다. 또한 강태홍산조는 김창조계와는 대조적인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산조보다도 독창적인 맛과 깊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 김창조 계열로 되어 있는 강태홍산조의 계보는 앞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백혜숙 선생은 말한다.

하지만 이 때 강태홍이 김창조에게 배웠다 하더라도 김창조가 1917년~1918년에 대구에서 잠시 머물다가 1918년~1920년경에 작고하였으므로, 아주 잠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태홍은 해금, 피리, 양금에도 능통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스승을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강태홍이 남도의 세습무 집안 출신이고, 광주의 신청에도 있었고, 또 여러 지방의 권변에 있었다면 그가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의 명인들이 대개 여러 악기에 능통했던 것으로 봐서 강태홍의 다양한 음악적 재능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다. 여덟 살의 나이에 부친을 여윈 후 어린 시절에도 그는 자신의 실력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였는

데, 집 마당에 덕석(명석)을 깔고 공부를 하다가 잠시 졸기라고 하면 꿈에 작고한 부친 강용안이 나타나 엄격하게 꾸짖으며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강태홍은 젊은 시절에 명창 김창환에게서 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 점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김창환은 무안과 가까운 나주 사람으로 강남중이 그의 문하에서 공부한 것은 확실하므로, 사촌지간인 강태홍도 동문수학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렸을 때 홍역을 치르다가 목에 바람이 든 탓으로 성음을 버리게 되어, 선생은 후에 소리를 포기하였다고 한다.

강태홍의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서울의 연주활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만큼 그의 대외 활동 흔적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대신 강태홍은 제자를 양성하거나 자신의 음악을 창작하고 다듬는데 몰입하며 지냈다고 한다. 늘 말없이 혼자 조용히 지내면서 명상을 즐겼고, 성격은 다소 괴팍하였지만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었다고 한

다. 궁핍한 생활에 후원자가 간혹 있기도 했지만 늘 가난 속에 살면서도 가난에 개의치 않고 일생을 살았다고 한다. 그가 고향을 떠나 대구로 간 이유는 자신의 음악세계를 자유롭게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한은 커다란 응어리가 되어 그의 생애와 음악에 영향을 주었고 평생을 타향에서 보내면서 고독한 생활을 하여야 했다. 그가 대구로 온 뒤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대구와 경주는 그의 생활근거지가 되었다. 권변이 생긴 후 경주권변과 대구의 달성권변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병창에 공을 들여 이름을 떨치게 되었으며, 서울과 지방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영제풍류를 정리하고 자신의 산조음악을 꾸준히 다듬어 나갔다. 특히 새로운 자신만의 가락을 창작하려는 집념과 노력은 그의 독특한 산조가락의 완성으로 결실을 보았지만 선생의 연주활동에 관한 기록이나 녹음자료가 희소하여 아쉽다. 특히 그가 꾸준히 정리하였던 풍류와 산조의 악보나 무용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중요무형문화제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연주모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 머나먼 고향에 대한 그리움

## 유엔기념공원 정문

“

이국땅에서 평화를 위하여 싸우다 간 여러 나라들의 천사들에게 두 손 모아 경건히 바친 작품이다. 한국적이라는 명제를 내세우고 조상들이 남긴 낱말들만을 주어 모았자 오히려 우리의 전통을 욕보이는 일이 된다. 한국 사람들만이 간직해온 참 얼을 어떻게 조형화하여 새 얼을 담을 것인가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하나 둘의 답이 나올 성싶지 않다. 이 소품은 한껏 부푼 선에 부드러움을 붙여넣어, 어린 시절의 아스라한 향수를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으려는 벽찬 작업의 소산이다. 유엔 관계 건축 가운데서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라는 우탄트 총장의 찬사를 들은 작가로서는 큰 기쁨인 동시에, 작가 개인에게도 소중한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다.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열화당 1984년

부산에는 건축가 김중업<sup>1)</sup>의 작품이 세 개가 있다. 파리의 ‘르 꼬르뷔제’<sup>2)</sup>의 사무실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1956년에 완공한 부산대학교 본관(현 인문관), 1980년의 ‘충혼탑’, 그리고 ‘유엔묘지 정문’ 등이다. 김중업은 1963년 ‘유엔묘지’(현 유엔기념공원)를 위한 ‘채플’(현 추모관)을 완공하고 3년 뒤 ‘정문’(1966)을 완공하였다. 부산문화회관과 마주하며 서있는 정문은 시간에 의해 이야기를 담아 가고 있고, 조형미에 의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문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천지인(天地人),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바닥은 땅, 기둥은 사람, 지붕은 하늘일 것이다. 태어난 곳은 땅이요, 삶은 기둥이요, 죽음은 하늘일 것

이다. 한국전쟁, 비극의 유해 2,300기는 각기 다른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부산의 한 땅에 모였고, 그들의 젊음과 삶이 기둥에 어우러지며, 열린 지붕으로 그들을 하늘을 향하여 인도하고 있다. 우리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은 추녀의 선과 공포와 배흘림기둥 등일 것이다. 정문의 추녀와 기둥은 우리 전통 건축의 서구 모더니즘적 해석으로 그의 ‘주한 프랑스대사관’(1960)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며, 한국적 ‘선(線)’에 의하여 간결이 표현되고 있다. 김중업은 정문의 추녀를 “그대들의 머나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붕에 뚫린 방향의 천창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은 그들을 위로하는 머나먼 고향의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다. 그는 천창을 “오직 당시





의 빛으로”라고 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우리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천창이 완공 당시 전통 건축의 완자창살이 사라지고 누군가에 의해 단순한 방형의 창살로 바뀐 건 시간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 때문일까? 아쉽다.

앞과 뒤 각 네 개씩, 여덟 개의 기둥은 한국적 선의 움직임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배흘림의 힘찬 움직임이라고나 할까? 주한 프랑스대관의 기둥이 강직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정문의 기둥은 힘차기도 하지만, 여성스럽기도 하다. 마치 어머니의 포근한 치마와 같이... 김중업은 기둥을 “그대들을 위한 부드럽고 엄숙한 기립”이라며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전통 건축 공포의 모더니즘적으로 재해석된 주두는 “순간과 영원, 미와 공학의 융합을 위하여”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주된 건축 표현 어휘로 발전을 거듭한다. 네 곳의 물받이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처리를 위한 단순한 기능을 넘어 조형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김중업은 이를 “그대들의 눈물”이라고 하며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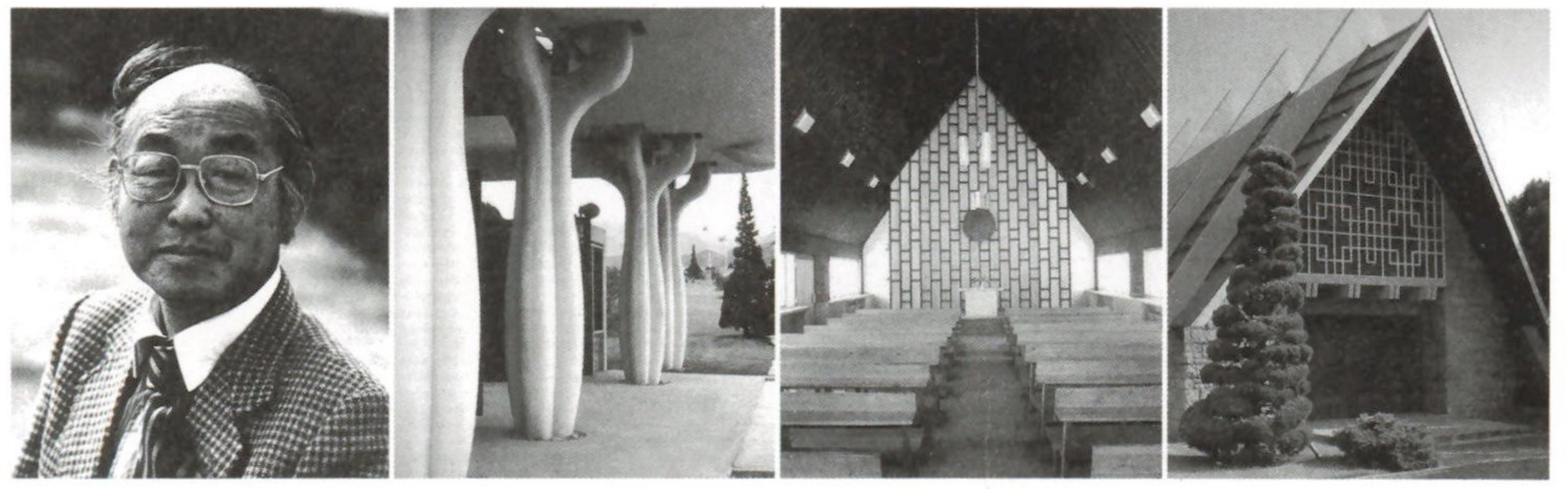
정문이 한국적 선(線)의 모더니즘적 해석과 여성적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면 추모관은 강직한 구조의 남성미를 보여주고 있고 관리동은 모더니즘적 간결성을 통하여 중성적 의미를 부여한다. 추

모관의 구조적 아름다움은 유지되고 있지만, 완공 당시 정면 입구의 완자창과 빗살문은 사라지고, 황금색의 스테인레스 문과 내민보 그리고 스테인드글라스로 바뀌어 있다는 건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내부 또한 완공 당시와 달라져 한지 창호의 디자인이 사라지고 트래버틴과 목재의 벽면으로 바뀐 건 역사성과 외부 디자인과 배치되는 과도한 표현인 것 같다. 정문 앞을 흐르는 4차선 도로가 ‘우회’든 ‘지하화’든 사라지고 부산문화회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나의 바람은 욕심일까?

김중업은 우리 전통 건축과 서구 모더니즘 사이에서 고뇌한 몇 안 되는 건축가 중 한명이다. 그가 ‘주한 프랑스대사관 (1960)’에서 시작한 우리 전통 건축의

지붕과 추녀, 기둥과 공포의 아름다움은 ‘유엔기념공원 정문’을 거쳐 ‘경남문화예술회관(1982)’으로 이어지며 ‘88 올림픽 평화의 문(1985)’에서 정점을 이룬다. 그의 뛰어난 작품 중 하나인 ‘제주대학교 본관(1964)’은 근대 건축의 무지가 빛은 결과로 철거되었고, 최근 매각의 흥역을 치른 ‘군산시민회관(1987)’은 그의 유작이다. 그의 건축적 어휘는 세종문화회관(1978, 엄덕문)과 부산문화회관(1988~1993, 임장렬)의 지붕과 기둥과 주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문’과 마주한 부산문화회관 설계경기에서 낙선하였다.

우리 전통 건축의 관점에서 공간과 디자인 및 공사기법을 서구 모더니즘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실현한 점이 김중업의 주요한 건축적 성과일 것이다. 또한 그의 건축은 한국과 서양, 과거와 미래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 서구 모더니즘과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과의 조화, 그리고 당시의 시대 상황을 넘어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1) 김중업 [金重業] (1922~1988)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1941년 일본 요코하마(橫濱)공업고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8·15광복 후 1946년~1952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로 있었다. 1952년 한국 현대건축가로는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하여 프랑스의 르 코르뷔지에 건축연구소에서 4년간 수업하고 귀국, 1956년 홍익대학교 건축미술과 교수, 같은 해 김중업 합동건축연구소장이 되었으며, 1956~1965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활약하였다. 프랑스 국가공로훈장, 서울시문화상, 산업훈장 등을 받았으며, 저서에 ‘김중업-건축가의 빛과 그림자’가 있고, 작품으로 ‘서강대학교 본관’, ‘주한 프랑스대사관’, ‘제주대학교 본관’, ‘삼일로 빌딩’, ‘육군박물관’ 등이 있다.

2)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 (1887~1965)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건축가, 화가, 근대건축의 이론가이며, 1920년대에 시작되는 근대합리주의 건축의 국제적 양식 속에 서양건축의 기조인 고전주의 미학을 조화시켜 철근콘크리트 건축의 새로운 전형을 개척하였다. 주요작품으로 ‘빌라 사보아’, ‘롱상 성당’ 등이 있다.





울산이 낳은 대표적인 서정소설작가

# 오영수 문학관

“

울산이 낳은 대표적인 소설가  
난계 오영수(1909~1979) 선생.  
그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문학관이  
지난 1월 21일 언양읍 현양길  
옛 언양정수장 일대에 문을 열었다.  
지역 출신 문인을 기리는 문학관이  
울산에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서 태어난 오영수 선생은 1949년 김동리 선생의 추천을 받아 '신천지'에 단편 '남이와 옛장수'로 등단했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갯마을'을 비롯해 '화산댁이', '윤이와 소', '코스모스와 소년' 등 150여 편의 작품을 남겼으며, 한국적인 소박한 정서와 단편소설의 미학을 충실하게 담아낸 대표적인 서정소설 작가로 꼽힌다. 오영수 선생은 1979년 고향인 울산에서 영면했는데 매년 울산에서는 그의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오영수 문학상을 제정, 운영해오고 있다.

오영수 선생은 광복 후 경남여고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는 등 부산과도 인연이 깊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갯마을'이 김수용 감독의 영화로 기장에서 촬영되면서 1995년부터 매년 8월 기장 일광해수욕장에서는 '기장갯마을축제'가 열리고 있다. 또 일광해수욕장 인근 별남공원에는 '난계 오영수 갯마을 문학비'가 세워져 그의 작품세계를 기리고 있다.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오영수 문학관은 1층 전시관과 2층 문화사랑방, 난계홀, 그리고 야외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전시관은 오영수 선생의 가족 등이 기증한 유품 178점이 5개의 주제로 나뉘어 전시되고 있다. 전시관







유품 178점을 5개의 주제로 나눠 전시하고 있는 1층 전시관



오영수 선생이 평소 즐겨 연주하던 악기 만돌린



오영수문학관 개관식 축하공연

입구에는 오영수 선생의 아들이자 유명 판화가인 오윤 씨가 직접 제작한 오영수 선생의 흉상이 서있다. ‘난계 오영수와 의 만남’이란 주제의 첫 번째 코너에서 는 오영수 선생이 쓴 소설 구절과 선생 의 그림, 서예작품, 미술도구 등이 전시 되고 있다. ‘문인의 꿈을 품고’ 코너에는 김동리 선생 추천으로 ‘남이와 옛장수’를 통해 문단에 등단하게 된 일화와 신춘문 예에 입선된 작품 ‘머루’를 소개하고 있 으며, 선생이 가족들과 함께한 사진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유품들, 현대문 학 편집장으로 활약한 내용 등이 소개되 고 있다.

‘오영수 창작실’ 코너에는 선생의 창작실 을 그대로 재현하고 작가로 활동할 당시 선생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다. ‘갯마을 속으로’ 코너는 소설 ‘갯마 을’의 배경이 되는 어촌마을을 닥종이로 연출하고, 영화 ‘갯마을’을 프로젝터로 상영하고 있다. ‘오영수 회고전’ 코너에 는 선생의 간략한 연보와 선생이 지인들 과 주고받은 편지와 엽서 등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전시관에는 오영수 선생의 막내딸 오영아 씨 등이 기증한 ‘갯마을’, ‘머루’ 등 선생이 남긴 문고판과 습작원고, 시 나리오 등 자필 원고와 미술교사로 재직

하기도 했던 선생의 그림 그리고 오영수 선생이 생전 직접 연주하던 악기 만돌린 이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의 눈길을 끈 다. 이곳 전시관에서는 관람뿐 아니라 전시된 선생의 작품을 들을 수도 있고 터 치패드로 감상도 할 수 있다. 선생의 문 학적 업적을 기리는 영상물도 제작이 끝 나는대로 난계홀에서 관람객들에게 상 영할 계획이다.

2층에는 오영수 선생의 책과 기타 서적 등 2천여 권이 소장된 북카페 ‘문화 사랑 방’과 소공연과 강연,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홀 ‘난계홀’이 자리하고 있 다. 휴식공간인 문학관 2층 테라스에서 는 영남알프스인 신불산의 절경이 한눈 에 올려다 보인다. 문학관 주변의 오솔 길도 잘 정비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을 위 한 새로운 문화휴식공간으로도 많은 사 랑을 받고 있다.

오영수 문학관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 과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학관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오영수 선생의 묘소를 비롯 선생의 문학비가 세워져 있는 언양 초등학교 내 생가터, 선생이 말년 을 보낸 웅촌면 침죽재 그리고 갯 마을 문학비가 세워져 있는 기장 군 일광 등 선생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테마 프로그램을 비롯해 평소 만 돌린을 즐겨 연주했던 선생을 추억하는 만돌린 연주회, 문학의 밤, 시낭송회, 백일장, 사생대회, 오영수 문학상 수상 자 초청 문학강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오영수문학관을 찾는 관람객은 학 생 단체관람을 제외하고 평균 30~40 여명,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관람객들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영수문 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문화해설사 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다. 개관시간은 매주 월요일을 제 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 람료는 무료이다.

문의\_오영수문학관(052-264-8511)







## 그랜드자연요양병원 그랜타(打)

“

매주 목요일 저녁,  
평온함이 가득한 요양병원 한켠에  
신명나는 타악소리가 흘러나온다.  
8명의 단원들이 빚어내는 난타소리에  
어느새 연습공간은 열기로 가득 찬다.  
신명의 주인공들은 바로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직원들로 결성된 그랜타(打) 단원들.  
그랜타(打)는 문화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유명한  
그랜드자연요양병원과 '난타'의 합성어이다.

그랜타(打)는 지난해 3월 결성, 올해로 1주년을 맞았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퇴근 후 어김없이 병원 강당에 모여 연습을 갖고있는 그랜타(打)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땀과 열정을 쏟아부어 이제는 당당히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그랜타(打) 단원들은 모두 8명. 병원 구성원들의 이직율이 많고 30대에서 50대까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나이도 직무도 다르지만 북을 두드리는 신명만큼은 똑같다. 그랜타(打) 지도는 현재 새암춤회 단원으로 활동중인 춤꾼 이남정 씨가 맡고 있다.

그랜타(打)의 공식 데뷔 무대는 결성 석달만에 가진 그랜드자연정기음악회. 그랜드자연정기음악회는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이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에 갖는 정기음악회로, 요양원 어르신들과 그 가족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열린음악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랜타(打)는 이 무대에서 초보라고 믿기지 않는 실력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직원들로 결성된 그랜타(打) 단원들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땀과 열정을 쏟아부어 이제는 당당히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랜타(打) 결성에는 현재 그랜타(打)를 이끌고 있는 이지영 홍보팀장의 아이디어와 물심양면 뒤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용승 병원장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

“병원에 몸담고 있는 만큼 병원 업무와 연관시켜 할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요즘 음악치료로 각광받고 있는 난타를 떠올리게 됐죠.”

굳이 업무와 연관시키지 않아도 ‘난타’는 그 자체로서의 매력도 크다는 이지영 씨는 특히 특별한 재능없이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좋다.

현재 원무과장으로 있는 홍순애 씨 역시 업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문화활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 그랜타(打) 활동이 즐겁기만 하다. 무엇보다 바쁜 직장생활에 일부러 시간 내기가 힘든데, 병원에 연습공간이 있어 아주 편하다는 홍순애 씨.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난타의 신명에 푹 빠졌다는 그는 앞으로 좀 더 실력을 쌓아 프로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

지난달 그랜타(打)에 가입한 신입단원 한경숙 씨. 임상병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스스로 가무에 소질이 없다는 생각에 창단 때는 빠졌으나 주위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뒤늦게 합류하게 됐다.

“난타 연주가 보는 것 만큼 쉽지가 않다.”는 한경숙 씨는 그래도 공연 때마다 좋아하는 관객들을 보면 힘이 절로 난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서가 다른 직원들과는 데면데면한 경우가 많은데 그랜타(打) 활동을 시작하면서 타 부서 직원들과 친해진 것도 수확 중 하나이다.

“단원 모두가 열정이 대단해 농담반 진담반 영재반이라고 불려요.”

연주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보는 사람도 즐겁다는 강사 이남정 씨는 그랜타(打)와의 연습이 그래서 더욱 흥이 난다. 대중가요, 트로트,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기본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이남정 씨는 단원들이 곡 선곡에서부터 안무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업준비에 조금도 소홀할 수 없다. 그랜타(打)는 올해 5월에 있을 정기음악회에서 요양원 어르신들과 합동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처음 갖는 합동공연을 앞두고 맹연습중이라는 그랜타(打)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병원이 아닌 일반 무대에서도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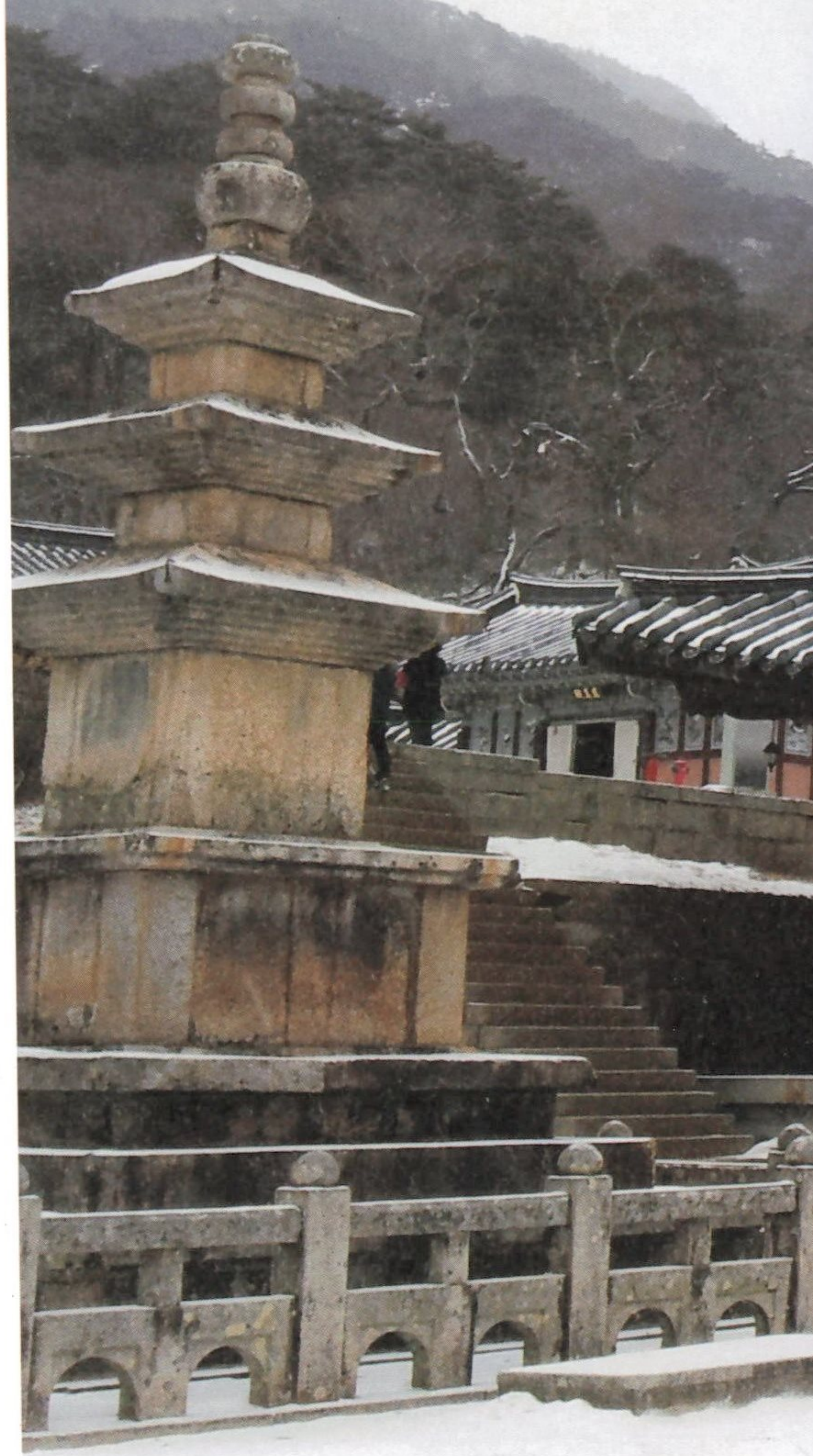


테마가 있는 여행 1년 중 가장 달이 밝고 크다는 정월대보름인 지난 2월 14일, 정월대보름 달만큼이나 부푼 가슴을 안고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족들과 95번째 테마여행을 떠났다. 2월의 테마여행지는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아름다운 고장 합천.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수석단원 김주령, 홍보담당 김태훈 씨가 동행했다.

#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합천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폭설에 행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하는 걱정도 잠시, 부산을 벗어나면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설경에 정기회원 가족들의 설렘도 더욱 커져만 갔다. 두시간을 넘게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불보사찰 통도사, 승보사찰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찰로 꼽히는 법보사찰 해인사. 불교에서 말하는 3보(三寶)는 세 가지 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불보(佛寶)는 부처님, 법보(法寶)는 부처님의 가르침, 승보(僧寶)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스님)를 뜻한다. 특히 해인사는 첫 합천여행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난 2012년 12월 테마여행 당시 해인사 가는 도로가 결빙되면서 일정이 취소된 전력이 있었던터라 더욱 기대가 컸다.

해인사 일주문에 도착하자 마치 회원가족들을 기다리기도 한듯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반갑게 맞아주는 합천 문화유산해설사 정해식 씨를 따라 해인사 탐방에 나섰다. 정기회원들은 일주문에 들어서기에 앞서 일주문 옆 부도밭에 설치된 성철스님 사리탑을 둘러봤다. 성철스님의 입적 5주기 되던 1998년, 3년여의 작업 끝에 공개된 사리탑은 재일 설치미술가인 최재은 씨가 설계한 작품으







로, 화려한 조각으로 꾸며진 기존의 사리탑과는 크게 다른 단순 간결한 모습으로 당시 세간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부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일주문을 지나자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고사목이 시선을 잡아끈다. 해인사 창건 때 심은 기념식수로, 두 그루의 느티나무 중 한 그루. 1,200년을 훌쩍 넘긴 남아있는 한 그루가 그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두 번째 문인 봉황문에 들어서자 탱화로 그려진 사천왕상이 회원들을 준엄하게 내려다본다. 험악한 표정의 거대 장승이 서있는 다른 사찰과는 달리 탱화로 그려진 것은 사천왕이 불에 타 소실되었기 때문. 해인사는 지금까지 7번의 화제가 났는데, 그래서 봉황문 앞에는 불이 나지 말라는 기원을 담은 돌무덤 ‘염주석’이 자리하고 있다.

정해식 해설사의 설명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며 그 뒤를 부지런히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점심 공양시간. 해인사 공양간에서 담백한 나물반찬으로 점심공양을 마친 회원가족들은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해인사 탐방에 나섰다.

부처의 세계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해탈문을 지나자 설법을 듣고 공부하는 구광루(九光樓)가 모습을 나타낸다. 구광루 넓은 마당에는 색색깔 고운 등으로 꾸민 미로처럼 생긴 길이 있는데, 바로 ‘해인도(海印圖)’이다. 해인도는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화엄사상을 요약한 210자 7언 30구의 계송(偈頌·부처의 공덕이나 교리를 담은 노래 글귀)을 ‘만(卍)’자 도안에 써 넣은 것인데 그 모형을 본 떠 탑돌이 코스를 만들었다고 한다. 저마다의 소망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발길이 줄지어 이어진다. 절의 중심인 대웅전 앞에 서자 ‘대적광전’이라는 현판이 보인다. 화엄경을 중심으로 창건된 해인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진 다른 사찰과 달리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 대웅전을 ‘대적광전’이라 한다. 대웅전을 돌아본 후 마지막으로 해인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장경을 모신 ‘장경판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통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이



3월 당첨자

엽서 신청하신 분

- 공민성(동래구 쇠미로)
- 김경숙(영도구 꿈나무길)
- 김미경(사하구 다대낙조1길)
- 김신숙(사하구 마하로)
- 김해연(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 박정숙(서구 구덕로)
- 이애재(해운대구 대청로)
- 이주혁(연제구 법원북로)
- 정정희(서구 구덕로)
- 최칠수(사상구 엄궁북로)

신규 가입하신 분

- 김미량(금정구 금강로)
- 김종석(양산시 두전길)
- 안형태(연제구 법원북로)
- 우영선(동구 중앙대로)
- 이명숙(동래구 중앙대로)
- 이수연(동래구 충렬대로)
- 정혜숙(부산진구 백양대로)
- 최승경(해운대구 센텀중앙로)
- 한두희(북구 금곡대로)
- 홍영훈(남구 양지골로)

곳 장경관전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고 팔만대장경은 기록문화유산입니다.”

특히 800년 가까이 대장경관 원형을 잘 보관하고 있는 장경관전의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회원들의 탄성이 절로 쏟아진다.

해인사를 떠나기 앞서 해인사 입구에서 홍류동계곡을 따라 조성된 해인사 소리길을 잠시 걸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흐르는 물조차 붉다’ 하여 부쳐진 홍류동 계곡은 비록 ‘홍류’의 아름다움은 볼 수 없었으나 실새없이 내리는 눈 사이로 얼어붙은 폭포와 흐르는 계곡물이 또다른 절경을 선사한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도착한 곳은 해인사 인근에 자리한 대장경테마파크.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해인사와 함께 꼭 둘러봐야 할 곳이다. 지난 2012년 4월 1일 개관한 대장경테마파크는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역사적, 문명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국내 유일의 대장경을 테마로 한 문화체험공간이다. 특히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제작과정과 역사적 의의, 유래 등과 함께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장경이 지금까지도 뒤틀림이나 훼손없이 원형을 간직할 수 있었던 비밀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시관을 돌아본 후 대장경빛소리관에서 대장경을 테마로 제작된 5D 애니메이션 ‘천년의 마음’을 관람했다. 일반 4D 상영관과 차별화된 원형상영관으로,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실감나는 영상에 감탄이 저절로 난다.

애니메이션 상영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대장경빛소리관 앞 광장에서 부산시립무용단 수석단원 김주령 씨의 지도로 우리춤체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경쾌한 동작을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추위에 한껏 움츠려있던 몸이 가뿐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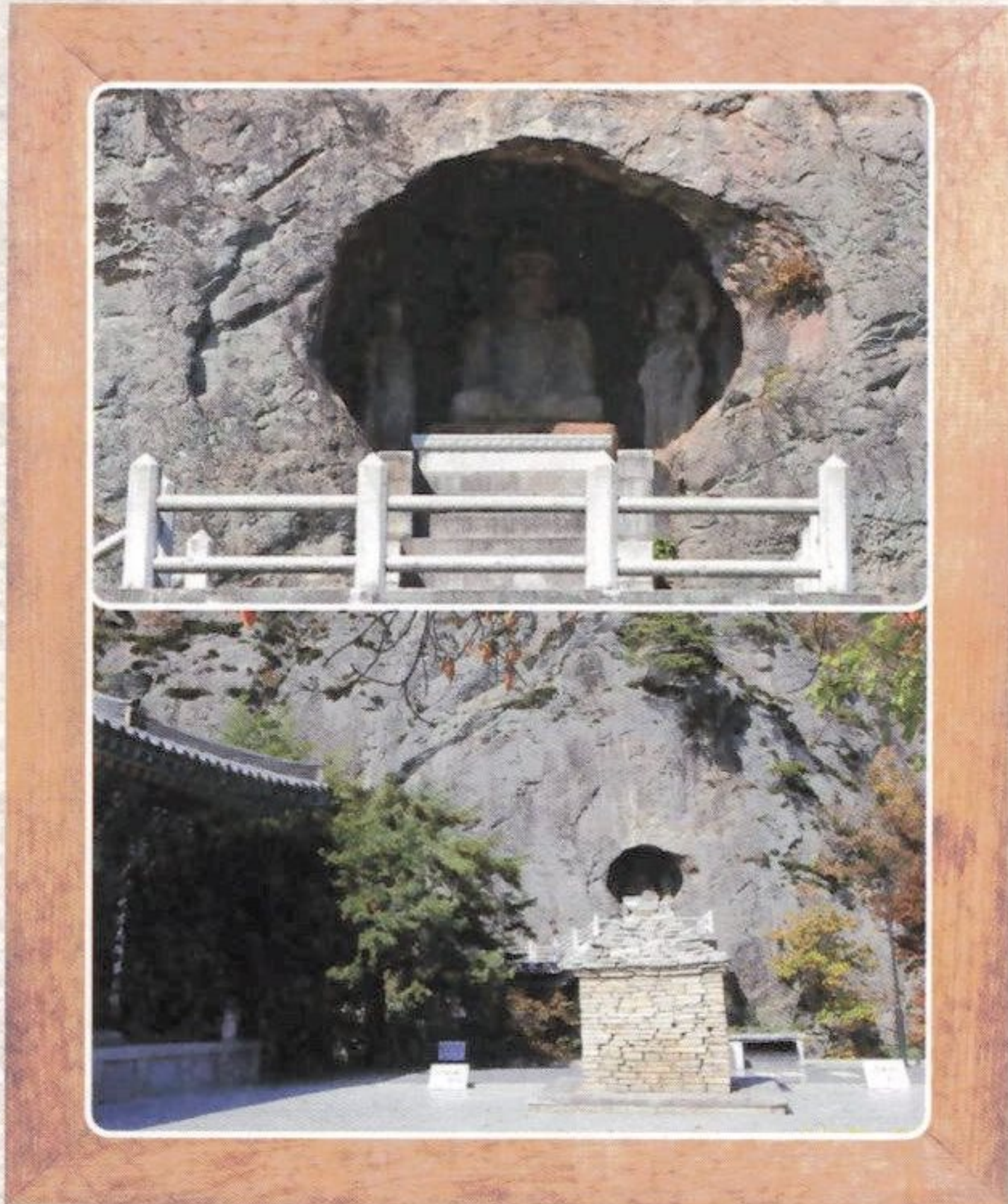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겨울 합천여행. 풍성한 보름달 만큼이나 오랫동안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속에 기억될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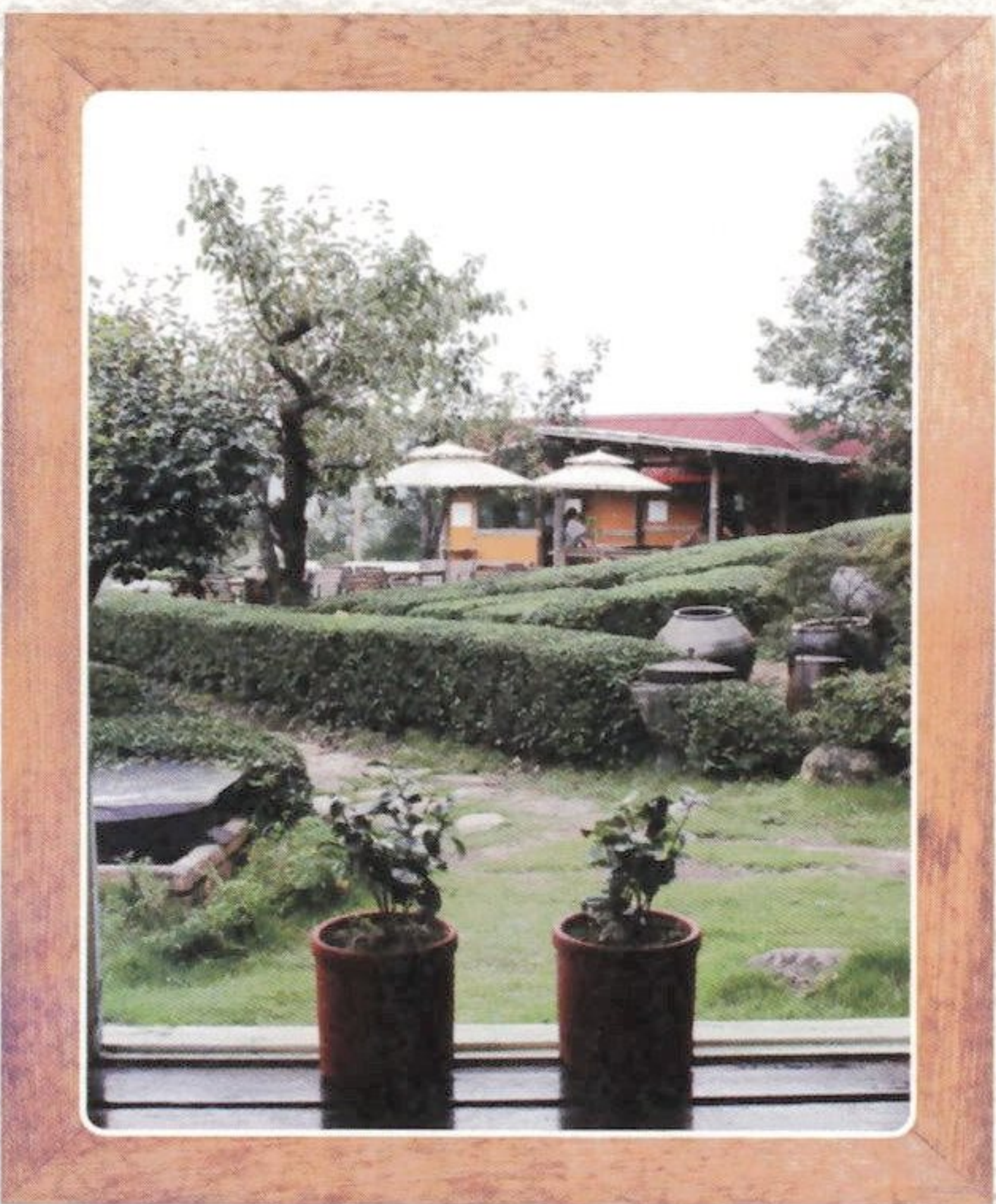
군위 석굴

4월 12일(금)

##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사과꽃 향기가 가득한 역사의 고장 경상북도 군위로 떠나는 봄 여행. 삼국유사를 집필한 천년고찰 인각사를 비롯해 신라 소지왕 15년(493년) 극달화상이 창건한 군위석굴(제2석굴암), 돌담이 아름다운 한밤마을 등을 둘러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30 한밤마을 도착, 마을 탐방
- 12:00 중식
- 13:00 제2석굴암 군위삼존석불, 인각사 탐방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매암차박물관

5월 9일(금)

## 하동 오감여행

지리산 국립공원과 맑고 푸른 섬진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청정 하동으로 떠나는 봄여행.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 평사리 최참판댁, 하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차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매암차박물관'에서 오감여행을 즐긴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하동 도착, 평사리 최참판댁, 평사리문학관 방문
- 11:30 악양 청보리밭길 걷기, 중식
- 13:00 매암차박물관 제다만들기 체험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 2014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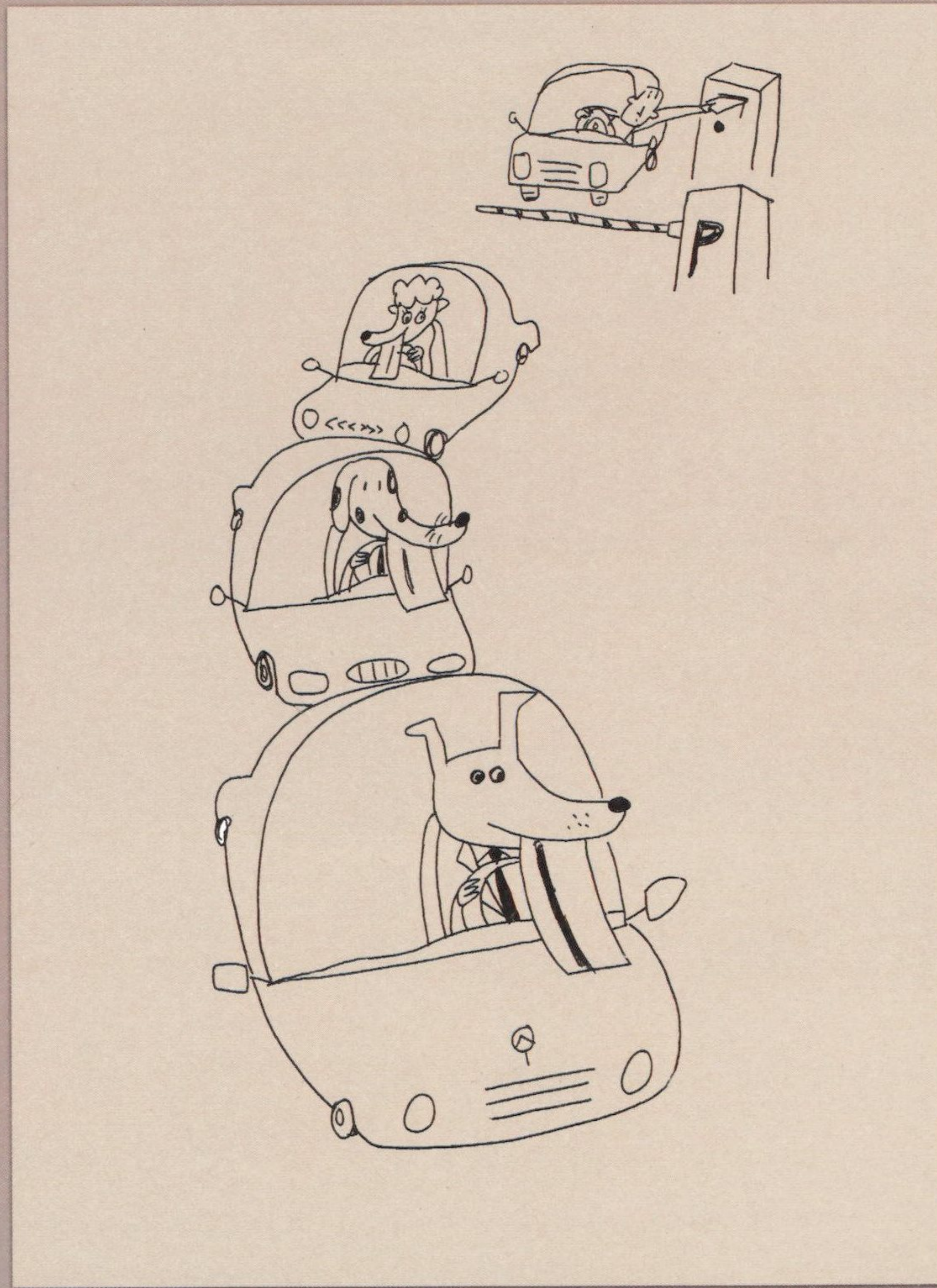
- | 신청방법 |
-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 마감일자 | 3월 16일
- |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607-3100)





# 그곳에 가면 개가 된다

무엇인가 골몰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분명 축복이다.  
가끔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본능에 충실한 금수로 산다는 것도 힐링이 아닐까.





# Culture Life

##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30 프리뷰
- 36 리뷰
- 38 프로그램 가이드
- 54 새로 나온 음반
- 55 새로 나온 책
- 56 스페셜 무비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만남, 아름다운 봄!



지휘 김철호

흥겨운 우리가락으로 만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4 신춘음악회  
'만남, 아름다운 봄!'이 3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수석지휘자 김철호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우리가락으로 담아낸 다이내믹하고 생동감 넘치는 흥겨운 무대로, 베트남 대표적인 현악기 단버우와 서양악기인 피아노의 협연,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악기인 아쟁 협연무대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첫 무대는 경기지방의 음계와 장단을 사용하여 경쾌하면서도 흥을 돋우는 선율로 구성된 국악관현악곡 '염월'으로 연다. 작곡가 박범훈의 초기 작품으로 알려진 '염월'은 시작과 끝, 고요한 소금 선율이 타악기와 함께 연주되고 합주와 각 악기의 대비선율로 경기가락의 매력을 더해주는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레화이프엉(Le Hoai Phuong)이 협연하는 단버우 협주곡 'Against the Wind' 부산초연무대. 베트남 전통악기 단버우는 한줄의 현악기로, 전기 확성 장치로 음량을 증폭한다. 베트남 Hue음악대학교와 베트남 국립음악원에서 단버우를 전공한 협연자 레화이프엉은 2003년 베트남 단버우 콩쿠르 1등, 2008년, 2010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상을 수상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다.

베트남의 전통현악기 단버우에 이어 심금을 울리는 우리 현악기 아쟁의 매력을 만

일 시 | 2014년 3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23



# Preview

날 수 있는 여미순의 '김일구류 아쟁산조 협주곡' 무대가 이어진다. 부산초연으로 선보일 '김일구류 아쟁산조 협주곡'은 소리적 요소가 강하며 가장 예술적이며 남성적 매력이 넘치는 선법과 표현력을 고루 갖춘 곡이다. 연주자 여미순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노와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봄의 선율을 선사할 '피아노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춘몽'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차민영의 협연으로 부산초연된다.

신춘음악회의 대미는 안태상 곡 국악관현악 '일출의 바다'로 장식한다. 해가 떠오르는 아름답고 웅장한 바다의 모습과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풍경을 담은 '일출의 바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진취적인 삶을 살고 싶은 작곡자의 이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동양적인 선율과 서양의 화성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킨 작품이다. 작품은 전체 4악장으로 구성, 1장 '새벽바다', 2장 '일출', 3장 '붉은 태양', 4장 '수평선 넘어'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진 진취적인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8회 정기연주회 그레이트 The Great

객원지휘 **곽승**클라리네티스트 **마이클 콜린스**

한 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엄격한 지휘자로 정평이 나 있는 대구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곽승이 3월 6일 제498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봉을 잡는다.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는 곽승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모차르트의 재치와 유머를 자유자재로 경쾌하고도 우아하게 표현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과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인 클라리넷 협주곡, 슈베르트가 너무나 애착을 보였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알려진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그레이트'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메인 타이틀곡인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은 제6번 교향곡을 완성한 후 짧았던 생애 동안 유일하게 마무리한 곡으로, 정식 초연은 사후 10년만인 1838년 슈베르트의 형 페르디난트가 가지고 있던 악보를 슈만이 발견하여 멘델스존에게 보냄으로써, 1839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멘델스존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슈베르트가 그문덴과 가슈타인에서 만사를 잊고 행복한 가운데 몰두한 작품인 만큼 슈베르트 특유의 풍부한 낭만성과 섬세한 감성 표출이 돋보인다.

협연자로 부산을 찾은 클라리네티스트 마이클 콜린스(Michael Collins) 눈부신 비르투오소적 기질과 감각적인 음악성으로 오늘날 가장 인정받는 아티스트이자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자이다. 16세에 제1회 올해의 BBC 영 뮤지션 콩쿠르 목관부문에서 우승하여 22세에 카네기 홀에서 미국무대에 데뷔한 마이클 콜린스는 이후 독주자로서 수많은 세계의 주요 오케스트라 협연과 저명 지휘자들과 긴밀한 활동을 이어왔다. 2010년 10월 런던 시티 심포니아의 지휘자로 위촉된 마이클 콜린스는 최근 타고난 음악성으로 연주자와 지휘자로 각광받으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런

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클랜드 필하모니아, 태즈메이니아 심포니 등을 지휘하였다.

이번 부산 무대에서 마이클 콜린스는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려준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죽기 약 2개월 전인 1791년 10월 초 비엔나 궁정악단의 클라리넷 주자 안톤 슈타들러(Anton Stadler)를 위해 작곡한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으로 음색이 다양하여 폭넓은 음악을 소화해낼 수 있는 클라리넷의 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작곡되었고 고음역과 저음역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독주자의 테크닉과 아울러 다소곳한 듯 하면서도 열정적인 감성을 품고 있는 클라리넷 특유의 음색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일 시 | 2014년 3월 6일(목)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제149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맛보는 음식백화점 **오늘 저녁... 뭐 무까?**



지휘 오세중

피아노와 타악기로 연주하는 새로운 느낌의 '카르미나 부라나'로 2014년 첫 무대를 연 부산시립합창단이 3월 27일 음악으로 전하는 특별한 성찬 합창으로 맛보는 음식백화점 '오늘 저녁... 뭐 무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많은 합창곡 중에서 음식이름으로 붙여진 곡들, 음식을 소재로 한 곡들을 한데 엮은 이번 무대는 오세중 수석지휘자와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의 맛깔스러운 무대진행으로 소중한 추억의 맛, 기분 좋은 상상의 맛이 느껴지는 행복한 무대를 선사한다.

전체 무대는 4가지의 메뉴로 진행된다. 첫 번째 무대에서는 혼성합창으로 만나는 무대로 '김치, 콩보리밥에 해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시래기(유영애 작사, 정덕기 작곡)', '김치밥국(이애리 작사, 심순보 작곡, 최석태 편곡)', '내 사랑 김치(탁계석 작사, 정덕기 작곡)', '콩보리밥(탁계석 작사, 정덕기 작곡)' 등이 무대에 오른다. 두 번째 무대는 대표 간식을 노래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떡볶이를 주제로 한 '떡볶이송(문지은 편곡)', '밥풀데기 송(문지은 편곡)', '라면 송 I, II(최석태 편곡)' '바나나 송(최석태 편곡)'을 여성합창으로 선사한다. 세 번째 무대는 남성단원들이 '오늘 저녁, 막걸리 한잔?'이라는 타이틀로 구수하고도 얼큰한 무대를 열어준다. 저녁 퇴근길 일상에 지친 아버지, 남편들을 달래줄 '간장(탁계석 작사, 성용원 작곡)', '북어(탁계석 작사, 정덕기 작곡)', '맛있는 불고기(탁계석 작사, 안현정 작곡, 백현주 편곡)', '어머니와 고등어(문지은 편곡)'로 재미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마지막 무대는 '늦은 사람들~ 식사하세요'라는 부제로 '멸치똥(복효근 작사, 정덕기 작곡)', '된장(탁계석 작사, 정덕기 작곡)', '중화반점(류웨이·루이스 작곡, 최석태 편곡)', '월드 비빔밥(탁계석 작사, 성용원 작곡)'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일 시 | 2014년 3월 27일(목)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2



## 리처드 용재 오닐 데뷔 10주년 리사이틀 FROM THE BEGINNING



한국에서의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데뷔 10주년 기념 리사이틀 'From The Beginning'이 3월 28일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01년 세종솔로이스츠 단원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처드 용재 오닐은 2005년 국내 무대에서 솔로로 데뷔한 후 첫 음반 '리처드 용재 오닐'을 출반했다. 용재 오닐은 비올리스트로서는 드물게 미국의 권위 있는 클래식 상인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그래미 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다. 그동안 솔리스트로서 런던 필하모닉, LA 필하모닉,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알테 무지크 쾰른, 세종솔로이스츠 등과 협연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쳤던 용재 오닐은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단원이자 국내에서는 디토펙스티벌 음악감독, 앙상블 디토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니버설 뮤직에서 발매한 솔로 앨범 7장과 베스트 음반 1장은 15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특히 2집 음반 '눈물'은 2006년 클래식과 인터내셔널 팝 두 부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과거 용재 오닐이 세종솔로이스츠를 통해 비올리스트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주목받는 젊은 연주자들과의 무대로 마련된다. 미국 매네스 음악대학의 우등 프로그램(Honors Program)을 통해 독주, 실내악, 작곡, 이론, 지휘 등을 폭 넓게 소화한 열정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피터 아시모프와 용재 오닐이 주목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시우와 프란치스코 플라나(바이올린), 대니 김(비올라), 제이 캠벨(첼로)로 이루어진 '콰르텟 센자 미주라(Quartet Senza Misura)'가 용재 오닐과 함께 아름다운 앙상블 무대를 선보

인다. 줄리아드 음악원 출신들로 구성된 콰르텟 센자 미주라 단원들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음악평론가 알렉스 로스가 <뉴욕>지를 통해 '날렵하면서도 영리한 연주'라고 호평받은 기대주들이다. 이번 공연에서 용재 오닐은 세종솔로이스츠 시절부터 자주 연주한 펜데레츠키의 '현을 위한 신포니에타'와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용재 오닐이 비올라로 옮겨간 후 처음 연주한 그로서는 의미있는 작품인 프랑크의 소나타 A장조를 들려준다.

일 시 | 2014년 3월 28일(금) 오후 7:00  
장 소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2만 5천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학생 30% 할인)

문 의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20



#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9회 정기연주회

##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호른 김영률

싱그러운 4월을 알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499회 정기연주회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 4월 1일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지휘, 국내외 호른계의 독보적인 연주자 김영률의 협연으로 막이 오른다.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 김영률은 격조 있는 곡 해석과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국내 및 국제관악계를 선구적으로 이끌고 있는 호른니스트로, 조선일보 주최 신인음악회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20차례에 걸친 독주회를 개최하는 등 호른 독주자로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 호른계의 독보적인 연주자로 입지를 다지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온 김영률은 '신동아'에서 '2천년대로 달리는 한국의 예술가'로 최다수 득표 선정되었으며, 제31회 국제호른협회(IHS)의 연례 심포지움에 독주자로, 제32회 국제호른협회 연례 심포지움에서는 그 해 최고의 호른연주자와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Punto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교육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의 단장으로 현재 전국 400개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률은 현재 제주국제관악제 집행위원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심사위원장, 김포필하모닉, The Winds 예술감독, 국제호른협회(IHS) 이사 및 서울대 음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김영률은 F.슈트라우스 호른 협주곡을 들려준다. 독일의 작곡가 겸 호른 연주자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아버지인 프란츠 슈트라우스는 바이에른 궁정 오페라의 수석 호른 주자로 40년 넘게 재직했고, 뮌헨 왕립음악학교 교수, 그리고 지휘자로도 활동했다. 1865년에 작곡, 자신의 독주로 초연된 이 작품은 세 악장이 쉬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19세기 낭만주의 형식에 오페라적 색채 또한 지니고 있다. 호른의 거장답게 슈트라우스는 호른의 음악적 표현에 있어 보여주기 위한 테크닉과 같은 화려한 길밧이 아닌 '거장적인 요소' 그 자체를 결합하고 있다.

호른 협주곡 외에 하이든 교향곡 제96번 '기적', 바르톡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 함께 연주한다. 첫 곡 하이든 교향곡 제 96번 '기적'은 서로 다른 분위기와 빠르기를 가진 곡들을 번갈아 연주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교향곡으로 이 선율을 듣고 있으면 우울한 기분이 싹 사라진다.

이번 정기연주회의 메인곡인 바르톡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바르톡이 미국에 망명한 지 3년 후인 1943년에 작곡된 명작이다. 1944년 1월 보스턴 심포니에 의해 초연되었으며, 1946년에 출판, 쿠세비츠키 부처에게 헌정되었다. 바르톡의 전 작품 중에서도 가장 색채적이고 재미있는 곡으로 꼽힌다.

일 시 | 4월 1일(화)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오인오색의 발렌타인

작곡가 하순봉



지난 2월14일은 발렌타인 데이와 정월대보름이 겹치는 날이었다. 그리고 15일은 대극장에서 론 브랜튼의 재즈 발렌타인 콘서트가 있었다. 움츠렸던 긴 겨울을 서서히 보낼 준비를 하면서 정월대보름의 기운을 받아 밝은 한해를 또 기약하며 그리고 연인들의 발렌타인 데이에 맞추어서... 정말 음악회 하기에 좋은 길일을 잡은 게 아닌가 싶다. 이 날의 부제는 '꽃과 사랑'이었는데 연주곡들도 와인과 장미의 날, Honeysuckle Rose, My One and Only Love 등 꽃과 사랑에 관한 게 많았고 그 외에 우리 가요 초우, 꽃밭에서, 단발머리소녀 그리고 스탠다드 재즈곡 Take Five 등이 연주되었다. 리더인 피아니스트 론 브랜튼은 친한파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에 온 뒤 아쟁의 달인 백인영, 재즈 보컬 나윤선, 소프라노 김원정 등 국내 뮤지션들과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크로스오버 활동을 했으며 김원정과 재즈동요음반을 발매하기도 했고 인기 뮤지컬 <김종욱 찾기>의 편곡 등 다양하게 한국음악과 함께 호흡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가요에 관심이 많아 우리 가요를 재즈로 편곡하여 녹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안 그래도 이날 소개된 몇 곡의 우리 가요들이 브랜튼의 편곡 탓인지 색다른 맛으로 느껴졌다. 론 브랜튼의 재즈그룹 멤버들은 색소폰 리차드 로, 기타 류크 도일, 베이스 임경진, 드럼 신동진, 피아노 론 브랜튼이다. 특별 출연한 보컬은 신소이로서 이날 세 곡을 불렀다.

재즈란 장르는 사실 가깝고도 먼 장르이다. 클래식과 비교하면 쉬울 것 같고 팝보다는 무언가 난해하다. 아니 때로는 클래식보다도 난해한 면도 있다. 프리재즈 같은 장르는 거의 클래식의 현대음악과 같다. 재즈의 즉흥연주는 고도의 숙련과 명인기를 요구한다. 재즈의 본질은 애드립(ad libitum) 혹은 즉흥연주(Improvisation)인데 주제를 먼저 원형대로 제시하고 다음부터 각 악기들이 각종 기교를 통한 즉흥연주로 이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 즉흥의 과정에서 연주자의 기량은 물론 음악적 해석, 취향 등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 즉흥이 끝나면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박수를 친다. 이 즉흥을 하기 위해선 재즈화성과 음계 등에 통달해야 되고 또 그런 패턴위에 자기만의 애드립을 더할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악보의 재현에 충실한 클래식 음악가들에겐 이런 즉흥연주는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실 바로크 시대의 통주저음주자는 이런 즉흥연주의 달인들이었다. 난 재즈의 즉흥연주를 보고 있으면 자기들만의 음악적 대화에 관객들이 동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이날도 이들의 대화는 자기들만의 호흡으로 좋은 대화를 이어갔으며 관객들도 큰 무리 없이 그 대화에 공감하고 끼어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즈의 가장 큰 특징인 이런 즉흥연주와 스캇송 등은 때로는 식상하고 진부하기가 쉽다. 재즈는 팝같은 강렬하고 노골적인 카타르시스도 없고 클래식같은 장엄미나 숭고미도 없기 때문이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들어야 제격인 관능적인 음악이다. 남에게 감정이입을 크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재즈는 세련되었다. 세련이란 모호함이다. 예술의 특징 중 하나는 중의(重意)인데 재즈는 중의적인 음악이다. 오늘날 우리는 가히 음악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판단과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그러나 편식이 몸에 좋지 않듯 음악도 고루 들어야 한다. 모처럼 겨울의 끝에서 오인오색의 즉흥연주에 마음을 편안하게 맡겨보는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 Review

##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제작배급사업의 출발을 바라보며

영화감독 김희진



작년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의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화 배급사업의 출발을 알렸다. 매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들은 영화제가 미래를 향해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예술영화의 배급이라는 것은 상업영화가 주를 이루는 영화산업에 있어서 영화가 가진 공공재적 성격을 지켜나가는 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고 그 영화들의 관점을 통해 삶의 인식과 지평을 넓혀 나가는 일은 예술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영화라는 매체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다.

아시아와 유럽으로 대표되는 예술영화 제작 환경은 배급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그간 국내의 예술영화 배급 상황은 예술영화전용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 멀티플렉스에 비해 소수이고 홍보 자본도 부족한 예술영화전용관의 실태는 예술영화들을 충분히 관객과 만나게 하는 데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본격적으로 배급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단 영화의전당이라는 안정적인 극장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예술영화 제작 주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양질의 작품들을 수급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에 더 많은 예술영화들을 공급하고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배급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 효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영화제의 업무와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사업 대행사와의 관계가 적당한 수익 균형 속에서 유지된다면 문제가 덜 하겠지만 예술영화의 국내 객석 점유율이 미약한 현실로 볼 때 배급대행사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영화제로서는 해외 작품들을 국내 개봉까지 이끌어내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수 있겠지만 배급과 홍보비용을 책임질 대행사는 사업적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해외로의 수출로 나아가는 사업적 확장도 가능한 측면이 있고, 국내에서는 부족하지만 다양한 부가판권사업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2014년 계획으로 제작 2편에 배급 5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저예산으로 주로 제작되고 있는 예술영화에 있어서 제작과 배급을 동시에 진행해준다는 것은 예술영화 제작자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펼치는 예술영화 진흥 활동이 활력을 얻을 것 기대한다. 하지만 영화제가 가지는 대외적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지켜나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매년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 사업안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지에 대한 걱정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이상과 현실이 일반적으로 결과를 달리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잘되면 좋은 것이지만 잘 안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늦추자 않기를 부탁한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명성과 관록이 부디 한국에 예술영화 시장의 저변을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 Program Guide >>



## 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 사진전

일 시 | 1월 5일(일)~4월 12일(토) 대전사실  
입장료 | 일반·대학생 1만 2천원, 중고생 1만원  
초등·유아 8천원  
(만 4세 미만 무료, 부산문화회관 정기  
회원 4매에 한해 2천원 할인)  
※해설시간 오전 11:00, 오후 2:00, 5:00  
문 의 | 디커뮤니케이션 612-6619

정점의 순간에서 전설이 된 20세기 최고의 사진  
잡지 '라이프(LIFE)', 그들이 선택한 위대한 기  
록을 전시로 만날 수 있는 라이프사진전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1936년 사진으로 소통하는 저널을 표방하며 헨  
리 루스(Henry Luce)에 의해 탄생된 '라이프'  
는 최고의 사진작가로 평가 받는 알프레드 아이  
젠슈테트, 유진 스미스, 로버트 카파, 더글러스  
던컨 등이 활동했으며, 주간 판매량이 1,300만  
부에 이를 만큼 절대적인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1972년 12월 29일 최종호를 발간하고 '그 해  
의 사진들'을 끝으로 폐간과 복간을 거듭하다  
2007년 완전히 폐간된 라이프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9백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사진자료를 제공  
하며 전 세계 4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을 거느리  
고 있다.

## 부산시립극단 제49회 정기공연 언챙이 곡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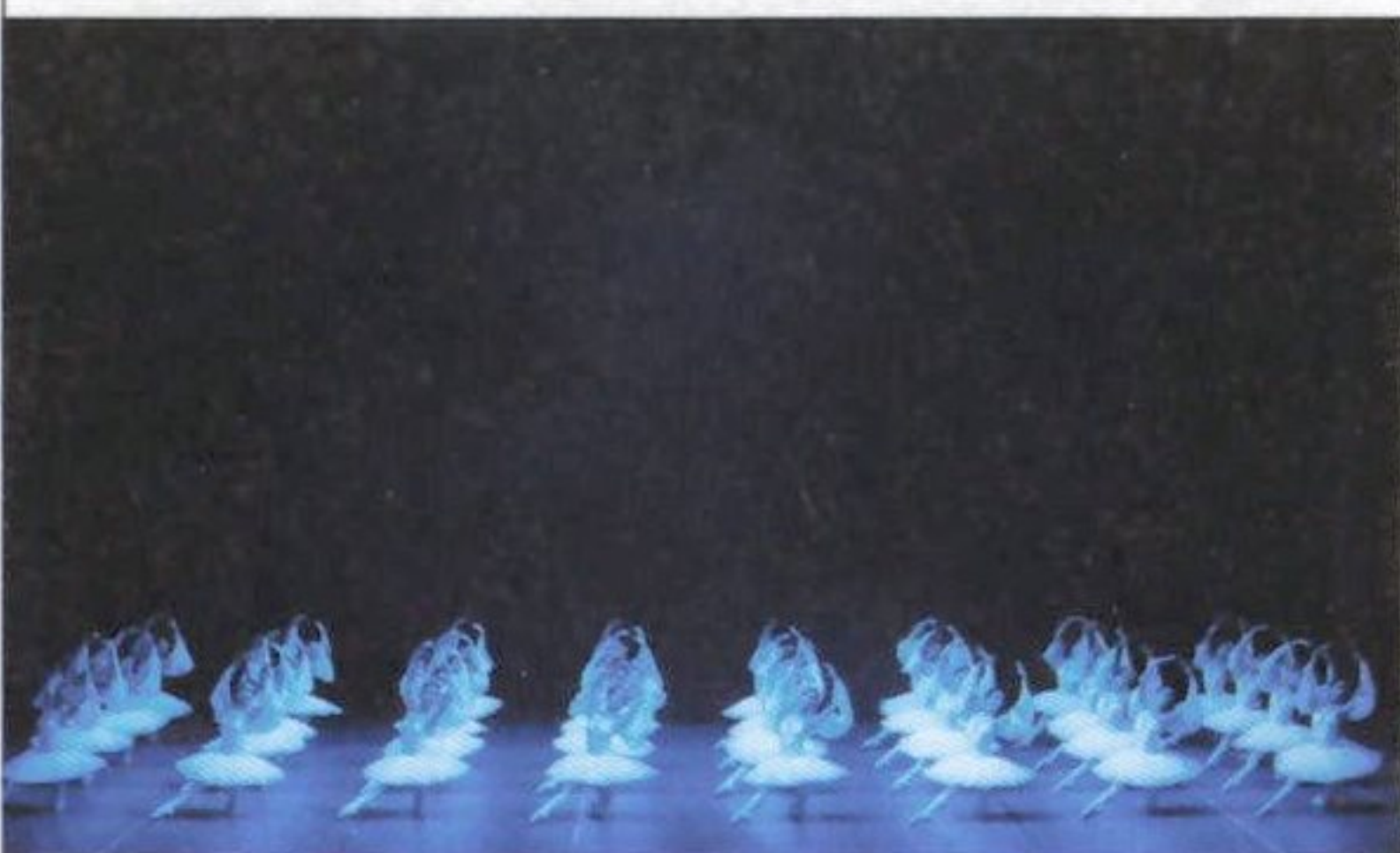
부제 - Story Concert '봄날은 간다'  
일 시 | 2월 27일(목)~3월 2일(일) 소극장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오후 7:30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전화예매시 청소년 50% 할인), A구  
역/E구역 시아가림석 5,000원(부산시립  
극단 전화예매 또는 현장판매에 한함)  
※중학생 이상 관람가능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51~2

지난해 9월 초연된 부산시립극단 '언챙이곡마단'  
앵콜무대.  
부산시립극단이 우수 레퍼토리 작품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언챙이 곡마단'은 연출가이자 극작가  
인故김상열의 대표작이다.  
'언챙이 곡마단'은 초연 당시 액자무대 위에 마당  
극 형식을 도입, 배우들이 자신의 배역을 마친  
후에도 무대 한쪽에 남아 관객이 되는 극중극 형  
식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황산벌 전투를 무대로 백제의 패망기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백제와 신라, 그리고 집단과 집  
단 사이의 역학 관계가 부조리한 측면으로 변조  
되고 역사성이 배제되어 기존 연극과는 다른 차  
별화된 재미를 선사한다.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초청 라 바야데르

일 시 | 2월 28일(금) 오후 7:30  
3월 1일(토)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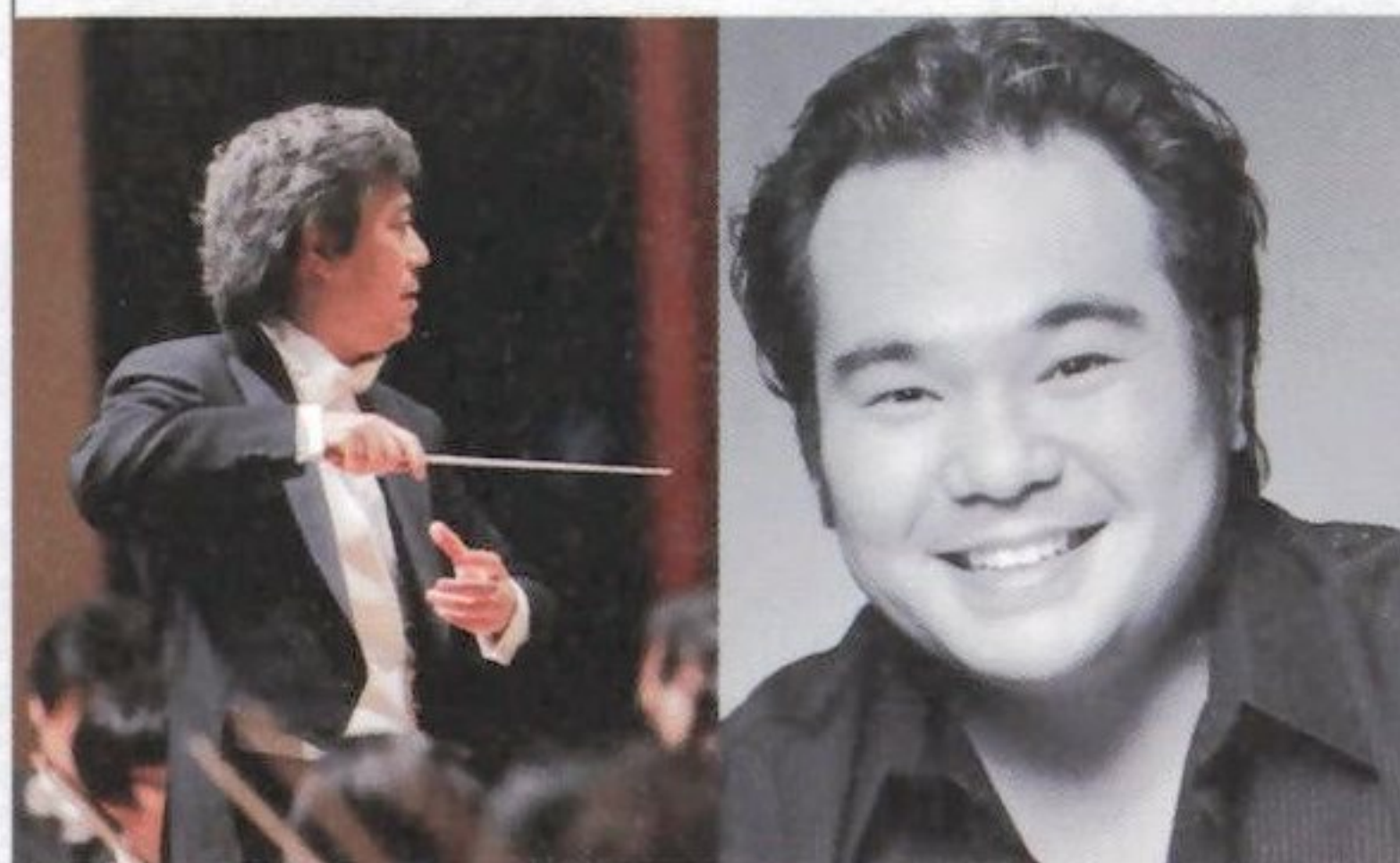
러시아 발레의 숨겨진 보석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국립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부산무대.  
2014년 국립발레단의 첫 공식무대가 될 '라 바  
야데르'는 지난해 국립발레단 창단 50주년을 기  
념해 18년만에 재탄생된 블록버스터급 발레로  
유리 그리가로비치가 국립발레단의 특성을 살린  
'국립발레단 버전'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 예술감독/강수진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쥬디스 안)



## 시민과 함께 하는 2014 평화통일콘서트

일 시 | 3월 4일(화)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문 의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산지역회의  
866-6363

세계평화와 한민족 통일의 염원을 담은 시민과  
함께하는 '2014 평화통일콘서트'.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  
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 '아이디아'에서  
라다메스역으로 영국 코벤트 가든의 로얄 오페  
라 하우스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테너 신동원을  
비롯해 소프라노 김현애, 첼리스트 이명진, 해  
금주자 나리가 열정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세계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대만의 작곡가 리체이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며 만든 '한국환상곡-  
Korea Fantasy'를 초연한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8회 정기연주회 그레이트 The Great

일 시 | 3월 6일(목)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대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  
동하고 있는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곽승과 눈부신 비르투오소적 기질과 감각적인  
음악성으로 오늘날 가장 인정받는 세계적인 클  
라리네티스트 마이클 콜린스가 들려주는 제498  
회 정기연주회. 16세에 제1회 올해의 BBC 영  
뮤지션 콩쿠르 목관부문에서 우승, 22세에 카네  
기 홀에서 미국 데뷔 무대를 가진 마이클 콜린스  
는 연주자와 지휘자로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활  
동을 이어가고 있다.





## 해금·아쟁 연주단 奚牙淵 창단연주회 2014 활의 노래

일 시 | 3월 7일(금)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奚牙淵 010-2396-0540



지난해에 발족한 해금과 아쟁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아연'의 창단연주회. 천년을 이어온 해금과 아쟁의 선율을 전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해아연(奚牙淵)은 '활'로 연주하는 두 악기의

공통점을 살려 앞으로 다양한 음악을 선사할 계획이다.

21세기 한국의 소리를 대표하면서 이 세상의 다양한 음악을 풀어내고 있는 해금과 중후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우리음악의 중저음을 맡고 있는 아쟁으로 연주하는 표정만방을 비롯해 다양한 창작음악을 들려준다.

- 고문/송권준 • 회장/정수경
- 음악감독/하재원, 방병원, 윤해승, 최영훈
- 해설/정은경(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김혜자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일 시 | 3월 8일(토) 오후 7:00  
3월 9일(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 6천원, S석 5만 5천원  
A석 4만 4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극단 화랑 1800-8987

오랜만에 연극무대로 돌아온 국민배우 김혜자의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부산공연.

프랑스 작가 '에릭 엠마누엘 슈미트'의 소설 '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원작으로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백혈병에 걸린 열 살 소년 오스카와 소아 병동의 외래 간호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장미 할머니와의 나이를 넘어서는 우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김혜자는 오스카와 장미할머니의 대화 속에서 두 역할을 소화해 내는 것 이외에도 감초역할을 하는 오스카의 부모님과 평생의 사랑 페기 블루, 친구들인 팝콘과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홀로 11여 명의 역할을 소화해 낸다.

- 연출/함영준
- 번역/김민정
- 출연/김혜자, 엄주빈(피아노)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일 시 | 3월 11일(화)-14일(금)  
3월 17일(월)-20일(목)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부산시립무용단의 눈높이 프로그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부산시립무용단의 인기마당춤판 레퍼토리 '구렁덩덩 신선비'를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콘텐츠로 각색,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 무용감독/홍경희(예술감독)
- 무용지도/서정숙(훈련지도자)
- 출연/이현숙(번사), 김진영(번사), 정진희, 박상용, 이현정, 허태성, 김미란, 김주연, 장영진, 김시현, 황동하, 김경미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만남, 아름다운 봄!



일 시 | 3월 13일(목)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우리가락으로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우리가락으로 빛어내는 베트남 대표적인 현악기 단바우와 서양악기인 피아노의 협연,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악기인 아쟁협연으로 다이나믹하고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2003년 베트남 단바우 콩쿠르 1등을 수상한 레화이프영은 국립국악관현악단, 경북도립국악단,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등과 협연한 바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을 역임

한 여미순은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프로그램

박범훈/관현악 '염원'  
황호준/단바우 협주곡 'Against the Wind'  
(부산초연)  
박범훈(편곡)/김일규류 아쟁산조 협주곡(부산초연)  
박선영/피아노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춘몽'  
안태상/관현악 '일출의 바다'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단바우 레화이프영(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아쟁 여미순(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 피아노 차민영(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비상임 단원)



## 2014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 특별연주회



일 시 | 3월 15일(토)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강규 010-4183-2293

부산지역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남성 합창단원들이 부산합창음악의 부흥을 위해 매년 초 1월과 2월, 대연동의 합창연습실 코랄하우스에 모여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만들어 내고 있는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의 2014년 무대.

전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김강규가 지휘봉을 잡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과 미국 신시네티음대(박사)에서 유학을 한 피아니스트 권준이 피아노반주를 맡는다.

- 특별출연/테너 조운환



프로그램  
가이드

## 이민아의 춤-筍(순)

일 시 | 3월 16일(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민아 010-5051-0242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로 우리 춤의 전승, 보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이민아의 우리춤 무대.

이민아는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우수상, 전국신인무용콩쿠르 수석상, 부산KBS무용콩쿠르 금상, 동아국악콩쿠르 전통무용부문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이매방류 승무, 검무(출연/이민아)  
한영숙류 태평무(출연/김주연)  
이매방류 입춤(허튼춤)(출연/하선화, 김수진, 하정화, 김혜미, 황경혜)  
살풀이춤(출연/이민아)  
장고춤(출연/하선화, 김수진, 하정화, 김혜미, 황경혜)

## 제4회 아미치 세텔레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18일(화)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아미치 세텔레 010-9334-6105

...

부산, 경남지역 성악가들이 관객과 보다 친근하게 만나고 호흡하기 위해 창단된 아미치 세텔레가 들려주는 신춘음악회.

봄과 관련한 한국가곡, 외국가곡, 오페라 아리아, 이중창, 남성합창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황덕식/봄이 오는 소리  
서혜선/봄과 그대  
심순보/그대는 봄  
윤용하/보리밭  
아르디티/IL Bacio(입맞춤)  
비제/Votre toast je peux vous le rendre (투우사의 노래) 등 수곡  
•소프라노/김정아, 박혜라, 김지혜, 왕기현, 박현진, 김지영, 신아름  
•테너/이철성, 한우인, 김태성  
•바리톤/고영호, 지광운  
•피아노/박재나, 황다운, 박지은  
•플루트/김남영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 2014 신춘음악회-봄의 갈라

일 시 | 3월 21일(금)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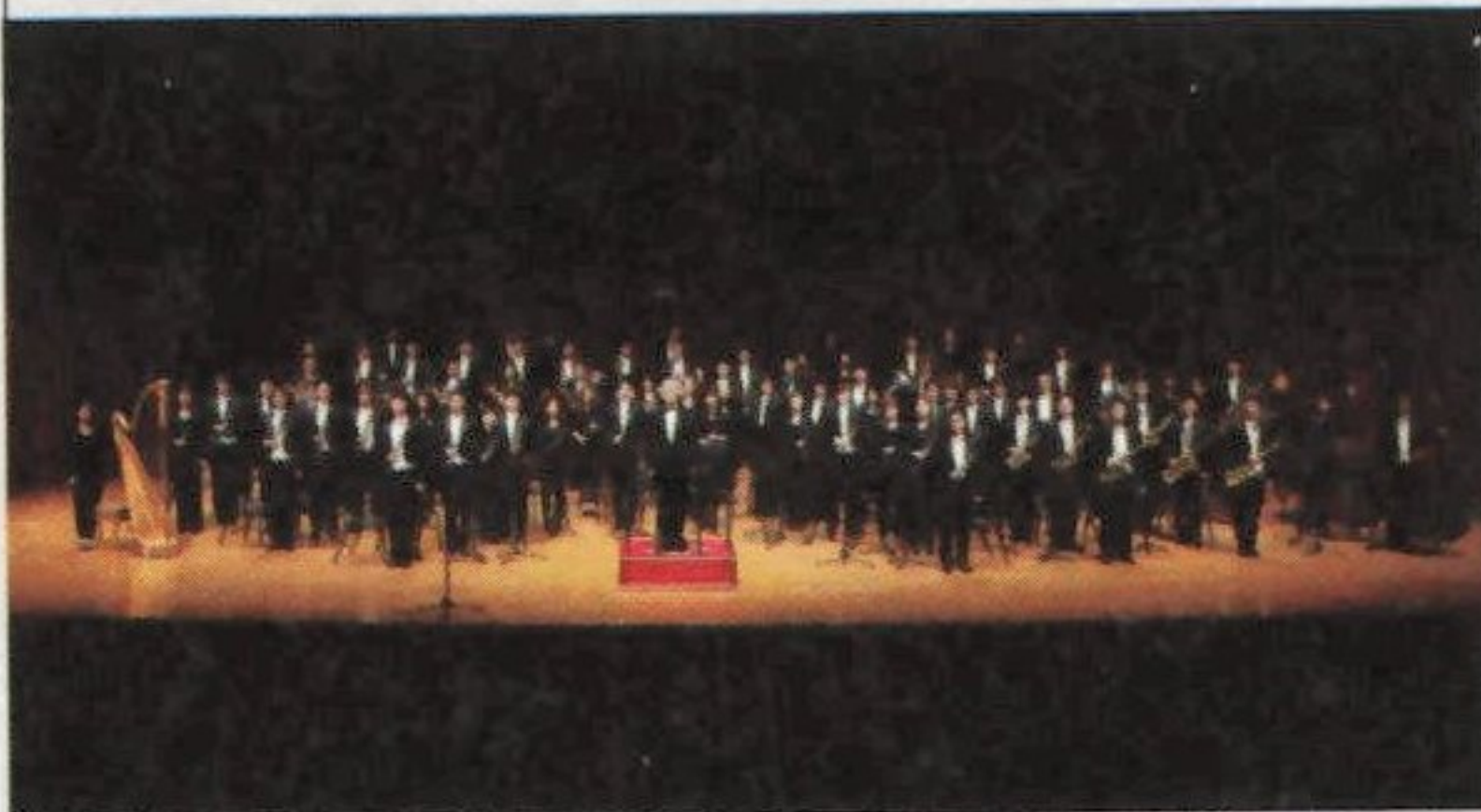
따뜻한 봄기운을 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년 신춘음악회 '봄의 갈라'.

천부적인 오페라 해석력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김지호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베르디, 푸치니, 레온카발로 등 명작곡가들의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베르디/'운명의 힘' 서곡  
베르디/'운명의 힘' 중 '삶이란 지옥'  
레온카발로/'팔리아치' 중 '잠시만... 여러분. 실례합니다'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중 '이상해!... 아, 그이인가?'  
베르디/'운명의 힘' 중 '소용없다 알바로'  
베르디/'리골레토' 중 '말해봐, 우리뿐이다...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지휘/리 신차오

## 크누아 윈드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일 시 | 3월 21일(월)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크누아윈드오케스트라 02-746-9252

...

1993년 결성된 이래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해외연주, 초청연주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관악합주단 크누아(KNU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윈드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오광호 교수가 지휘하는 크누아윈드오케스트라는 1996년 대학합주단 사상 처음으로 정기연주회 실황녹음 CD를 출판, 화제를 모았다. 1997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관악합주제(WASBE)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관악합주단의 기량을 선보인 바 있다. 부산예술중학교, 부산광역시 음악영재원을 수료한 부산출신 클라리네티스트 김상훈이 협연한다.

### 프로그램

야곱 데 한/Fanfare Of Korea  
로시니/서주, 주제와 변주  
앤더슨 /나팔수의 휴일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로시니/윌리엄텔 서곡 등 수곡  
•지휘/오광호(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 한국 클라리넷협회 명예회장)  
•협연/김상훈(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Piano Duo 앙상블 클랑 창단연주회

일 시 | 3월 23일(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클랑 010-8706-7424

...

피아노 듀오 음악의 매력을 전해줄 클랑의 창단 연주회.

### 프로그램

아렌스키/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피아졸라/그랜드 탱고 등 수곡  
•연주/한지희, 김유미, 김민희, 정유주

## U.K.O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제32회 사랑 나눔 음악회

일 시 | 3월 24일(목)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UKO 626-8084, 010-3863-3087

...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 U.K.O의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나눔 음악회.

부산과 경남 지역의 전문 연주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U.K.O는 2006년 11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0여 회의 연주회를 개최, 그동안 난치병을 앓고 있는 150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약 3억 8천만원의 금액을 전달하며 음악 사랑을 실천해왔다.

### 프로그램

멘델스존/'한여름밤의 꿈' 서곡  
멘델스존/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슈베르트/로자문데 중 3막 간주곡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5번, 제6번  
슈트라우스/도나우 왈츠  
차이코프스키/슬라브 행진곡  
•지휘/윤상운  
•피아노/김문주, 고은경



## 부산음악사랑회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24일(목)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음악사랑회 010-3885-6600

음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며 회원의 연주 활동과 음악행사에 적극 참여해 온 부산음악사랑회 제8회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가곡/창산은, 목련화, 강 건너 봄이 오듯  
 레하르/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거리의 만물박사' 등 수곡

- 연주/네오필 앙상블
- 소프라노/배화자, 조신미, 정윤지
- 테너/김정민, 장철남, 정량부
- 바리톤/김성홍, 배태균, 한성권
- 베이스/정광덕



## Jung Dance Company Project 2014



일 시 | 3월 24일(화) - 26일(목) **소극장**  
 오후 7:30

입장료 | 균일 2만원(3일 공연관람권)  
 문 의 | 정신희무용단 010-8234-2342

제32회 서울무용제 우수상, 2011 대한민국 무용대상 베스트7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공연활동으로 우리 춤의 매력을 선사해온 정신희무용단의 2014년 기획공연 'Project 2014'. 세가지 테마를 통해 젊은 춤작가들의 창작작품과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춤 무대를 선보인다.

### 24일 첫째날 춤, 형형색색(形形色色)

정신희무용단 준단원들의 실험적이고 개성넘치는 창작춤 무대.

### [작품]

- 면(안무 및 출연/최영지, 윤혜선, 이은경, 이현희)
- 입술(안무 및 출연/민나영, 김슬기, 박지현, 손유진, 신수정, 이지수)
- 중독(안무 및 출연/류은미, 김은진, 김슬기, 박성희, 박은솔)
- 촉(안무 및 출연/박성아, 이경아)
- 토선생 나가신다(안무 및 출연/류은미)

### 25일 둘째날 춤, 오색찬연(五彩繽紛)

#### [작품]

- 달, 나방(안무 및 출연/이경아)
- 오느길(안무 및 출연/박미향)
- 돌아보다(안무 및 출연/황경혜)
- 누구나 애(愛)원한다(안무 및 출연/권예원)
- 숲. 숲 - 마주보다(안무 및 출연/최지은)

### 26일 셋째날 춤, 세대공감(世代共感) III

#### [작품]

- 살풀이춤 - 김명자(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제97호, 전수교육조교)
- 산조춤/황희연(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협력 교수)
- 태평무/홍기태(전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 비상/정혁준(전 국립무용단 주역단원)
- 승무/박혜경(정신희무용단원)
- 장구춤/박성아(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재학)
- 입춤/오유리(브니엘예술고등학교 재학)
- 해설/장승헌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6회 정기연주회 2014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시리즈 I 독일 오페라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지난해 발레 음악시리즈로 한층 더 성숙한 음악을 선사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2014년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시리즈로 대장정을 시작한다. 오페라 음악을 더욱 빛낼 오페라 속의 관현악곡들로 펼쳐질 대장정의 첫무대로 극적인 내용 표현, 내면적 깊은 정감을 가진 서정성 등을 중요시한 독일 오페라 작품들을 들려준다.

독일 오페라의 자존심인 바그너가 노르웨이 신화를 인용한 것에 반해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아름답게 꾸며낸 프랑스 작곡가 무케의 플루트 협주곡을 플루티스트 오신정의 탁월한 기량과 해석으로 만날 수 있다.

### [프로그램]

- 베토벤/피델리오 서곡
- 슈트라우스/장미의 기사' 중 '피날레'
- 무케/판의 플루트' 작품15
- 바그너/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모음곡 등
- 지휘/이동신 (수석지휘자)
- 협연/오신정(플루트), 김유진, 구민영(소프라노), 김수현 (메조 소프라노)



## 한국피아노연주와 교수법협회 피아노앙상블로 듣는 봄의 향연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한국피아노연주와 교수법협회  
 010-4280-7365

- 한국피아노연주와 교수법협회에서 들려주는 뉴 페이스, 뉴 뮤직 '피아노앙상블로 듣는 봄의 향연'.
-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20세기 현대 작품들을 선곡, 기존 신인음악회와 다른 한편의 드라마 같은 신선한 무대를 열어준다.
- 연주/강주원, 김도희, 김유경, 문정옥, 박재영, 서영섭, 신영은, 이안나, 이연주, 장희진, 최지혜, 홍여진







### 이미성 퀸텟과 함께하는 시네마 재즈 콘서트

일 시 | 3월 27일(목)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피아노, 베이스, 드럼, 아코디언 연주가 어우러지는 이미성 퀸텟과 함께하는 시네마 재즈 콘서트. 이미성은 2007년 파리 인근 벨빌성 초청 공연에서 전통 민요를 재즈로 편곡해 호평 받은 것을 계기로

한국적인 것과 재즈를 접목하는 데 힘써왔다. 허성우(피아노), 윤종률(베이스), 정태호(아코디언), 김윤태(드럼) 등이 활동하고 있는 이미성 퀸텟은 한국의 Jazzy Colors 국제재즈페스티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재즈뮤지션이라고 평가받았다.

**[프로그램]**

Moment's Notice, Days of Wine and Roses(술과 장미의 나날), 사랑가(춘향전), When I Fall In Love 등 수곡

### 부산시립합창단 제149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맛보는 음식백화점 오늘 저녁... 뭐 무까?

일 시 | 3월 27일(목)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2

많은 합창곡 중에서 음식이름으로 붙여진 곡들을 엮은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특별한 성찬 '합창으로 맛보는 음식백화점-오늘 저녁... 뭐 무까?'

서민음식을 노래하는 혼성합창으로 만나는 무대 '김치, 공보리밥에 해장', 군것질 거리를 다룬 여성합창 무대 '여자들끼리 군것질', 얼큰한 맛을 전해줄 남성합창 무대 '오늘 저녁, 막걸리 한잔?'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위한 마지막 무대 '늦은 사람들~ 식사하세요'라는 부제로 재미있는 합창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김치, 공보리밥에 해장~/시래기, 김치밥국, 내 사랑 김치, 공보리밥  
여자들끼리 군것질/떡볶이송, 비플데기 송, 라면 송 I, II, 바나나 송 등 수곡

- 지휘/오세종
- 반주/이승윤, 이경미

### 청소년·일반을 위한 제10회 박헌주 Wings Dance Company 발레 공연

일 시 | 3월 29일(토)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박헌주 010-4552-9605

어렵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 발레를 보면서 즐기고 한층 청소년, 일반인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온 박헌주 Wings Dance Company가 7년만에 펼쳐지는 무대로, 기존의 작품과 새로운 모양의 창작 작품, 클래식 작품 네 편을 선보인다. 신라대학교 무용과와 대학원을 졸업(이학박사)한 박헌주는 현재 신라대학교 겸임교수, 부산문화청년포럼(뜰)대표 및 지도교수,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SKY(출연/박종위, 이은지, 오주은, 김수지, 이유진, 윤정의, 김정선, 박지은)  
돈키호테중에서...(재안무/박헌주, 이화성·출연/곽성권, 김민진, 김유경, 김지언, 김해련, 문예린, 민선희, 오현경, 이송현 외)  
회향(廻向)(출연/김인혜, 이종윤, 박근무)  
집시의 여행(출연/박헌주, 강용기, 이상영, 허소정, 최윤경, 오주은, 윤정의, 이유진, 김수지)

### 라운제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30일(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혜정 010-2425-5204

서로 다른 악기로 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배워가는 라운제나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내 소리보다 옆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나서기보다 옆 친구와 한 호흡을 하며 소리를 함께 만들어 온 라운제나 단원들이 1년간 준비한 무대이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25번  
앤드류 로이트 웨버/오페라의 유령  
Goroh Sumi/비행기 변주곡

###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시리즈 III

일 시 | 3월 31일(월)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전석 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오충근 교수의 지휘로 작곡 포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정덕기 교수의 창작곡 아리랑에 의한 기상곡을 비롯해 서울플루트연구회 상임지휘자, 린덴바움 목관5중주 멤버, 하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은정의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3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정덕기/아리랑에 의한 기상곡  
라이네케/플루트 협주곡 D장조 작품 283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3번 가단조 작품 44  
• 예술감독/오충근 • 플루트/강은정





## 옥수예술단 평화와 손잡다

일 시 | 3월 31일(월)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옥수예술단 010-8291-2311

하늘이 준 생명의 교훈을 생각하며 하나되어 사랑하며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결성된 옥수예술단의 특별공연.  
 옥수예술단은 그동안 제28회, 제2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초청 공연, 제3회 개천예술제 신인 안무가상 금상 수상, 제16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무용 경연대회 특상 수상, 제8회, 제9회 부산 국제무용제 시민춤릴레이 본선 진출 등의 무대를 통해 시민드러가 만나왔다.

### [프로그램]

- 1부 화합(Harmony)  
 피아노 듀오, 피아노 트리오
- 2부 평화(Peace)  
 옥수예술단 '평화의 합창' '평화를 명 받았습니 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크로바틱 무용단 '평화의 빛으로 하나되는 세상', 수화 '아름다운 세상'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9회 정기연주회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일 시 | 4월 1일(화)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4월을 알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499회 정기연주회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격조있는 곡 해석과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국내 및 국제관악계를 선구적으로 이끌고 있는 호르니스트 김영률이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다. 김영률은 '신동아'에서 '2천년대로 달리는 한국의 예술가'로 최다수 득표 선정되었으며, 제31회 국제호른협회(IHS)의 연례 심포지움에 독주

자로, 제32회 국제호른협회 연례 심포지움에서 그 해 최고의 호른연주자와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Punto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김영률은 현재 제주국제관악제 집행위원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심사위원장, 김포필하모닉, The Winds 예술감독, 국제호른협회(IHS)이사 및 서울대 음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프로그램]

- 하이든/교향곡 제96번 '기적'
- 슈트라우스/호른 협주곡
- 바르톡/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 지휘/리 신치오
- 호른/김영률



## 토요상설무대

일 시 | 토요일 오후 4:00(15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 3월 8일

#### 부산시립합창단 '봄이 오는 길목에서'

### [프로그램]

- 김순남/산유화
- 김동환/그리운 마음
- 스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 조두남/보리피리
- 현제명/봄처녀
- 오페라 아리아/Una voce poco fa (방금 들린 그대 음성), Dein ist mein ganzes Herz (당신은 내 마음의 전부요) Pieta, Rispetto, Amore (자비도, 영예도, 사랑도) 등 수곡
- 출연/이정란(소프라노 수석), 엄남이(소프라노 부수석), 정은영(앨토 수석), 김윤희(앨토 부수석), 최춘식(테너 수석), 김진영(테너 부수석), 문동환(베이스 수석), 최성규(베이스 부수석)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3월 22일

#### '재즈밴드 러브레터'가 들려주는 이른 봄의 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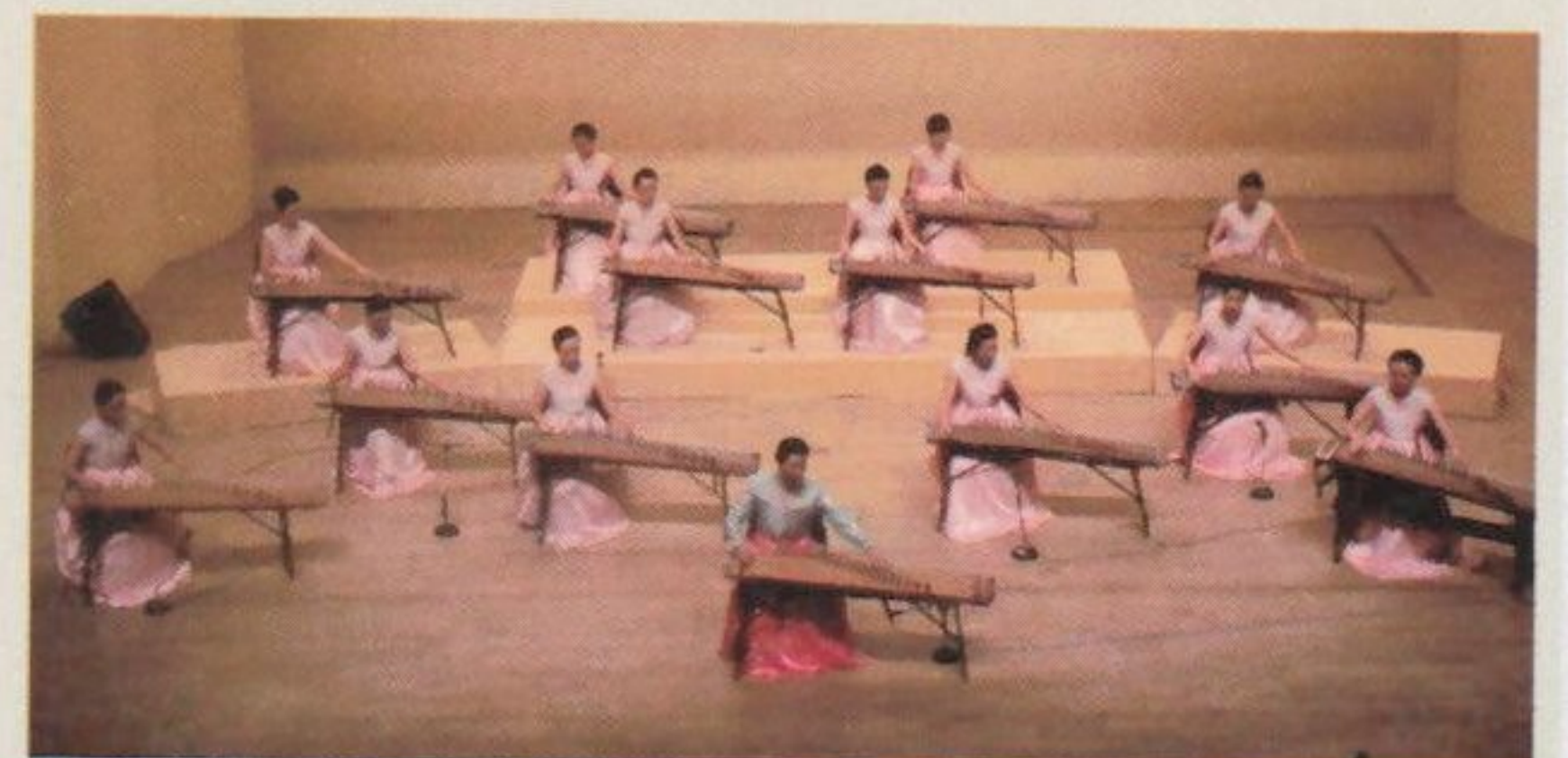
- 출연/최은아(리더, 보컬), 하지림(피아노), 최창근(색소폰), 박재훈(더블베이스), 곽영일(드럼)

### 3월 29일

#### 일파가야금합주단 봄의 향기, 꽃의 향기, 가야금의 향기

### [프로그램]

- 25현가야금 3중주/뱃노래 변주곡
- 아리랑 변주곡/25 현가야금 중주곡
- 25현가야금을 위한 리틀스토리(Little Stories)
- 퓨전국악/박 타는날, 흥가리무곡 + 아리랑
- 드라마, 영화음악/해를 품은 달 OST, 침밀밀(話蜜蜜)
- 영화음악/석양의 무법자, 강남스타일
- 대표/장혜숙
- 해설/장명화(중요무형문화재 제83호 보유자 후보,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강사)
- 악장/장경화
- 단원/김지우, 김소라, 김경현, 김미나, 이하빈, 류다인
- 객원/손은혜, 안미나(퓨전그룹 신비)
- 타악/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장고)





음악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및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일신명무대' 3월 공연. 올해 2014년에는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 성악, 민속춤, 민속악, 궁중 문화, 창작음악과 춤, 국악 관현악, 들놀이와 연희, 타악 등 아홉 가지 장르로 나뉘어 다양하게 진행된다.

● 1일 신명의 울림 '타악'  
비나리, 판소리 고법, 삼도설장구, 운우고천, 모듬북과 태평소(구성 이진희)

- 8일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전폐희문, 영관', 처용무, 판소리, 가곡, 아리랑, 강강술래
- 15일 함께하는 우리소리의 아름다움 '성악' 회심곡, 가야금병창, 단가와 판소리, 사랑가춤, 시조와 가사, 경서도 민요
- 22일 흐르는 듯 멈추고, 멈춘 듯 흐른다 '민속춤' 태평성대, 입춤, 승무, 산조춤, 한량무, 설장구춤
- 29일 가락에 시름을 씻고 흥을 담아 '민속악' 푸살, 산조, 동부민요, 시나위와 살풀이, 남도 토속민요, 삼도풍물가락



**백동훈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 3월 3일(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백동훈 010-3325-8729, 890-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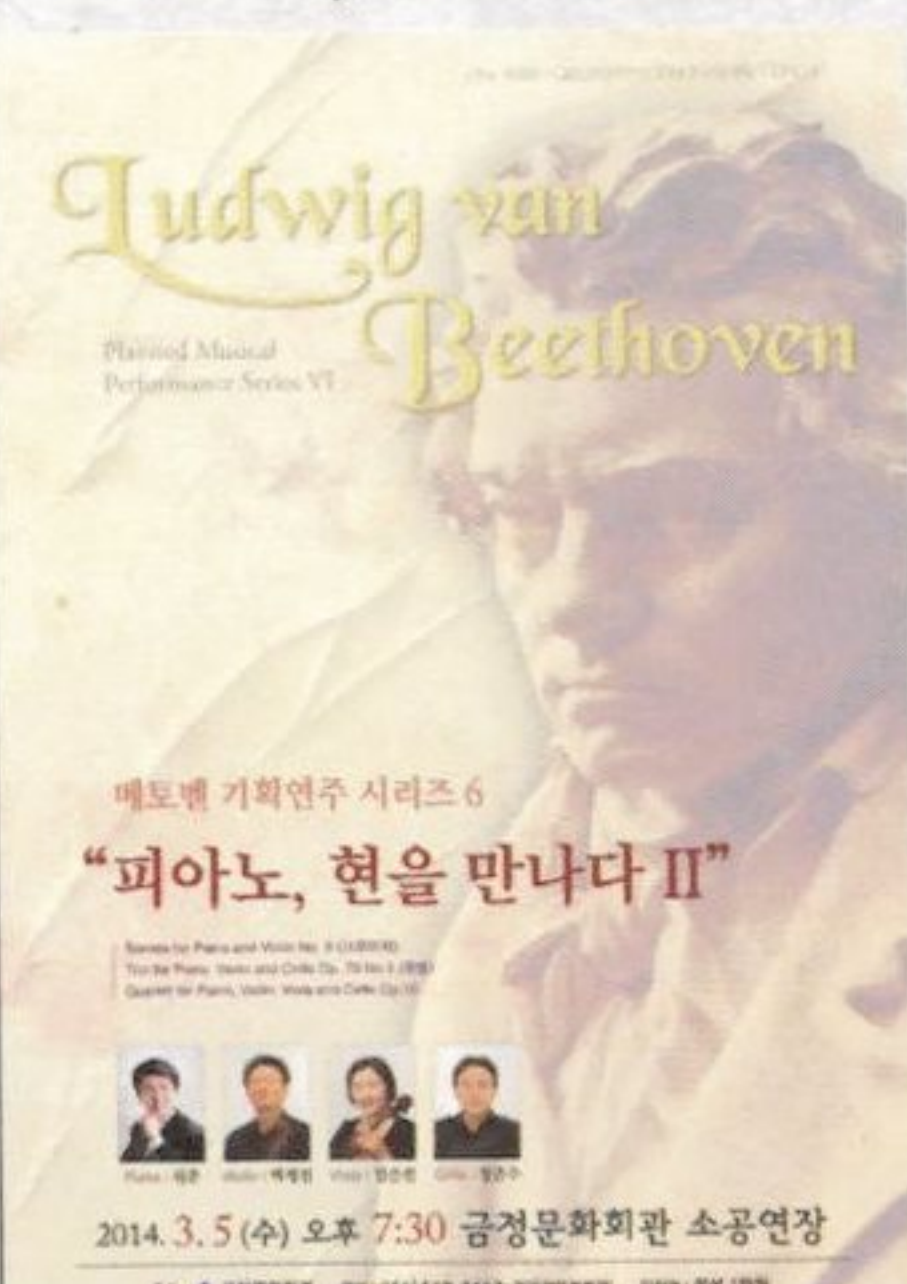
부산예고 재학중 러시아로 유학, 보시비르스크 중앙음악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말메종 국립음악원, 파리국립음악원을 수석 입학한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독주회. 동아콩쿠르를 비롯해 프랑스 Concours d'Europeen 특별상, 러시아 Sibir 콩쿠르, Nedegda Krasnoyarsk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2013 금호 영아티스트로 선정된 백동훈은 이번 무대에서 클라리넷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드뷔시/랩소디 제1번  
베버/콘체르티노 작품 26  
모차르트/5중주 가장조  
● 특별출연/비루투오조앙상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5일 베토벤 기획연주시리즈6  
'피아노, 현을 만나다II'



피아니스트 권준,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비올리스트 김은진, 첼리스트 정준수가 들려주는 베토벤 기획연주시리즈 6번째 무대 '피아노, 현을 만나다II'.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9번 '크로이처'  
베토벤/트리오 작품

70 제1번 '유령'  
베토벤/4중주 작품 16

● 12일 앙상블 라이덴샤프트 창단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홍은지,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피아니스트 진승민으로 결성된 앙상블 라이덴샤프트 창단연주회. '라이덴샤프트(Leidenschaft)'는 독일어로 '격정, 열정, 정열'을 뜻한다.



**[프로그램]**  
하차투리안/트리오  
메노티/트리오  
스트라빈스키/모음곡 '병사의 이야기'

● 19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음악회  
'사랑의 노래'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들이 마련하는 동문음악회.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사랑스러운 그 이름이여'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난 꿈 속에서 살고 싶어요'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윤선기, 장희진, 박현진, 박유나, 이은미, 메조소프라노 김수현, 테너 김경민, 바리톤 윤풍원  
● 피아노/표세구, 최영민

● 26일 비루투오조앙상블 '명품 현악 4중주의 밤'  
지난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에 의해 창단된 후 지금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 연주단체로 사랑받고 있는 비루투오조 앙상블 '명품 현악 4중주의 밤'.  
**[프로그램]**  
스메타나/현악4중주 제1번 '나의 생애로부터'  
슈베르트/현악4중주 제14번 '죽음과 소녀'  
● 연주/백재진(바이올린), 김도경(바이올린), 김은진(비올라), 정준수(첼로)





## 제59회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유영욱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3월 6일(목) 오후 7:00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입장료 | 후원금 1만원(사전예약)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독일 본 국제베토벤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베토벤의 환생'이라는 현지 언론의 리뷰를 통해 '한국의 베토벤'이라는 별칭을 얻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유영욱 초청무대. 유영욱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

과 만나고 있다.

### [프로그램]

바흐/프렐류드와 푸가 2권 제11번 바장조  
슈베르트/소나타 다단조 D.958  
그라노도소/고에스카스 중 '한탄 또는 마하와 밤 피코리'  
리스트/노르마의 회상

## 스페이스 음 '차가 있는 음악회' 양경아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3월 6일(목) 오후 7:30  
스페이스 음  
입장료 | 균일 1만원(음료 포함)  
문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미국 맨해튼음대, 메릴랜드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그동안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초청무대로 마련하는 스페이스 음 '차가 있는 음악회' 3월 무대.

###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사장조 K.301  
그리그/소나타 다장조 작품 45  
생상/서주와 란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등  
•피아노/최정윤



양경아



최정윤

## 시명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3월 8일(토)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시명진 010-7666-3024

중양대학교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Italy G. Spontini(공립대학) 박사과정 (D.S.M.A), Internationale Sommerakademie Mozarteum Diplom(Austria Salzburg)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시명진 독주회.

### [프로그램]

리스트/순례의 해 중 '베네치아와 나폴리' I, II, III  
리스트/파가니니 대연습곡 II, IV, VI  
리스트/슈베르트 '송어' 주제에 의한 변주곡  
리스트/물 위에서 노래함 등



## 김지현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3월 11일(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지현 010-8255-868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연주학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한연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지현 독주회.

김지현은 한국음악교육 협회 콩쿠르 대상 및 장학금 수상, 서울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마산음악 협회 콩쿠르, 영남대학교 콩쿠르, 제13회 부산피아노듀오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드뷔시/판화  
슈만/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  
베토벤/소나타 제30번 마장조 작품 109 등

## 제24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2014 신춘음악회-오페라 스타

일 시 | 3월 11일(화)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한국인이 좋아하는 오페라 갈라무대로 선보이는 동래문화회관 숲속의 열린음악회 2014 신춘무대.

이태리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한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소프라노 구민영, 프랑스 콘서바토리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등으로 졸업한

테너 김현기, 영국 왕립오페라극장에서 소프라노 키리 테 카나와와 협연한 바리톤 성승욱이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미미는 돌아오지 않고'  
들리브/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등 수록  
•진행/장진규

## 제28회 을숙도명품콘서트 '춘설'

일 시 | 3월 13일(목)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2014년 첫 무대. 봄의 길목 3월을 맞아 '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김인철/A piece for Orchestra  
황병기/New spring  
슈만/교향곡 제1번 내림나장조 작품 38 '봄'  
•예술감독/김원명(경성대학교 교수)  
•작곡/김인철(창원대학교 교수)  
•지휘/이효상  
•연주/T.I.F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김남순(가야금, 부산대학교 교수)



프로그램  
가이드

### 화이트데이 윤한 로맨틱 콘서트

일 시 | 3월 14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팝 피아니스트와 싱어 송라이터의 경계를 허물며 방송, 음악감독, 홍보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윤한의 2014년 화이트데이 콘서트.

2012년 첫 단독콘서트 'The Piano'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 콘서트 모두를 매진시킨 윤한은 이번 무대에서 특유의 로맨틱한 보컬과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그대를 그리다(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OST), Kiss, Cappuccino, The drive song, Paris, London, Autumn leaves, Ribbon in the Sky 등 수록

• 게스트/황정규(콘트라베이스), 유승철(트럼펫), Chris B(기타), 한상희(드럼)

###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일 시 | 3월 15일(토)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고전음악감상실인 무지크바움이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살롱음악회 3월 무대.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실연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채원, 안은

탁의 듀오무대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모차르트/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모음곡  
쇼스타코비치/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다섯개의 소품  
• 피아노/성아람

### 바리톤 시영민 귀국 독창회

일 시 | 3월 17일(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시영민 010-4182-0176



연세대학교 성악과(수석 졸업)와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일성악콩쿠르, 대구음협 성악콩쿠르 입상, 한국음협 해외파견콩쿠르 성악 부문 1위 등을 수상한 바리톤 시영민 귀국 독창회.

시영민은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외에도 TPC 동남아 3개국 순회 공연, 오페라 갈라콘서트(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독일인도주의협회(HVD) 초청 베를린 필하모니 캄머잘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코지 판 투테' 중 '그대의 눈길을 그에게 돌려요'  
슈베르트/마왕  
브람스/네 개의 엄숙한 노래 등 수록

### 제87회 한낮의 유U; 콘서트 Spring Symphony

일 시 | 3월 18일(화)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국제신문사(500-5222)

소프라노 김은형, 테너 조영수, 피아니스트 박정현이 새봄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한낮의 유U; 콘서트 신춘음악회.

**|프로그램|**

비발디(박성완 편곡)/봄  
임금수/강건너 봄이 오듯  
홍난파/봄처녀  
스트라우스/왈츠 '봄의 소리' 등 수록

• 지휘/박성완(음악감독)  
• 연주/KPO(Kookje Promusica Orchestra)



### 2014 카잘스페스티벌 인 코리아 어느 화창한 봄날에

일 시 | 3월 20일(목) 오후 8:00  
영화극장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주)오푸스 070-7826-1456



평화와 화합, 자유를 기치로 내건 62년 전통의 국제 실내악 축제인 '카잘스 페스티벌(Casals Festival)'의 취지를 살려 지난 2011년부터 국내에서 마련해오고 있는 '카잘스 페스티벌 인 코리아 2014년 무대.

크리스티안 알텐부르거, 백주영(바이올린), 아브

리 레비탄(비올라), 아르토 노라스, 백나영(첼로), 성민제(콘트라베이스), 미셸 레티엑(클라리넷), 랄프 고도니, 김규연(피아노), 이석준(호른) 등 국내외 음악가들이 참여해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류재준/3개의 마드리갈  
펜데레츠키/6중주  
슈베르트/5중주 '송어'

### 2014 카잘스페스티벌 인 코리아 어린이를 위한 콘서트

일 시 | 3월 20일(목) 오후 2:00  
영화극장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 (주)오푸스 070-7826-1456



'카잘스 페스티벌 인 코리아'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하는 어린이를 위한 콘서트.

프랑스 카잘스 페스티벌 현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으로, '카잘스 페스티벌 인 코리아'에 출연한 연주자들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의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라벨/어미거위, 생상스/동물의 사육제





## 창작국악단 젊은풍류 젊은국악프로젝트 민화, 풍류와 노닐다!

일 시 | 3월 20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예매시 20% 할인)

문의 | 창작국악단 젊은풍류  
010-6708-8388, 010-4202-3003

우리나라 고유의 회화인 민화를 소재로, 민화가 지닌 해학과 창의적인 아름다움을 악(樂), 가(歌), 무(舞)로 구성한 창작국악단 젊은풍류의 무대. 2007년부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창작국악단 젊은풍류는 '藝人!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밖을 뛰쳐나오다', '新 고려가요', '부산을 노래하다', '애釜山이여' 등 신선하고 참신한 소재로 지역사회 국악 대중화에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전해지는 10개의 민화를 모티브로 한 10개의 창작곡이 초연된다.



## 김현정 귀국 오보에 독주회

일 시 | 3월 20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경성대학교와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 스위스 취히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중인 오보이스트 김현정 독주회.

경성대학교 재학 당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객원단원, 양산시립

관악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김현정은 유학시절 유럽의 다수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 수석주자로 활동하며 연주경력을 쌓기도 했다.

###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사단조  
양리 뒤티외/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도니체티/잉글리쉬혼과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등  
• 피아노/박소미

## 서주옥 피아노 귀국 독주회

일 시 | 3월 21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서주옥 010-2252-3010

동명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고등음악원에서 폭넓은 음악 수업을 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서주옥 귀국독주회.

### 프로그램

모차르트/환상곡 KV.397  
베토벤/소나타 Op.81a '고별'  
리스트/발라드 제2번  
생상/에튀드 작품 52 제6번 등



## 양성원 & 엔리코 파체 듀오 콘서트 브람스 첼로소나타 전곡 연주

일 시 | 3월 21일(금)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2013년 바흐 무반주 첼로 전곡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첼리스트 양성원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와 함께 선보이는 브람스 첼로소나타 전곡 연주회.

브람스가 남긴 두 개의 첼로 소나타와 브람스에게 음악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슈만의 작품으로 특별한 무대를 열어준다.

### 프로그램

브람스/첼로소나타 제1번 작품 38  
슈만/5개의 민요풍 소곡 작품 102  
슈만/환상소곡집 작품 73  
브람스/첼로 소나타 2번 작품 99

## KBS교향악단 초청음악회 러시아가 사랑한 음악

일 시 | 3월 22일(토) 오후 5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 7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세계적인 거장 요엘 레비를 상임지휘자로 맞아 제2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KBS교향악단 초청음악회.

2001년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 러시아인 최초 우승에 빛나는 첼리스트 타티야나 바실리에바의 협연으로, 러시아가 사랑한 음악가 쇼스타코비치, 차이코프스키,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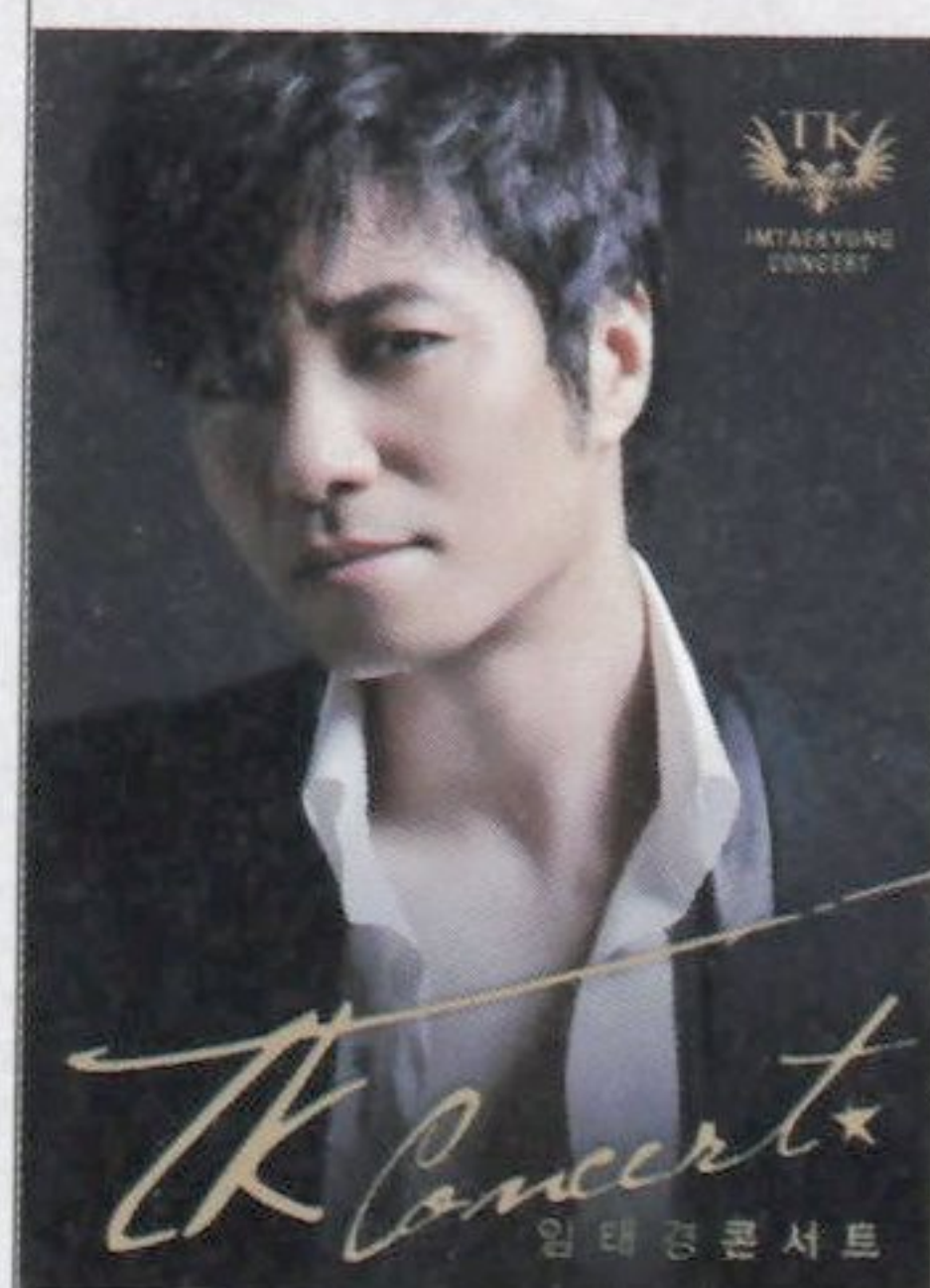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발레모음곡 제1번  
차이코프스키/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  
스트라빈스키/불새  
• 지휘/요엘 레비  
• 협연/타티야나 바실리에바(첼로)

## 임태경 콘서트 TK CONCERT

일 시 | 3월 22일(토)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A석 7만 7천원

문의 | SW엔터테인먼트 1588-3154



'천상의 목소리'로 사랑받는 뮤지컬 배우 겸 크로스오버 테너 임태경 부산콘서트.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전야제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의 협연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임태경은 2005년 창작뮤지컬 '불의 검' 주역으로

뮤지컬 무대에 데뷔한 이래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임태경은 최근 들어서는 TV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면서 탁월한 가창력으로 '명품보이스'라는 찬사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뮤지컬과 브라운관을 통해 보여줬던 다채로운 모습 외에도 색다른 변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  
가이드

### 송인수·이세영 조인트 리사이틀

일 시 | 3월 24일(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하혜경 010-5597-5262  
이미경 010-4001-5849

부산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송인수, 이세영이 마련하는 조인트 리사이틀로, 그동안 음악수업을 통해 익힌 실력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베토벤/32 바리에이션  
리스트/베네치아와 나폴리 중 타란텔라  
쇼팽/발라드 1번  
브람스/헝가리무곡 1, 2, 5번 등



### 신영주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에서 학사, 자브뤼켄 국립음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 에센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신영주의 귀국 독주회. 귀국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신영주는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와 프로코피에프, 리스트, 라벨의 곡을 들려준다.



### 명창 박성희, 신문범의 행복 TARO 타로 신명나게 놀아보자!

일 시 | 3월 27일(목)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퓨전음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악전문단체인 '타로' 초청공연.

'타로'는 지난 2004년 창단공연 후 지금까지 7차례 정기연주회와 특별기획공연,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공연, 한중수교 20주년 문화교류기념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셋·돌과 사물놀이, 국악가요 '천지여 천지여, 시연가, 배 띄워라', 장구합주 '다드리', 모듬북합주곡 '타(打)' 등  
• 해설/박성희(타로 공동대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 김하은 작곡발표회

일 시 | 3월 27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하은 010-2558-5521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2등, 경희대학교 음악콩쿠르 2등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김하은 작곡발표회.

피아노 쉼넷, 클래식 기타와 첼로 앙상블, 성악곡, 가야금 독주곡, 합창곡 등 다양한 편성의 창작곡들을 들려준다.

• 연주/류신기(테너), 강민정, 남동우, 박정현(기타), 조강현, 황주혜(첼로), 윤연나(가야금), 이다은(피아노)



### 리처드 용재 오닐 데뷔 10주년 기념 리사이틀 From The Beginning

일 시 | 3월 28일(금) 오후 7:00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2만 5천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학생 30% 할인)  
문의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20



에버리 피셔 그랜트상 수상, 그래미상 후보 지명, 앨범 15만장 이상 판매, 앙상블 디토 음악감독, 지휘 데뷔에 이어 2013 국제에미상 수상까지 걸출한 행보를 이어왔던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데뷔 10주년 기념무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떼는 무대로, 리처드 용재 오닐이 세종솔로이츠를 통해 비올리스트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 이번 무대에서는 젊고 재능있는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선다.

• 출연/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라), 피터 아시모트(피아노), 김시우(바이올린), 프란치스코 풀라나(바이올린), 대니 김(비올라), 제이 캠벨(첼로)

### 제75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일 시 | 3월 30일(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 기금 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이번 3월로 75회를 맞는 글로벌 행복음악회는 그동안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려왔다.





## 연극

### 콘서트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일 시 | 2013년 9월 26일(목)~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휴관)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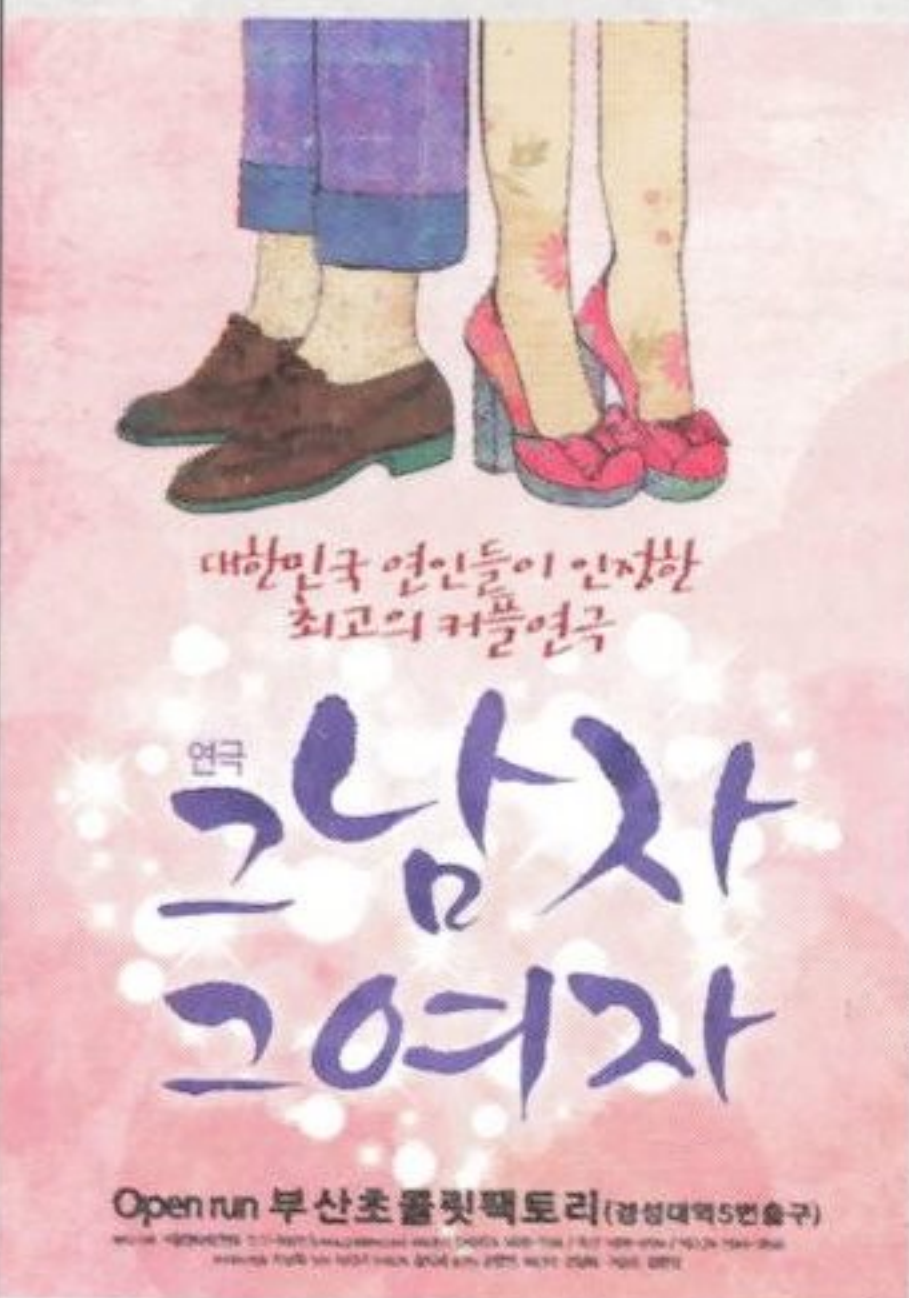


뭐든 참견해야 직성이 풀리는 수다남에서부터 사연많은 탈옥수 배철수, 사사건건 잘난 척하는 수상한 여자 김봉자, 무대공포증에 걸린 소심한 가수 김우연까지 한 카페에서 만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섯 남녀의 유쾌한 해프닝을 그린 창작지

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 작/함유진  
 • 작·편곡/CLAY  
 • 연출/김재근

## 연극 **그남자 그여자**

일 시 | 2013년 10월 30일(수)~Open Run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초콜릿 팩토리**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주)가을엔터테인먼트 1577-5878



연인들을 위한 대학로 최고의 감성연극으로 사랑받고 있는 연극 '그남자 그여자' 부산공연. 라디오에 소개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출판돼 150만 부가 넘게 팔린 동명의 에세이집을 소재로 한 '그남자 그여자'는 수줍은 사내 커플과 풋풋한 대학생 커플의 두근거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달콤한 사랑, 그리고 쓰라린 이별과 아련한 추억까지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작품이다.

• 프로듀서/추상욱  
 • 원작/이미나  
 • 출연/손영민, 허민아, 구동권, 김현정, 정성화

## 불타는 코미디연극 **불편한 타이밍**

일 시 | 1월 2일(목)~3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더 부산 1600-0316

20년지기 친구들이 벌이는 황당하지만 화끈한 하룻밤의 파티와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세 남자의 사투를 그린 창작코미디극 '불편한 타이밍'. 배우들의 완벽한 호흡과 순식간에 이뤄지는 마법같은 무대전환이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연극 **스캔들**

일 시 | 1월 9일(목)~3월 9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주)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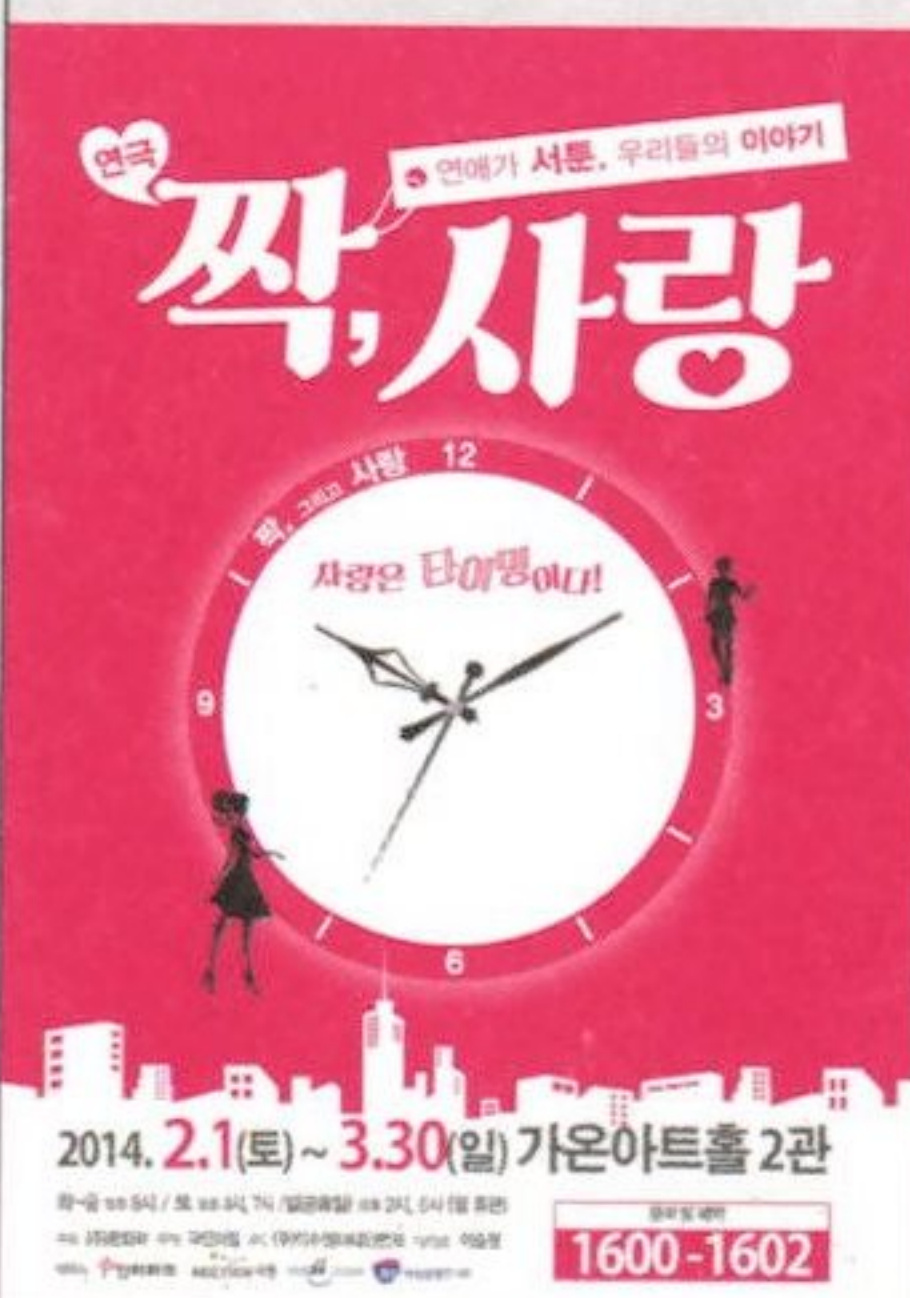


프랑스 코미극의 대가 마르크 까몰레티의 작품을 원작으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번안, 각색한 로맨틱 코미극 '스캔들'. 특별한 사연을 지닌 다섯 남녀의 얽히고 설킨 기상천외 커플탄생 스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기막힌

반전 속에 펼쳐진다.  
 • 원작/마르크 까몰레티  
 • 각색/박은혜  
 • 연출/장우진  
 • 음악/배미령

## 연극 **짝사랑**

일 시 | 2월 1일(토)~3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누구나 한번쯤 겪게되는 외톨이 사랑을 그린 연극 '짝사랑'. 직장동료를 사랑하는 박대리에서부터 여섯 살 예술이의 동화같은 사랑, 15년지기를 향한 애절한 마음을 숨기는 여인 박정복, 노년에 꽃피운 옥분과 만물의 사랑까지 각기 다른

4가지 빛깔의 사랑이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 출연/김태현, 천종환, 류영찬, 박석준, 김한나, 임잔디, 전하연, 우혜민

## 연극 **론더풀 투나잇**

(부제: 혼자 가기 좋은 술집)

일 시 | 2월 7일(금)~3월 2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공감무대**  
 입장료 | 일반 3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소극장 무대공감 623-0678, www.mudae.kr



간판 하나 없는 허름한 동네 어귀 술집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따뜻한 감동과 재미로 풀어낸 창작극 '론더풀 투나잇' 세 번째 앙콜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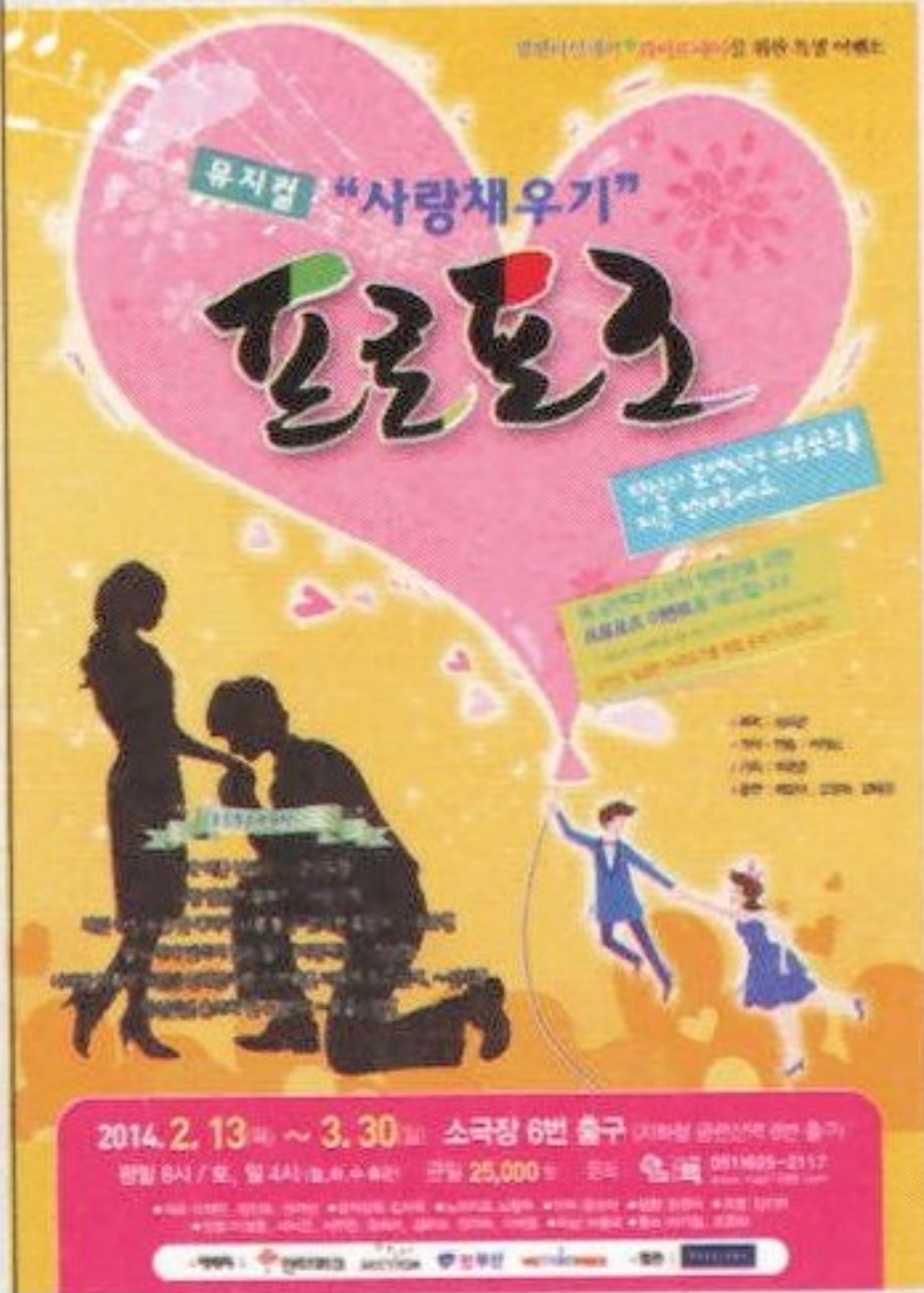
• 작/김영민  
 • 연출/구현욱  
 • 예술감독/김세진  
 • 출연/하현관, 배진만, 김세진, 김학준, 최현경, 최서연, 윤준기, 김정원, 김진주, 안재성



프로그램  
가이드

뮤지컬 **프로포즈**

일 시 | 2월 13일(목)~3월 30일(일)  
 목-금요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월-수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6번 출구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극단 맥 625-2117  
 www.mac1986.com



한 동네에서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주인공들이 어느날 갑자기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면서 적극적인 구애가 시작되는데... 청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반목. 그리고 화해를 통해서 인간의 아집을 코믹하게 풍자한 극단 맥의 창작뮤지컬

'프로포즈'

- 매 공연마다 무대에서는 관객을 위한 프로포즈 이벤트도 펼쳐진다.
- 각색, 연출/이정남
  - 출연/배문수, 김경아, 정배경

연극 **운수 좋은 날-아내의 선물**

일 시 | 2월 19일(수)-3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가온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문화락 1600-1602



일제 강점기 하층민들의 궁핍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던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을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극 '운수 좋은 날-아내의 선물'. 주인공 김침지가 아닌 아내의 시선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사랑의 진정성과 가치를 그려

낸다.

- 작/원풍연
- 연출/이기호(경성대학교 교수)
- 드라마트루그/김숙경(경성대학교 교수)

2014 연희단거리패 레퍼토리 공연3  
**하녀들**

일 시 | 2월 21일(금)-3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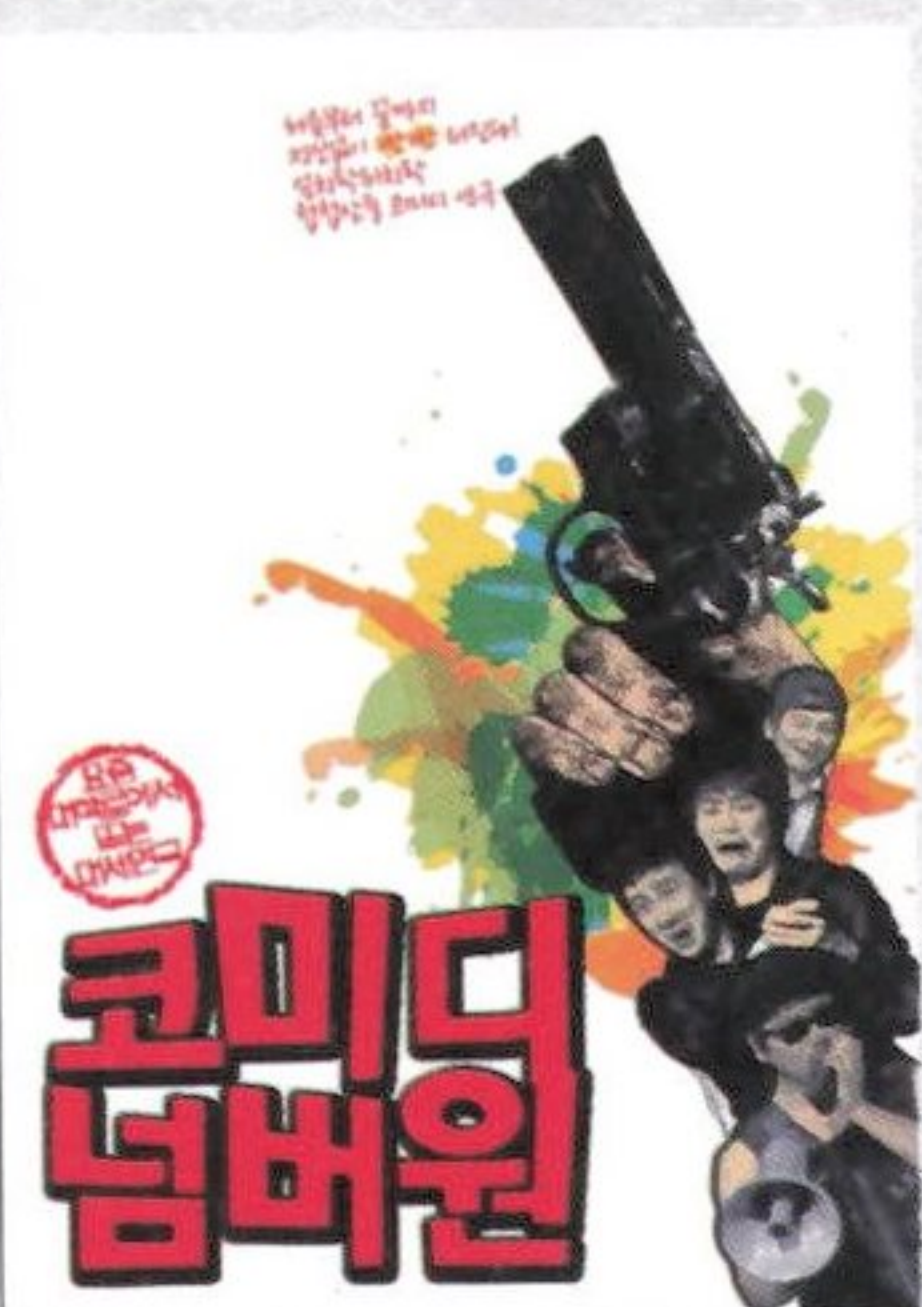


프랑스의 부조리작가 장 주네의 대표작을 새롭게 각색한 이윤택 연출 '하녀들'.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욕망을 연극놀이라는 환상과 착각을 통해 꿈꾸는 자매 쓸랑주와 끌레르의 이야기를 그린 '하녀들'은 동아연극상을 수상한 배우 김소희

- 가 퇴폐적이고 간교한 마담으로 돌아오며, 연희단거리패의 젊은 배우 배보람, 황혜림이 자매역을 맡아 연기 앙상블을 선보인다.
- 작/장 주네
  - 번역/오세곤
  - 연출/이윤택
  - 출연/김소희, 배보람, 황혜림

연극 **코미디 넘버원**

일 시 | 2월 27일(목)-4월 27일(일)  
 화-금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5:30, 8: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주)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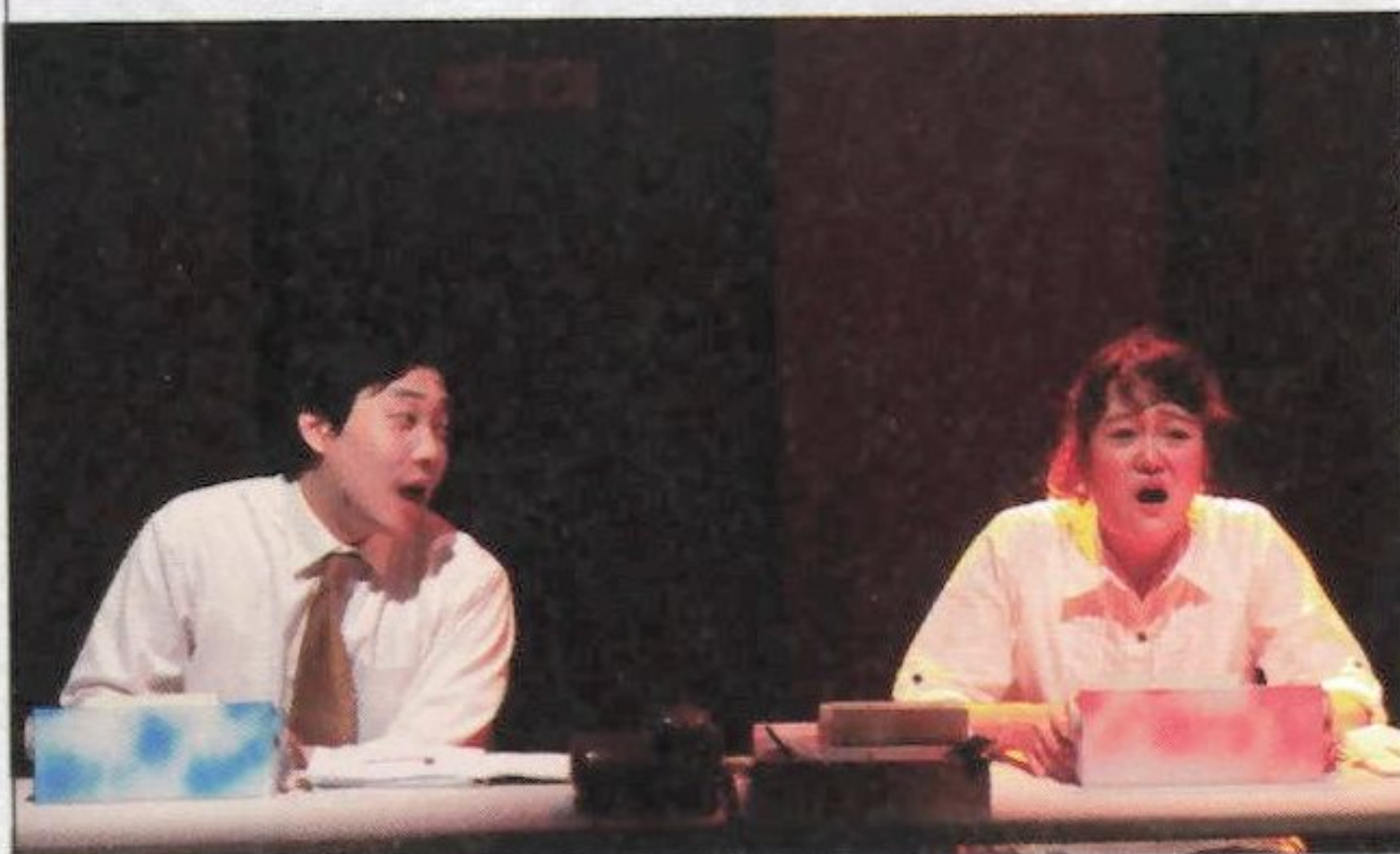
속도감 있는 극 전개와 독특한 무대장치, 끊이지 않는 배우들의 애드리브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는 창작 코미디극 '코미디 넘버원'. 첫사랑 도희와의 핑크빛 데이트를 꿈꾸는 강력계 형사 기남과 옆집 사는 여인 이지, 두 사람을 의심하는 이지의 애인 춘배, 여기에 도희의 약혼자까지 서로 얽히면서 펼쳐지는 요절복통 사건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극단 사계 제74회 정기공연  
뮤지컬 **사랑할까요?**

일 시 | 3월 1일(토)-4월 27일(일)  
 화-금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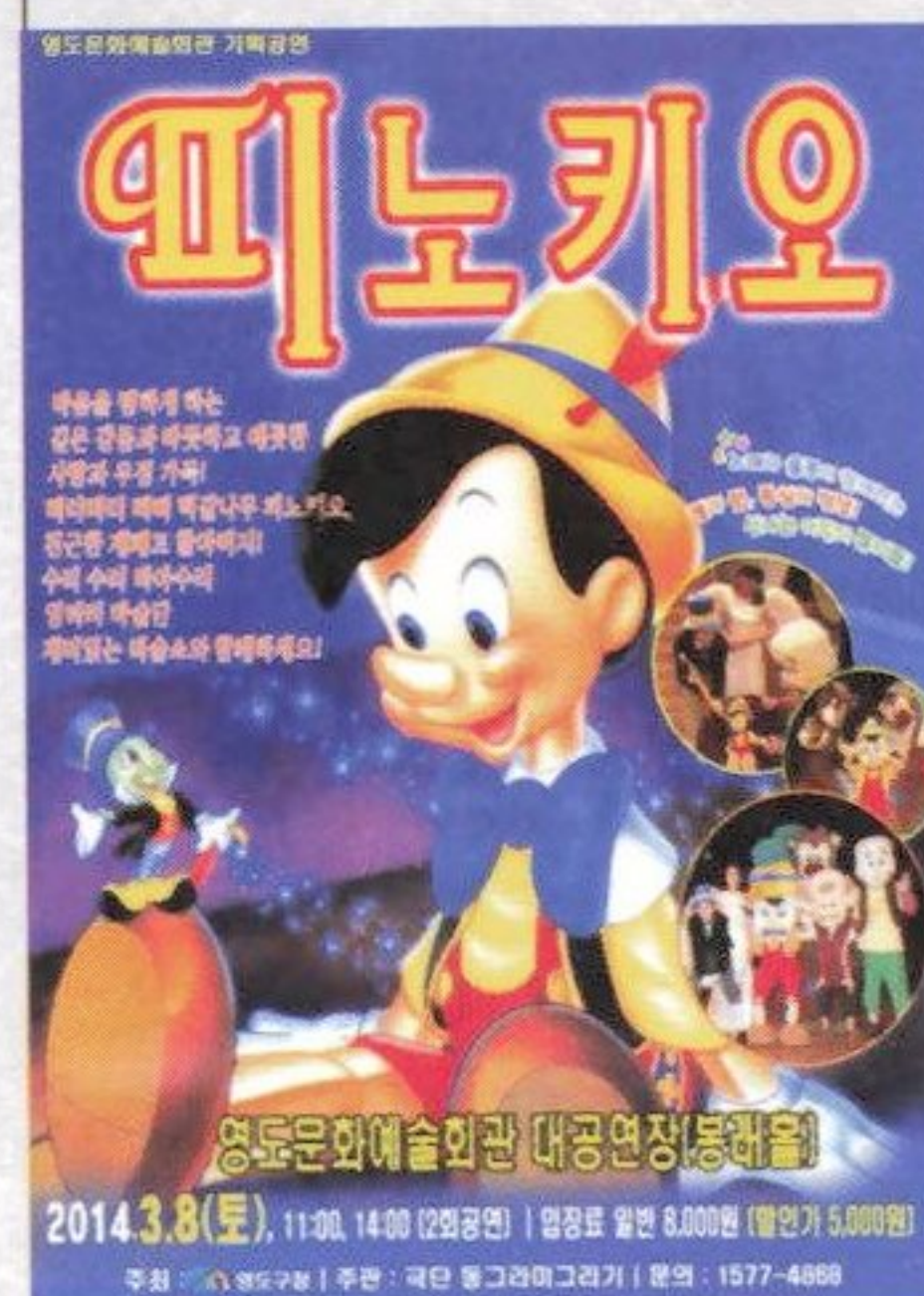
우정과 사랑 사이를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경쾌한 뮤지컬 음악과 함께 풀어낸 창작뮤지컬 '사랑할까요?'. 한 직장에서 평생을 같이 일하는 주인공들의 일상을 통해 화살처럼 지나가는 덧없는 시간과 어느새 추억이 되어버린 꿈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쓴맛과 좌절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 작·연출/김만중
- 출연/강혜경, 박소민, 김정환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일 시 |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제페트 할아버지의 손에서 태어난 나무인형 피노키오의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와 피노키오를 향한 제페트 할아버지의 가슴 찡한 감동이 영터리 미술단의 재

미있는 마술쇼와 함께 펼쳐진다.

- 작·연출/오계영
- 출연/길수경, 이선화, 송판수, 김기양, 조일영 외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박정자의 낭독연극시리즈1

##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일 시 | 3월 11일(화)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낭독과 영상, 피아니스트의 라이브 선율로 깊이 있는 낭독무대를 선사할 박정자의 낭독연극시리즈 첫 번째 무대. 한국 연극무대의 살아있는 전설 배우 박정자와 배우 남명렬, 배해선, 김은석이 소설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로 '낭독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 작/신경숙
- 출연/박정자(어머니), 남명렬(아버지), 배해선(큰 딸), 김은석(큰아들), 김지현(피아노)



## 풍자해학 마당놀이 청아 청아 내딸 심청아

일 시 | 3월 13일(목)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1990년 창단된 이래 2,000여 회에 이르는 창작극 공연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마당극 전문단체로 사랑 받아 온 (사)마당극패 우금치가 선보이는 풍자해학 마당놀이 '청아 청아 내딸 심청아'. 우리의 고전 '심청전'을 마당극으로 옮긴 이번 작품은 빠른 장면전환과 다양한 볼거리, 기발한 소품활용으로 관객들에게 재미를 더해준다.

- 작, 연출/류기형
- 출연/김항식, 신동미, 임창숙, 함석영, 성장순, 이광백, 김연표
- 반주/이주행, 이상호, 이신애

## 하늘바람소극장 개관기념 연극 웨딩드레스

일 시 | 3월 12일(수)-4월 12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극단 아센 504-2544, www.ace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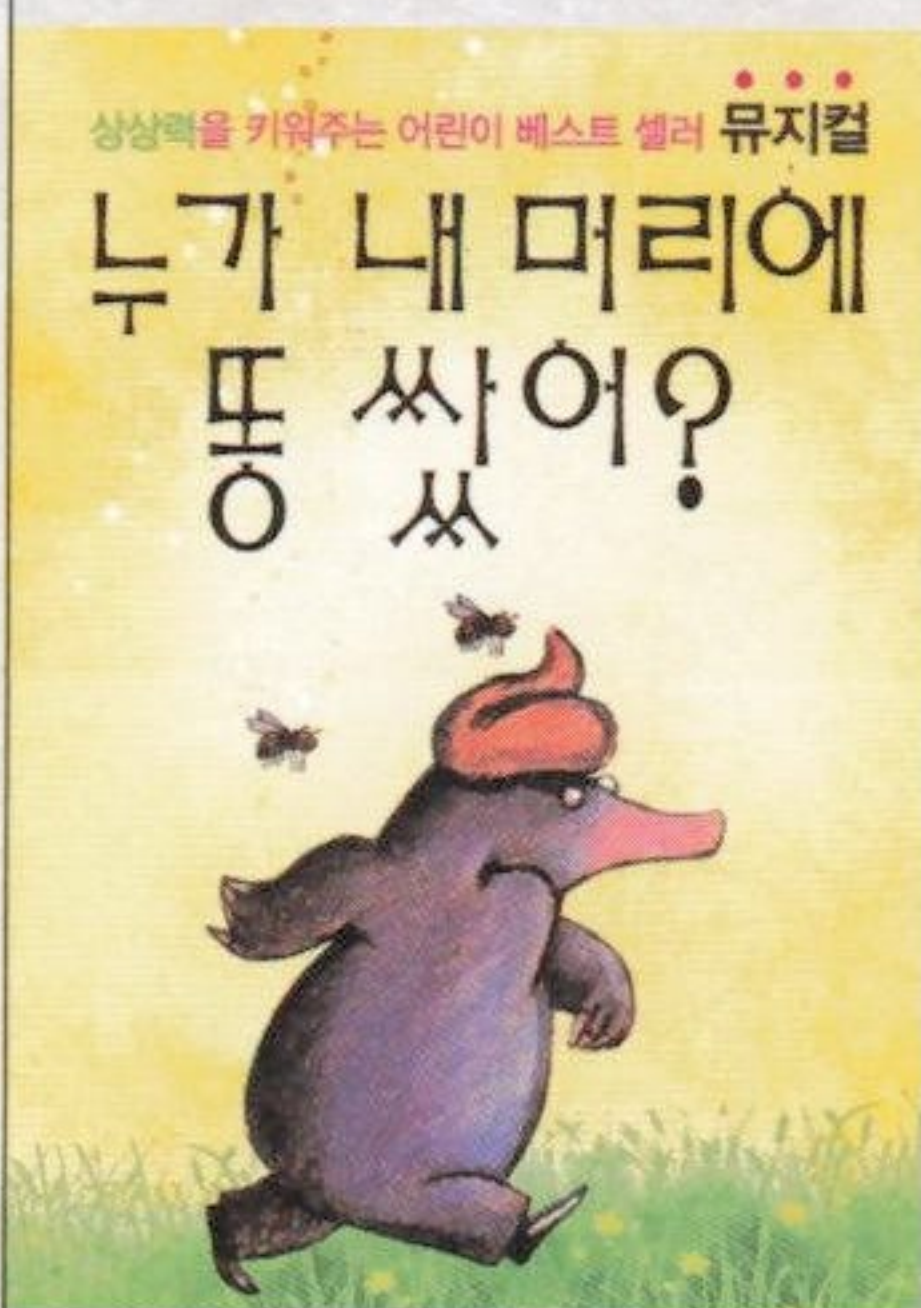
지난 7년간 보금자리였던 사직동 미래내소극장을 내놓고 대연동 하늘바람소극장으로 터전을 옮긴 극단 아센의 개관기념작 '웨딩드레스'. 오래전 남편을 여의고 아들마저 미국으로 이민을 보낸 엄마와 마흔이 넘도록 대학 교수직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시집도 안가는 딸, 하루가 멀다하고 티격태격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모녀를 통해 진정한 가족애를 그린 작품이다.

- 작/유진월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서주연



##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싸어

일 시 | 3월 15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00  
3월 16일(일) 오후 1:00,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2만 5천원(전화 예매시 1만 2천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독일작가 베르너 홀츠바르트 베스트셀러를 어린이뮤지컬로 각색한 '누가 내 머리에 똥 싸어?'.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똥세례를 받은 두더지의 범인 찾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관찰력을 키워주는 작품이다.

특히 똥과 관련된 재미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어린이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으면서 말의 재미에 빠져들게 한다.

## 정성화 with Friends Concert Dream.er

일 시 | 3월 15일(토) 오후 3: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A석 6만 6천원  
문의 | SW엔터테인먼트 1588-3154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드는 연기자로, 배우로 활동하다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우뚝 선 정성화 콘서트. 뮤지컬과 콘서트가 결합된 새로운 무대로, 정성화와 그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친구들인 뮤지컬배우 박은태, 김선영이 다양한 뮤지컬 레퍼토리와 가요 등을 들려준다.

- 연출/송마야
- 음악감독/오상준



##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일 시 | 3월 19일(수)-30일(일)  
화-금 오후 8:00, 토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5만 5천원, S석 4만 4천원  
(학생 30% 할인)  
문의 | 극단 라임 1600-1602



1980년대 대중가요로 지금까지도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있는 가수 송창식의 동명의 가요를 창작뮤지컬로 제작한 '담배가게 아가씨'. 달동네 구멍가게로 유나부녀가 이사오자 사건사고 없이 조용하던 동네는 유나의 외모로 시골벽적이고, 유나는 동네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유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동네 청년의 고군분투기가 유쾌한 웃음속에 펼쳐진다.



프로그램  
가이드

뮤지컬 **넌센스 A-men**

일 시 | 3월 22일(토) 오후 3:00, 7:00  
3월 23일(일) 오후 2: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9만, R석 8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주)WSM 1566-5490



수녀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소동을 코믹하게 그려내면서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사랑받아 온 뮤지컬 '넌센스' 남자 버전.

1998년 뉴욕 초연 당시 남자 배우들이 수녀복을 입고 연기한다는 파격적인 발상으로 화제를 모은 '넌센스 A-men'

은 뮤지컬 배우 송용태, 김재만, 박준혁, 송용진, 김남호와 방송과 뮤지컬 무대를 넘나드는 흥록기, 방송인 겸 배우 홍석천, 가수 손진영이 합세해 유쾌한 무대를 펼친다.

가족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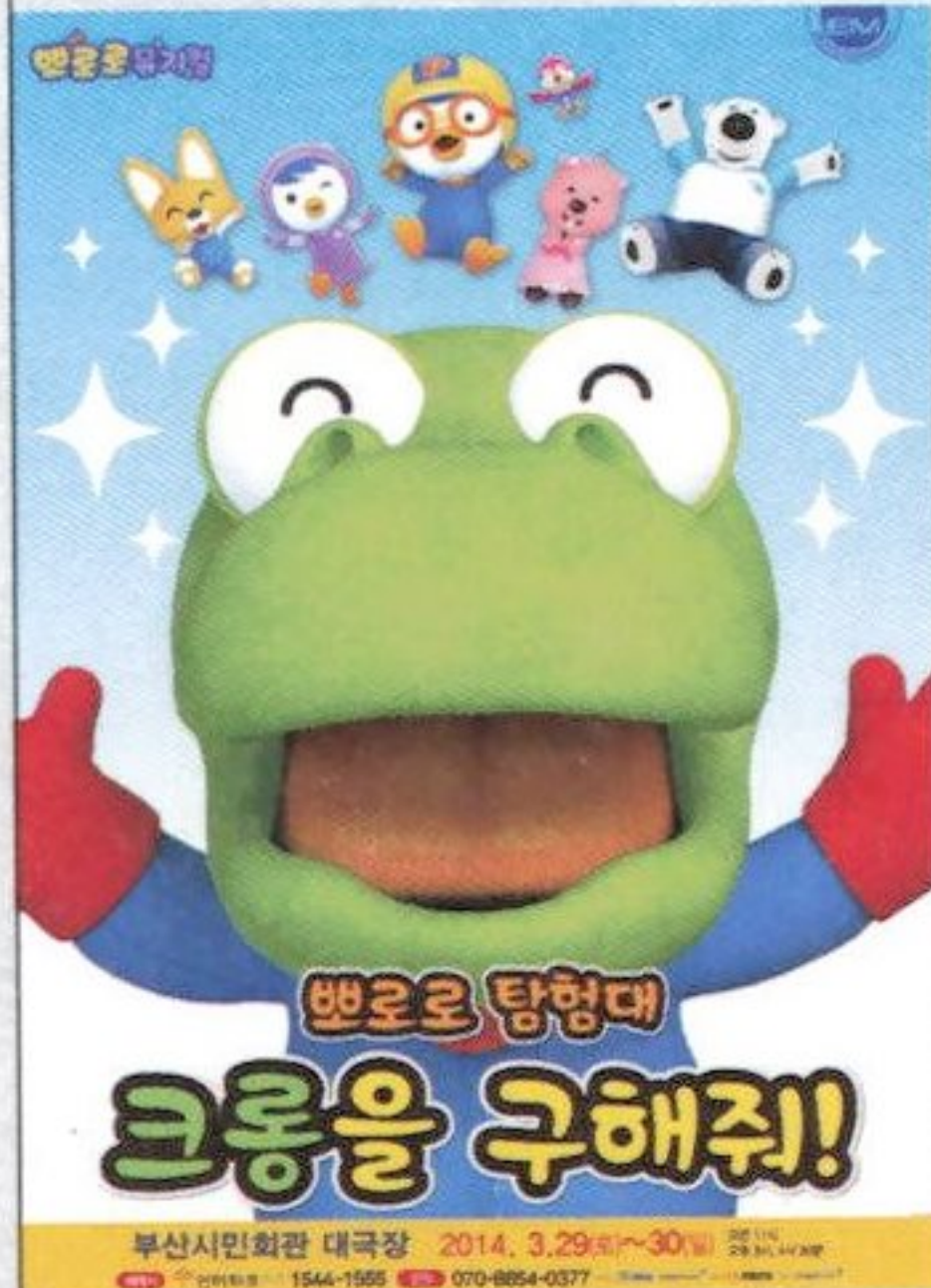
**뽀로로 탐험대 크롱을 구해줘!**

일 시 | 3월 29일(토)~30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뽀로로석 5만 5천원, 크롱석 5만원  
S석 4만 5천원

문의 | ES생활문화 070-8654-0377



감기 걸린 크롱의 몸속에 들어가 병균들을 처치하는 뽀로로 탐험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그린 가족뮤지컬.

영상과 세트가 하나의 3D팝업으로 구현되는 이번 무대는 3D 디지털 그래픽과 아날로그 팝업북이 만나 입체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요덕스토리', '그리스', '그날들' 등에서 안무를 담당했던 오재익이 연출을 맡았으며, '오 당신이 잠든 사이', '형제는 용감했다', '금발이 너무해' 등의 음악감독으로 활약한 장소영이 제작에 참여했다.

- 연출/오재익
- 음악감독/장소영

액션라이브쇼

**파워레인저 고버스터즈**

일 시 | 4월 5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30  
4월 6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5만 5천원, S석 4만 5천원

문의 | (주)CJ헬로비전 1661-6488



지구를 지키는 파워레인저의 활약상을 그린 액션라이브쇼로 매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파워레인저 고버스터즈'.

특수능력을 부여 받은 3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파워레인저 고버스터즈가 크린에너지 에너지를 노리는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내용으로, 지구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특히 화려한 특수효과와 이제까지 무대에서 보지 못했던 로봇들의 공중결투 장면이 플라잉 액션을 통해 박진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콘서트

**듀오 프로젝트**

일 시 | 3월 14일(금) 오후 8:00  
3월 15일(토)~16일(일) 오후 5:00

LIG아트홀·부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LIG아트홀 661-8701



우리나라 최고의 재즈디바 웅상, 즉흥재즈부터 싱어송라이터까지 음악적 반경을 확장해 온 색소포니스트 손성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조윤성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전방위 재즈 뮤지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음악적 듀오 무대 '듀오 프로젝트'.

- 14일/조윤성(피아노), 임경은(보컬)
- 15일/손성제(색소폰), 배장은(피아노), 송준영(드럼)
- 16일/웅상(보컬), 지로 요시다(기타), 고상지(반도네온)



Jazz...와인에 빠지다 56번째 콘서트  
**류복성 재즈 올스타즈 With 위나**

일 시 | 3월 14일(금)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 무대공감 623-0678

www.mudae.kr

부산 유일의 재즈 상설콘서트인 'Jazz...와인에 빠지다'가 2014년 봄을 맞아 마련한 '대한민국 재즈거장과 부산 재즈보컬의 만남' 시리즈 첫 번째 무대.

재즈 황무지였던 한국에 재즈 음악을 알린 재즈 드럼의 거장 류복성이 이끄는 류복성 재즈 올스타즈와 부산의 신예 여성재즈보컬 위나가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 연주/류복성(리더), 이정윤(드럼), 정영준(베이스), 임보라(피아노), 김도형(색소폰), 김예중(트럼펫), 위나(보컬)



바비킴과 부가킹즈, 신보라, 울랄라세션의  
**백혈병 어린이 돕기 사랑나눔콘서트**

일 시 | 3월 15일(토) 오후 7: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9만 9천원, R석 8만 8천원  
S석 7만 7천원

문의 | (주)아이컴엔터테인먼트 512-5977

**델리스파이스 부산 콘서트**

일 시 | 3월 16일(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5만 5천원, A석 4만 4천원  
(학생 30% 할인)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하상욱, 어반자카파, 스텐딩에그의  
**메이커스 토크콘서트**

일 시 | 3월 16일(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주)메이커어스 02-3447-0124



## 행사

### 구름빵 키즈랜드

일 시 | 2013년 12월 1일(일)~2014년 3월 31일(월)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다목적홀  
 입장료 | 균일 1만원(1회 이용시간 3시간)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이용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국내 창작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애니메이션 '구름빵'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놀이, 교육이 연계된 체험전.

### 투니버스 스튜디오 - 부산

일 시 | 2013년 12월 14일(토)~2014년 3월 2일(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어린이 1만5천원, 어른 1만원  
 문 의 | (주)씨제이이엔엠 1644-1613  
 이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짱구는 못말려, 네모바지 스폰지밥, 라바, 명탐정 코난, 안녕자두야, 레고까지 애니메이션 속 장면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에서 방송국 스텝이 되어 캐릭터 방송국을 체험하는 투니버스 스튜디오.

### 영화의전당 아트 스케이장

일 시 | 2013년 12월 7일(토)~2014년 3월 2일(일)  
 영화의전당 두레타운 야외광장  
 입장료 | 일반 6천원,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4천원 (4세 이상 입장)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134  
 이용시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 제85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일 시 | 3월 15일(토) 오후 5시 30분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41회 시낭송회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총무 박모경 010-8915-517

## 전시

###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색감의 온도, 질감의 온도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2014년 3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13

일 시 | 1월 16일(목)~3월 3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목요화가회 2014 회원전

일 시 | 2월 3일(월)~3월 10일(월)  
 정준호갤러리  
 문 의 | 정준호갤러리 943-1004

### 중간보고서-신은경展

일 시 | 2월 15일(토)~4월 30일(수)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744-3924

### 부산참견錄-최광호展

일 시 | 2월 15일(토)~4월 3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 이지은 개인전

일 시 | 2월 25일(화)~3월 6일(목)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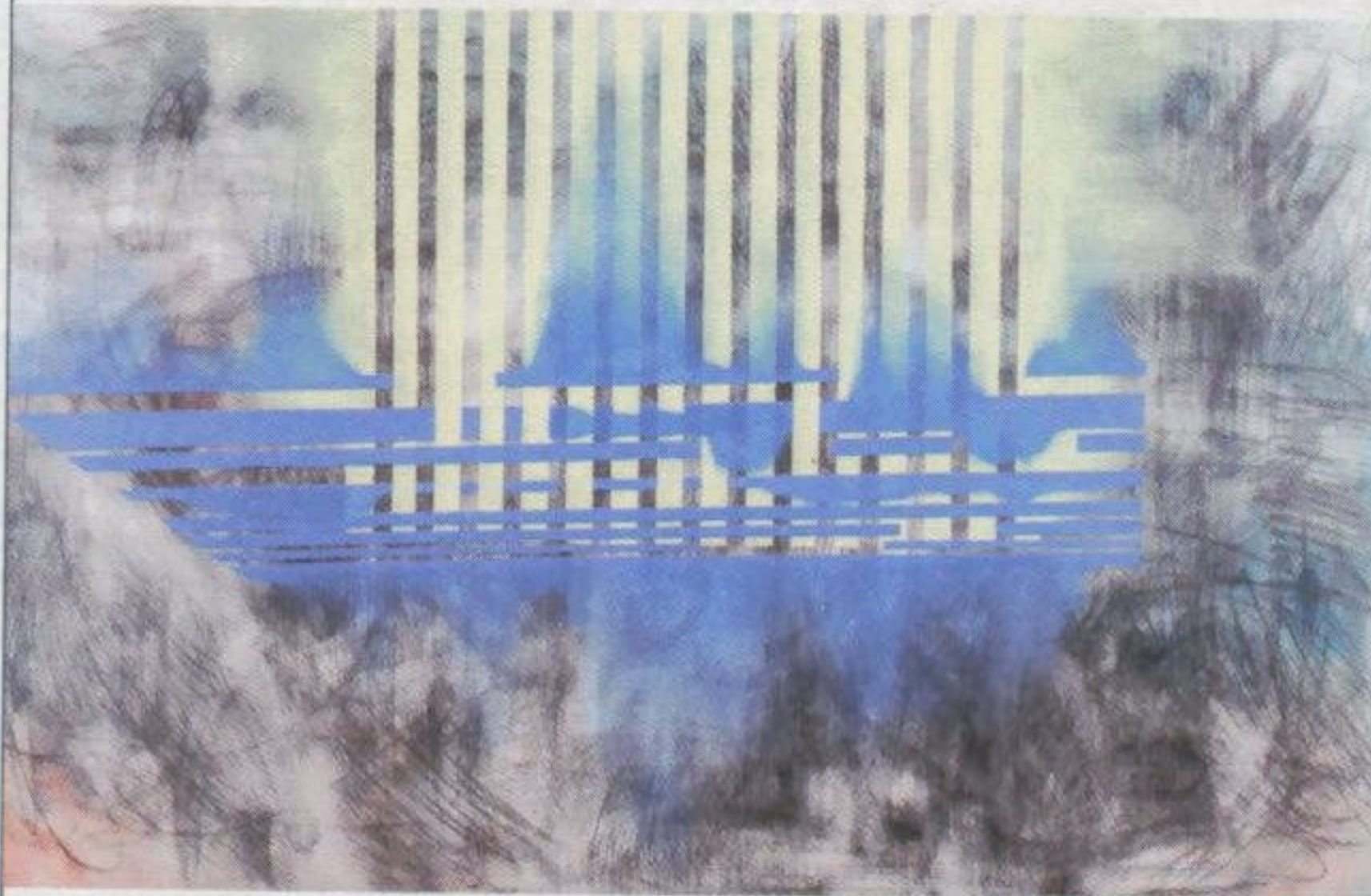


### 화이트데이 특별전 'Be My Love'展

일 시 | 3월 1일(토)~3월 26일(수)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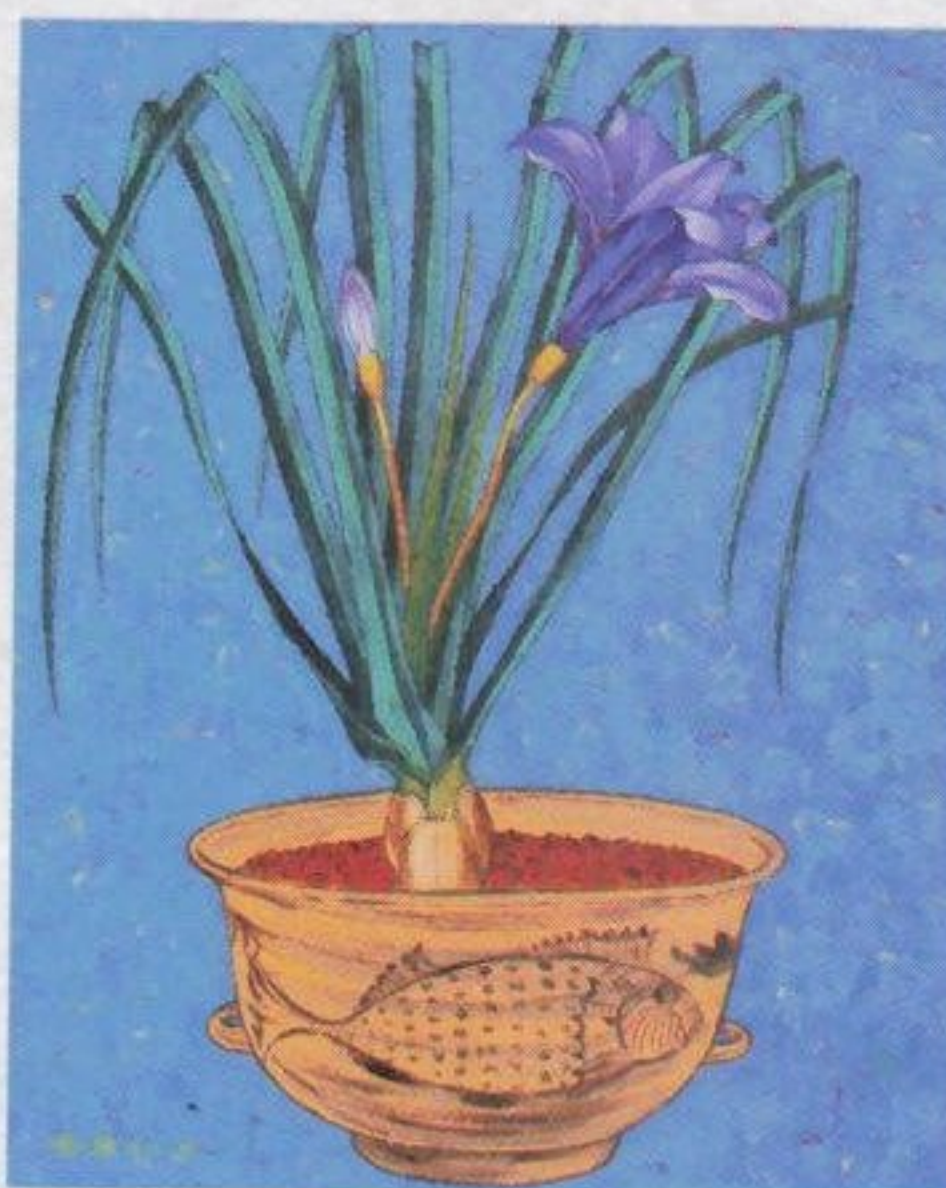
### 김진휘 개인전 '재현 아닌 흔적들'

일 시 | 3월 3일(월)~3월 22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타워갤러리 기획 2014 '春-美'展

일 시 | 3월 5일(수)~3월 15일(토)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 464-3939



임봉규 作\_꽃

### 윤성원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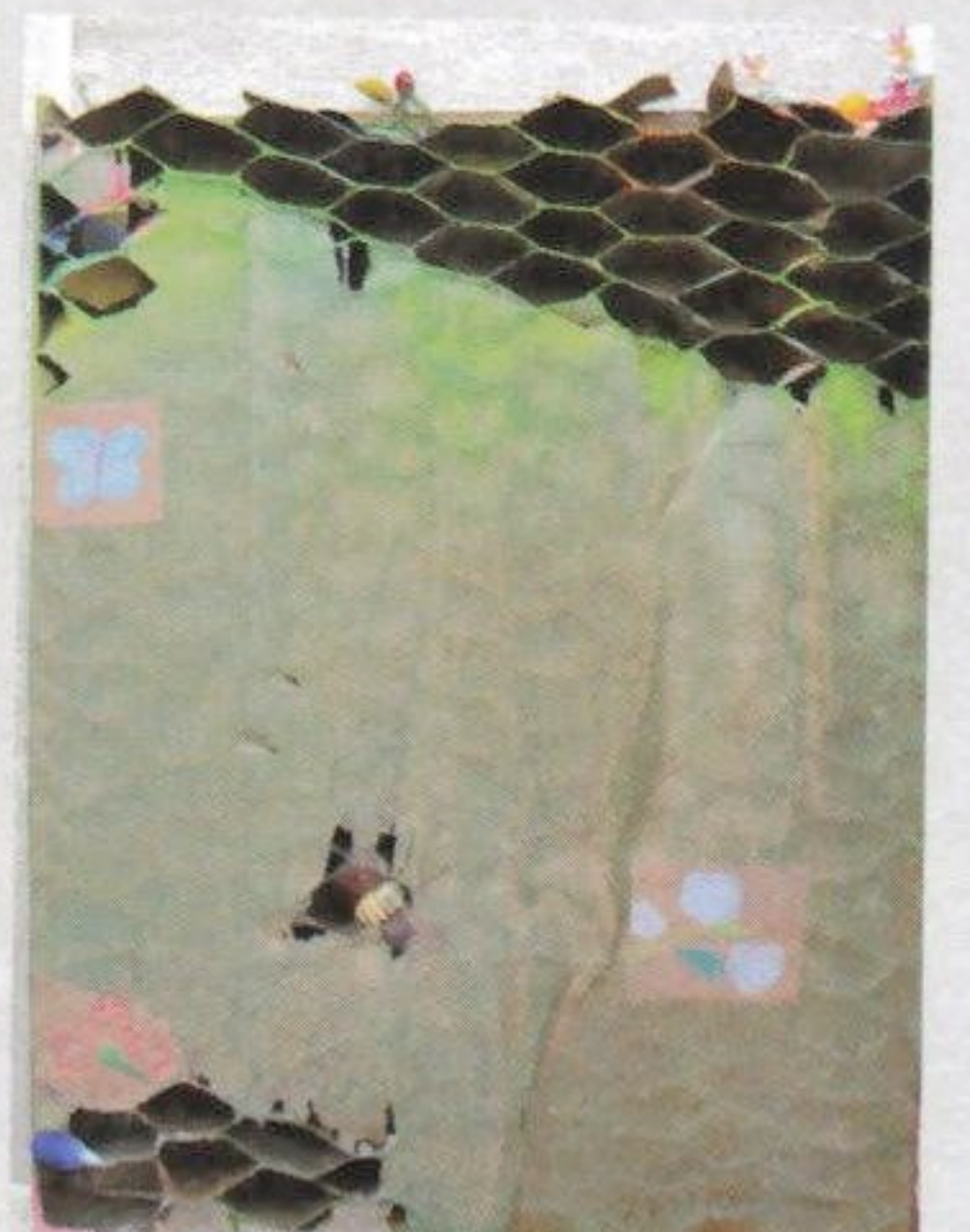
일 시 | 3월 21일(금)~3월 30일(일)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 김태진 개인전 순남이의 일기- 순정한 동심의 감성 오래된 미래의 소망

일 시 | 3월 24일(월)~4월 19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순정한 동심의 감성과 오래된 미래의 소망을 입체 콜라주 기법으로 구성한 김태진의 작품전.



순남이의 일기-1



# New Album...



리스트 그랑 듀오 콘체르탄트,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브릿지 바이올린 소나타  
베나민 슈미트(바이올린), 아리아네 헤링(피아노)

❖ **리스트의 희귀한 실내악곡 중 백미 <그랑 듀오 콘체르탄트> 수록**  
1992년 칼-플레시 콩쿠르 우승자인 베나민 슈미트가 그의 부인인 아리아네 헤링과 함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낭만적인 작품들을 녹음했다. 리스트는 열곡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실내악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랑 듀오 콘체르탄트>는 그 중 백미로 꼽힌다. 슈미트의 연주는 음악의 폐부를 거침없이 가르며, 기교적인 화려함과 낭만적인 아름다움의 극치가 조화를 이룬다. 그리그의 걸작인 <바이올린 소나타 3번>에서 슈미트는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한 낭만시대 소설의 주인공과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가슴 속 깊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말러 교향곡 1번, 모차르트 클라리넷협주곡  
빈첸초 파치(바셋 클라리넷)/ 디에고 마테우스(지휘)/ 베네치아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

❖ **엘 시스테마가 배출한 또 한 사람의 젊은 거장 디에고 마테우스**  
베네수엘라 출신의 젊은 지휘자 디에고 마테우스(1984년생)는 구스타보 두다멜에 이어서 '엘 시스테마'가 배출한 또 하나의 쾌거로 손꼽힌다. 고향 바르퀴시메토의 어린이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주자로 처음 음악에 입문한 그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단원을 거친 다음 지휘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2009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이끄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수석객원지휘자로 임명되면서 음악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극장의 하나인 베네치아 라 페니체의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이며, 2012년에는 멜버른 심포니의 수석객원지휘자로도 임명되었다. 이번 DVD는 2011년 4월 라 페니체극장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담았다. 악단의 클라리넷 수석인 빈첸초 파치가 바셋 클라리넷으로 독주를 맡은 모차르트의 유명한 협주곡 A장조와 말러의 교향곡 1번을 함께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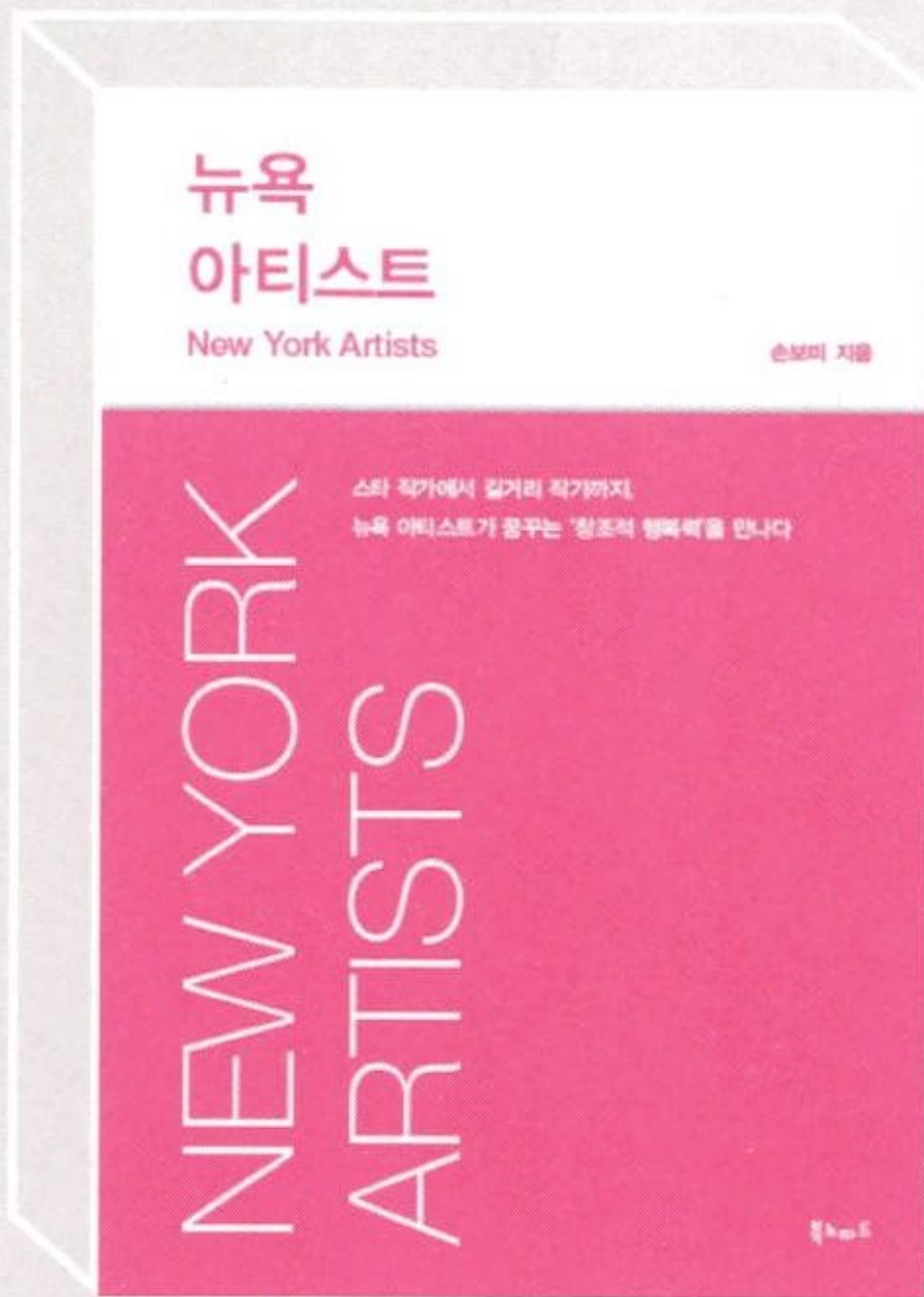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집 [2CD]  
미셸 오클레르(바이올린)

❖ **롱티보 콩쿠르, 제네바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미셸 오클레르**  
미셸 오클레르는 1924년 11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롤라 보베스코, 미셸 슈발베, 앙리 테미앙카, 크리스티앙 페라스 등의 명인을 길러낸 쥘 부셰리를 사사하고, 1943년 롱-티보 콩쿠르와 1946년 제네바 콩쿠르에서 우승한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이다. 여성으로서는 드물만큼 강한 예풍(藝風)을 가지고 있어 데뷔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전성기에 접어든 1960년대 중반 불의의 교통사고로 왼손을 다치면서 독주자 활동을 접고 파리음악원 수석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면서 연주자로서 많은 녹음을 남기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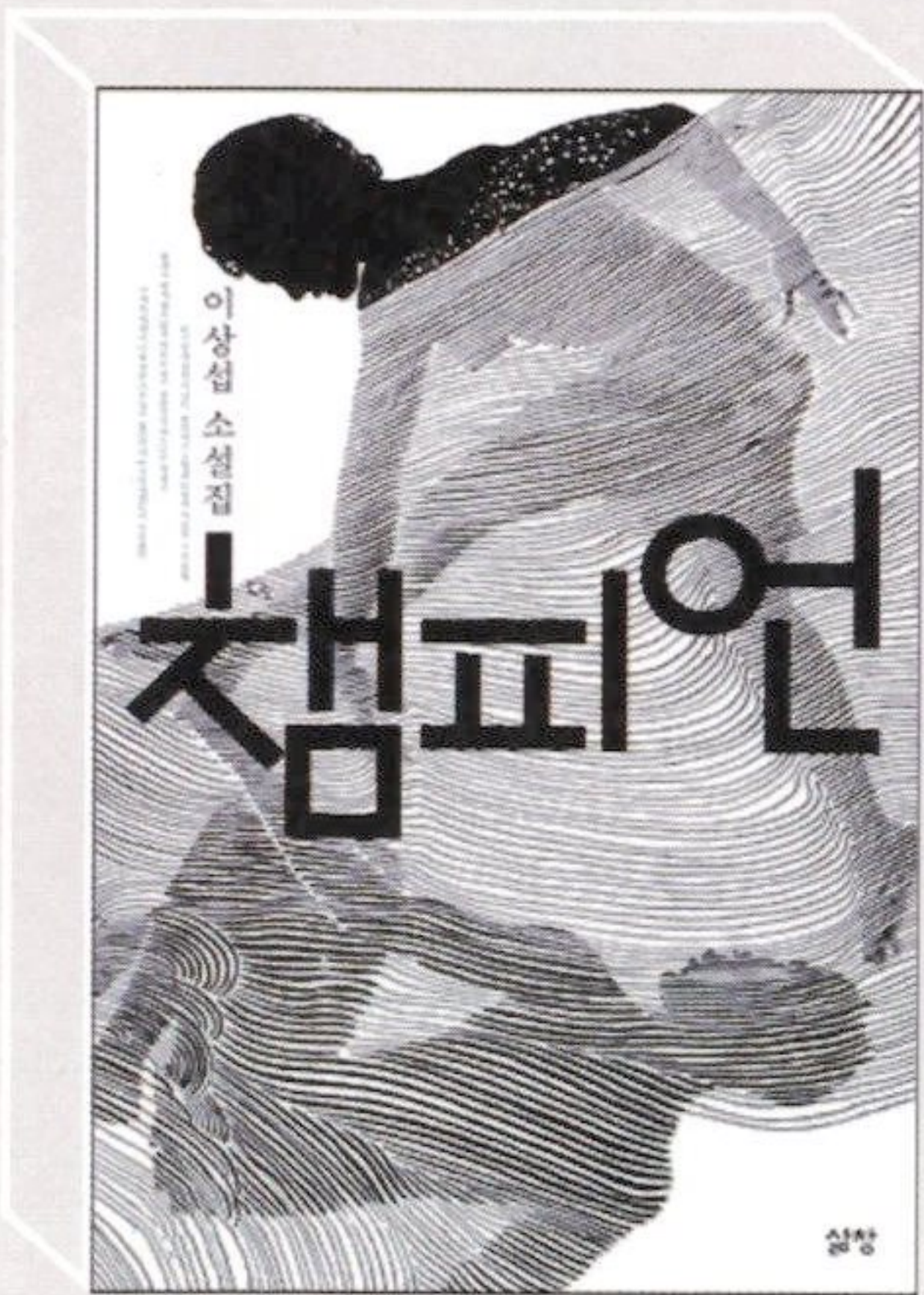
❖ 뉴욕 아티스트



손보미 지음 | 북노마드 | 320p | 1만 5천원

5년 동안 25개국을 여행하고, 6개국에서 봉사활동 한 기록을 담은 책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봉사여행> 화를 출간하며 화제를 모았던 손보미 씨가 전 세계 예술의 핫스팟으로 불리는 뉴욕을 찾아 100여 명의 아티스트 및 문화예술 종사자를 만나고 돌아온 기록을 담은 두 번째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화가, 축제 기획자, 디자이너, 뮤지션 등 뉴욕의 문화예술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은 꿈과 행복에 대한 기록이다.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 뉴욕에서 저자는 그 이면에 공존하는 결핍과 갈등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활기차게 움직이며 반짝일 수 있는 까닭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만드는 '문화 예술'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다. 뉴욕의 예술가들은 살인적인 부동산 물가 때문에 점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술가로 살기를 자청한다. 뉴욕에서 예술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술가로 산다는 것, 문화예술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 인지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책이다. 저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행복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창조'에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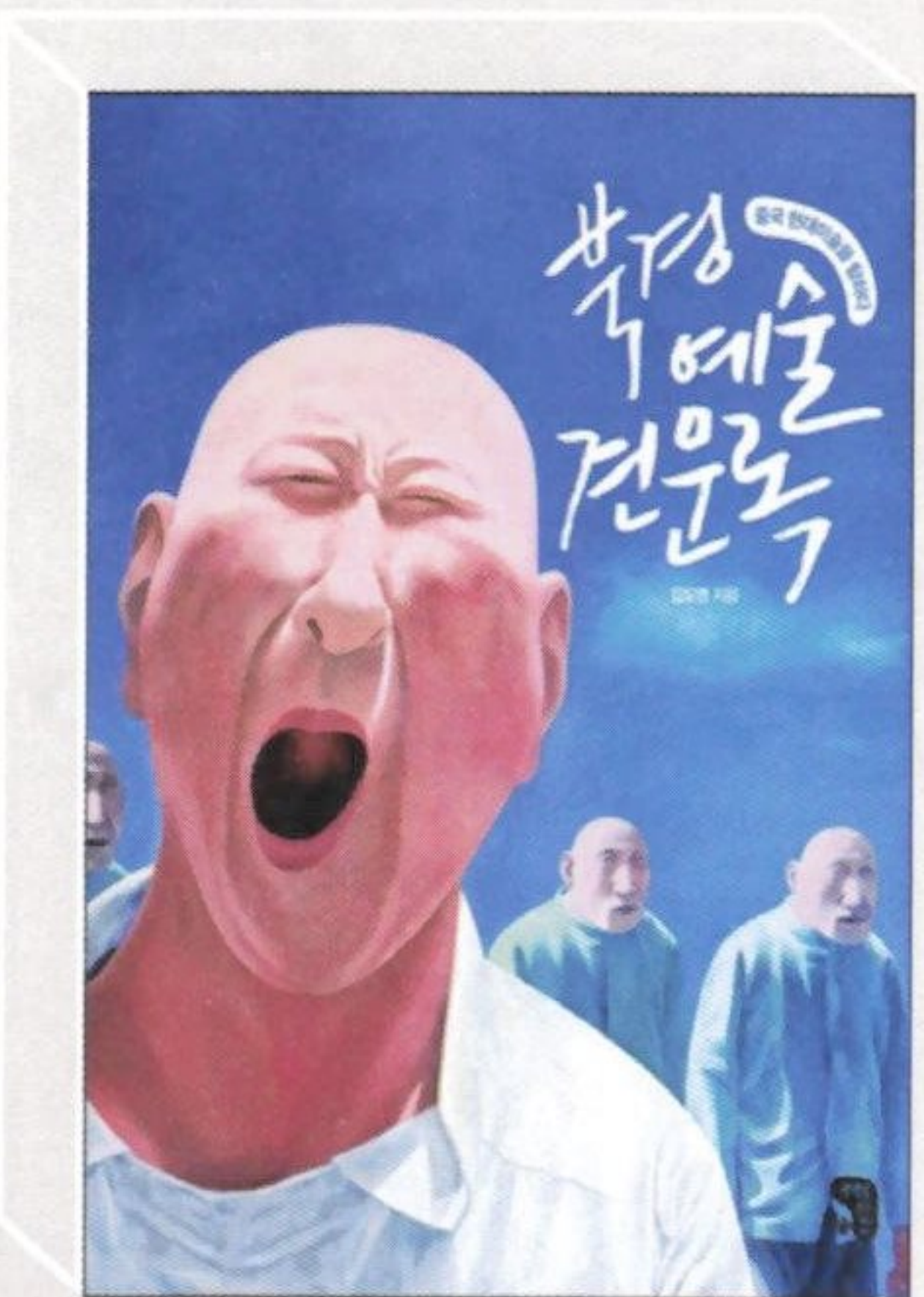
❖ 챔피언



이상섭 지음 | 삶창 | 243p | 1만 2천원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이상섭 씨가 네 번째 소설집을 펴냈다. 이상섭은 1998년 <슬픔의 두께>로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당선하고, 2002년 <바다는 상처를 오래 남기지 않는다>로 제5회 창비신인소설상을 수상했다. 소설집으로 <슬픔의 두께>, <그곳에는 눈물들이 모인다>, <바닷가 그 집에서, 이틀>이 있고 르포집 <군세어라 국제시장>을 발표했다. 이번 소설집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거대한 사회 속에서 제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밑바닥 인생들과 매번 만나게 된다. 소설 <묵묵감감>의 임 시직 떠돌이 노동자, <물고기가 궁금해>, <하, 이거 정말>, <챔피언>의 청년 백수, <슬그머니>, <아직은 관 찰아>의 수리 전문 조선소 노동자, <재첩의 맛>에는 식당 종업원 여자, <어쩌다가 눈마저>의 보험외판원 등. <어쩌다가 눈마저>에 나오는 대기업 간부는 구조조정 앞에서 언제 실직 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내몰려 있는 인물이다. 8편의 소설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쯤 느껴봤을 좌절, 절망, 분노, 슬픔이 짙게 배 어있다. 그러나 묵묵히 현실을 견디어 내는 소설 속 인물들은 저마다의 카운터펀치를 날리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 북경예술견문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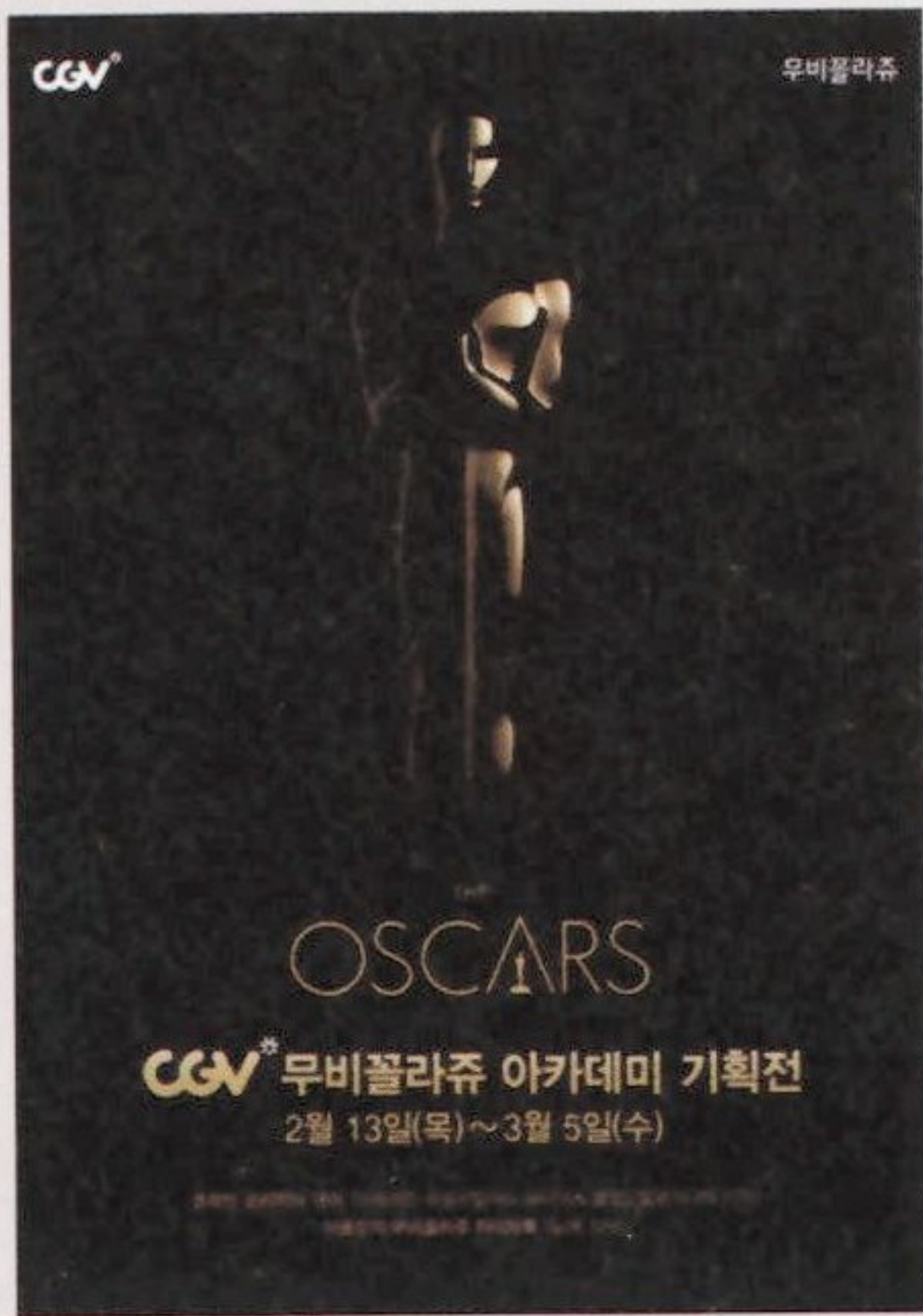


김도연 지음 | 생각을 담은 집 | 397p | 2만원

중국 베이징의 '국가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다. 건축면적은 20만㎡, 소장품 수량은 120만 점이 넘는다. 매일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지하1층에서 5층까지의 전시장을 가득 채운 중국 고대 문물 과 예술품을 감상하며 넋을 잃고 있다. 베이징의 798예술구는 본래 군수용품 공장이 있던 곳이었다. 세월이 바뀌면서 공장은 점차 퇴락해간 자리에 중국의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았다. 1995년 중앙미술학원이 공장 창고를 빌려 조각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예술인들의 작업실이 들어섰다. 공장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이 지역을 개발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했기에 베이징 시는 재개발을 계획했으나, 중국과 전 세계의 유명예술인들의 노력 덕에 살아남았다. 공장 일련번호였던 '798'이 이 지역의 이름이 됐고, 2003년 <타임>지는 '798예술구'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예술중심지역 22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곳은 갤러 리만 200개가 훨씬 넘는다. 부산출신으로 이화여대에서 한국화와 서양화를 공부하고 중국 중앙미술학원 예 술관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도연 씨가 베이징의 박물관과 미술관, 갤러리, 작가들의 작업실 등 열정 넘치는 예술현장의 매력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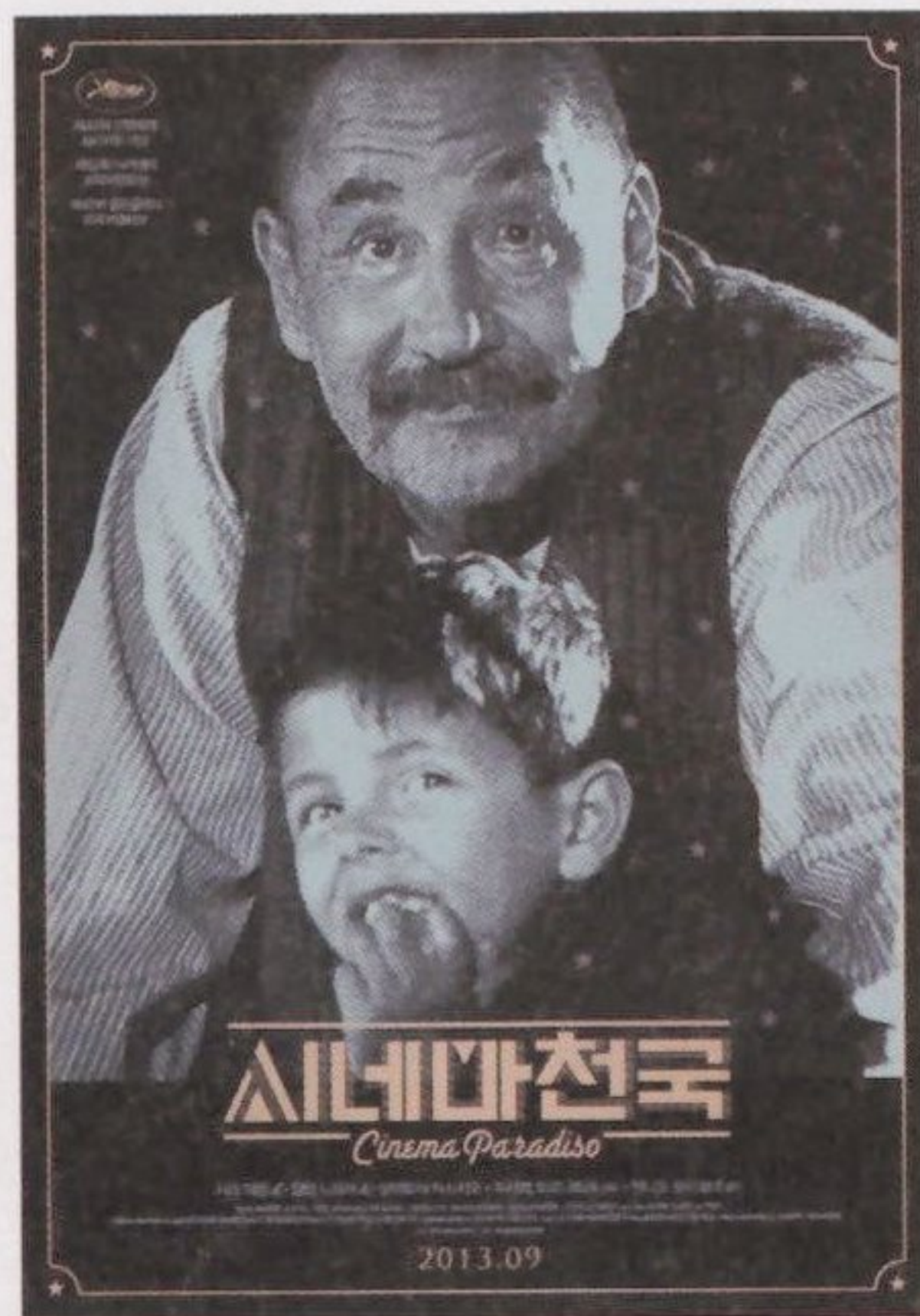
# Special Movie



## 2014년 아카데미 후보작을 미리 만나다

**무비플라주 2014 아카데미 기획전**  
2월 13일(목)~3월 5일(수) CGV 서면·센텀시티

2014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무비플라주 '2014 아카데미 기획전'이 3월 5일까지 전국 무비플라주 상영관에서 펼쳐진다. CJ CGV 다양성영화 전문 브랜드인 무비플라주가 올해로 세 번째 마련하는 '아카데미 기획전'은 미국 영화예술아카데미가 인정한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화제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올해는 3월 2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열리는 제86회 아카데미 후보작 중 엄선된 13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상영작으로는 우선 감독상, 작품상, 남우주연상 등 9개 부문의 후보로 오른 작품으로, 자유인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한 남자의 기구한 일대기를 다룬 스티브 맥퀸 감독의 '노예 12년'을 비롯해 작품상, 감독상 등 10개 부문에 선정되어 최다 부문에 함께 노미네이트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와 데이빗 O. 러셀 감독의 '아메리칸 허슬', 유력한 남우주연상 후보인 매튜 맥커너히 주연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 '필로미나의 기적', 메릴 스트립, 줄리아 로버츠, 베네딕트 컴버베치 주연의 '어거스트: 오세이지 카운티',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오른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외에도 코엔 형제의 음악영화 '인사이드 르윈', 마틴 스코세자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만남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우디 앨런 감독의 '블루 재스민', J.C 찬더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올 이즈 로스트', 드니 빌레브 감독의 '프리즈너스', 폴 그린그래스 감독의 '캡틴 필립스' 등 쟁쟁한 후보작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친 추억의 명작

**영화의전당 리마스터링 특별전**  
3월 6일(목)~12일(수) 영화의전당 소극장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쳐 최근 새롭게 선보인 추억의 명작영화가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선보이는 작품은 모두 다섯 작품. 우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영화'로 많이 꼽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명작 '시네마천국(1988)'으로, 영화 속 무수한 명장면과 음악감독인 엔니오 모리코네의 감성적인 OST는 시간과 세대를 초월해 끊임없이 회자되며 감동을 전해왔다. 국내 개봉 일본 영화 최초로 140만 관객을 동원했던 이wai 순지 감독의 감성 멜로 '러브레터'도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친 깨끗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영화 '러브레터'는 하얀 눈 같은 순백의 첫사랑과 영상미, 잊혀진 기억을 꺼내 보이는 서정적 음악으로 개봉 당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멜로영화의 새로운 장을 연 역작이라 평가받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다. 역대 한국영화 중 최고의 작품이자 '인생 최고의 멜로 영화'로 자주 거론되는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는 기존 멜로영화의 관습을 벗어난 세련된 화법과 유려한 영상으로 평론가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밖에 프랑스 감독인 레오 카락스 감독의 첫 장편영화 데뷔작으로, 어긋난 사랑의 공허함과 절망을 시적이고도 감각적인 영상으로 표현, '제2의 고다르'라는 찬사를 받은 영화 '소년, 소녀를 만나다(1984년)', 혁명의 열기로 뜨거웠던 1968년 파리에서 벌어지는 세 청년 이사벨과 테오, 매튜의 아름답고도 찬란한 순간들을 그린 이탈리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몽상가들'이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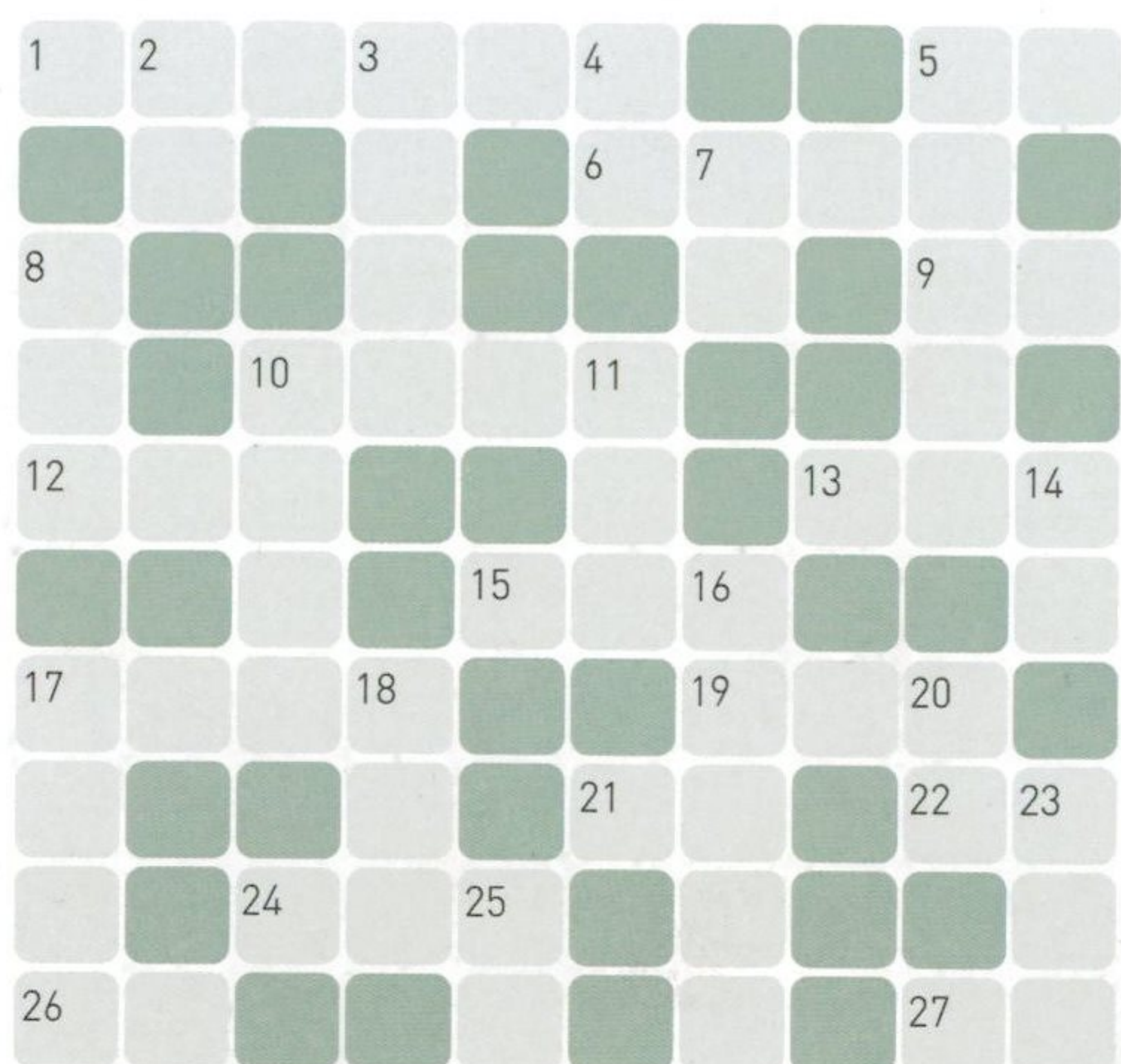
## 인간세상에 핀 신의 꽃- 무녀 김금화 이야기

**영화 '만신'**  
3월 6일 개봉

인간 세상에 핀 신의 꽃, 무녀 '김금화'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만신'이 3월 개봉한다. 제목인 '만신'은 무당을 높여 부르는 말. 큰 무당 김금화 만신의 자서전 '비단꽃 넘세'를 바탕으로 한 영화 '만신'은 김금화 만신의 삶을 통해 한국 현대사 속에서 굿과 무당을 재조명한 영화이다. 박찬욱 감독의 동생이자 미술가로 잘 알려진 박찬경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신기를 타고난 아이(김새론)에서 신내림을 받은 17세의 소녀(류현경), 그리고 모진 세월을 거쳐 최고의 만신이 된 여인(문소리)까지 김금화의 삶을 통해 시대사적 통찰과 치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만신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한편으로는 탄압과 멸시를 견뎌내야 했던 김금화 만신은 1982년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문화사절단으로 첫 해외 공연을 한 후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철물이곳, 만수대탁구, 배연신굿, 진오귀굿 등 모든 곳에 재능을 보유한 종합예술가로 인정받으며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박찬경 감독은 영화 '만신'을 통해 한 때 한국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무속을 전통문화로 재조명한다. 못 사람들의 이름을 달래는 무당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며 웃고 울게 만드는 배우의 삶과 닮았다고 하는 박찬경 감독은 '만신이 무속에 대한 영화적인 헌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들린 듯한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김새론과 류현경, 문소리는 설명이 아닌 연기로 배우의 삶과 무당의 삶을 스크린 속에 펼친다. '만신'은 제3회 마리끌레르 영화제(2014), 제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2013)에 초청받았다.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가로열쇠

- ① 부산문화회관이 매주 토요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마련하는 무료 상설무대.
- ⑤ 시(詩)에다가 곡을 붙여 만든 서정적인 노래. 독일에서 슈베르트와 슈만을 거쳐 발달해 왔으며, 보통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부른다.
- ⑥ 조선시대 김시습이 지은 전기체(傳奇體) 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현재는 '만복사저포기(萬福寺耆蒲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남염부주지(南炎淨洲志)' 등 다섯 편만 전한다.
- 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무당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로 서해안풍어제 배연신굿 및 대동굿기·예능보유자인 김금희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박찬경 감독의 영화.
- ⑩ 18세기의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35년이라는 짧은 생애동안 기악, 성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600곡 이상을 작곡한 천재음악가.
- ⑫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대통령이 된 최초의 인물로, 1970년 11월 칠레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1973년 9월 군사 쿠데타로 생을 마감했다.
- ⑬ 이탈리아 푸치니 국제콩쿠르 1위, 밀라노 국제콩쿠르 1위,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 국제콩쿠르 1위 등을 수상하고 그동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세계 유명극장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 온 성악가.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3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신춘음악회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⑮ 칼 마르크스가 지은 경제학 서적.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법칙을 노동력의 상품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모두 세 권으로 되어 있으며 2, 3권은 마르크스 사후에 엥겔스가 유고(遺稿)를 정리하여 출간했다.
- ⑰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 대표작으로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니나' 등이 있다.
- ⑲ 축구에서 수비수 가운데 가장 뒤쪽의 방어 역할을 맡으면서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는 선수.
- ⑳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론 웨인이 1976년에 설립한 컴퓨터 회사. 현재 개인용 컴퓨터인 매킨토시,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 스마트폰인 아이폰,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㉑ 배우가 대사 없이 몸짓과 표정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연극.
- ㉒ 남녀 간의 사랑을 노골적이고 야한 표현으로 노래한 작자 및 연대 미상의 고려가요. '악장가사'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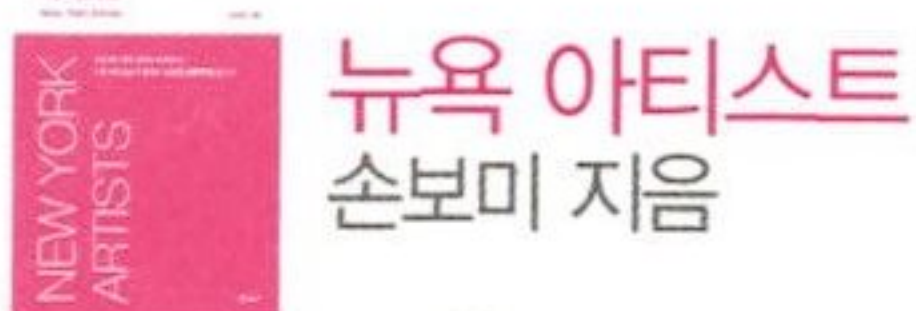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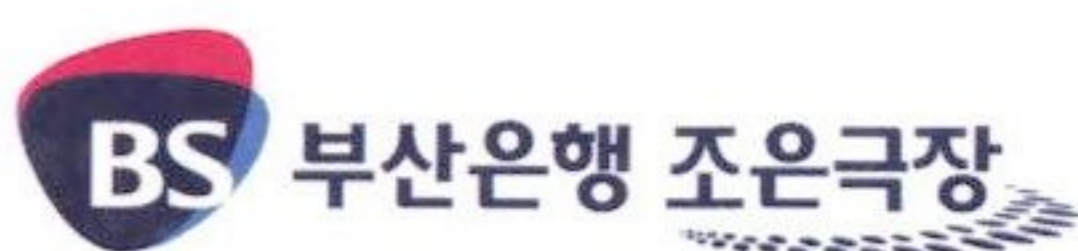
해지며, 통렬한 풍자를 보여 준다.

- ㉓ 스캐너를 이용해 그림이나 사진 따위를 파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입력.
- ㉔ 신문이나 잡지 등에 덧붙인 지면(紙面)이나 따로 내는 책자.

## 세로열쇠

- ② 스위스의 알프스 지역이나 오스트리아의 티롤 지역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불리는 독특한 창법과 그 창법에 의한 노래.
- ③ 인류에게 닥친 새로운 병하기, 생존 인류 전원을 태운 채 설원을 뚫고 질주하는 새로운 노아의 방주 안에서 펼쳐지는 숨겨진 반란의 드라마를 그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지난 2월 6일 개막한 제6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상영작으로 상영되며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④ 국악에서 사용하는 목관 악기의 하나. 삼금(三筍) 중 가장 크며 구멍이 열세 개 뚫려 있다.
- 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됨.
- ⑦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를 이른다.
- ⑧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피겨여제.
- ⑩ 악보에서, 보통 빠르기로 연주하라는 말.
- ⑪ 두 개의 U자 모양의 관을 서로 끼워 맞추어서 만들어져, 컵 모양의 마우스 피스에 입술을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금관악기의 한 종류. 음의 조절은 슬라이드로 하며, 트럼펫보다 낮은 음역을 담당한다.
- ⑭ 북쪽 방위의 물 기운을 맡은 태음신을 상징하는 상상의 짐승. 암수가 한 몸이고 뱀을 몸에 칭칭 감아 얽혀 뭉쳐 있는 다리가 긴 거북의 모습을 하고 있다.
- ⑮ 배낭여행자들과 저예산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여행 안내서. 토니 힐러 부부가 시작했으며, 지금은 수많은 여행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⑰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념.
- ⑲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
- ⑳ 이탈리아의 수도. 중세기부터 로마 교황청이 자리 잡은 곳으로, 시내에는 바티칸 시국이 있다.
- ㉓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아군의 활약상을 허구화한 조선시대 작자와 연대 미상의 역사소설.
- ㉔ 태권도와 태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지번호 정답

라 이 프 사 진 전 가 덕 도  
 바 랑 화 수 분  
 야 스 쿠 니 위 수 제 천  
 데 경 복 궁 노  
 르 네 상 스 도 사  
 노 르 마 아 이 다  
 법 고 보 에 드  
 사 운 드 오 브 뮤 직 변  
 해 성 마 구 미 호  
 어 별 주 부 전 인

2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순희(부산진구 국악로)  
 박귀남(금정구 중앙대로)  
 박장환(동래구 총렬대로)  
 배수진(해운대구 신방송로)  
 이국향(남구 유엔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순희(부산진구 국악로)  
 박귀남(금정구 중앙대로)  
 박장환(동래구 총렬대로)  
 배수진(해운대구 신방송로)  
 이국향(남구 유엔로)

**큰집 식사권**  
 김기영(해운대구 좌동순화로)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박경수(사하구 낙동대로)  
 배연희(사상구 냉정로)  
 이순덕(서구 꽃마로)

**도서 뉴욕 아티스트**  
 구민숙(중구 신포로)  
 도현주(수영구 수영로)  
 이은정(북구 만덕대로)  
 정미선(금정구 옥봉로8번길)  
 황남수(동구 망양로)



# NEWS

## ❖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3월 공연 일정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3월에도 활발하게 펼쳐진다.

3월에는 매년 2월과 3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을 중심으로 복지 활동을 펴고 있는 부산지역 복지관을 방문, 신명난 우리춤으로 활력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2014년 복지관 순회공연을 비롯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의 내사랑 부산공연이 펼쳐진다. 부산시립무용단은 동래학춤, 부채춤, 진도북춤, 소고춤, 경고춤, 풍류장고, 우리춤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3회의 복지관 순회공연을 진행한다.

### | 일정 |

- 3월 1일(토) 10:00 시민회관  
내 사랑 부산 공연 '제95주년 3·1절 기념 행사' (출연/합창단)
- 3월 3일(월) 09:30 수영구청 구민홀  
내 사랑 부산 공연 '2014년 수영구청 직원 음악회'(출연/교향악단 현악4중주팀)
- 3월 3일(월) 14:00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복지관 순회공연(출연/무용단)
- 3월 4일(화) 10:00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복지관 순회공연(출연/무용단)
- 3월 4일(화) 14:00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복지관 순회공연(출연/무용단)
- 3월 5일(수) 10:00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복지관 순회공연(출연/무용단)
- 3월 5일(수) 14:00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복지관 순회공연(출연/무용단)
- 3월 6일(목) 10:30 동원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복지관 순회공연(출연/무용단)
- 3월 12일(수) 12:50 부민병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환우를 위한 공연'(출연/교향악단 현악4중주팀)
- 3월 21일(금) 13:00 김해공항 국내선 2층 대합실  
내사랑 부산 공연 '봄맞이 김해공항 작은 음악회'(출연/국악관현악단)

##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0회 청소년 협연의 밤 협연자 모집



### | 공연개요 |

- 공연명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0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4,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 공연일시 : 2014년 4월 23일(수) 19:30
- 공연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 모집개요 |

- 대상 : 전국 중, 고등학교, 대학원(대학원 포함)재학생인 자로 학교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곡목 : 협주곡(자유곡) 1곡
- 모집부문 : 전파트(관악, 현악, 타악, 성악, 특수악기-생황, 비파, 양금)
- 모집인원 : 6명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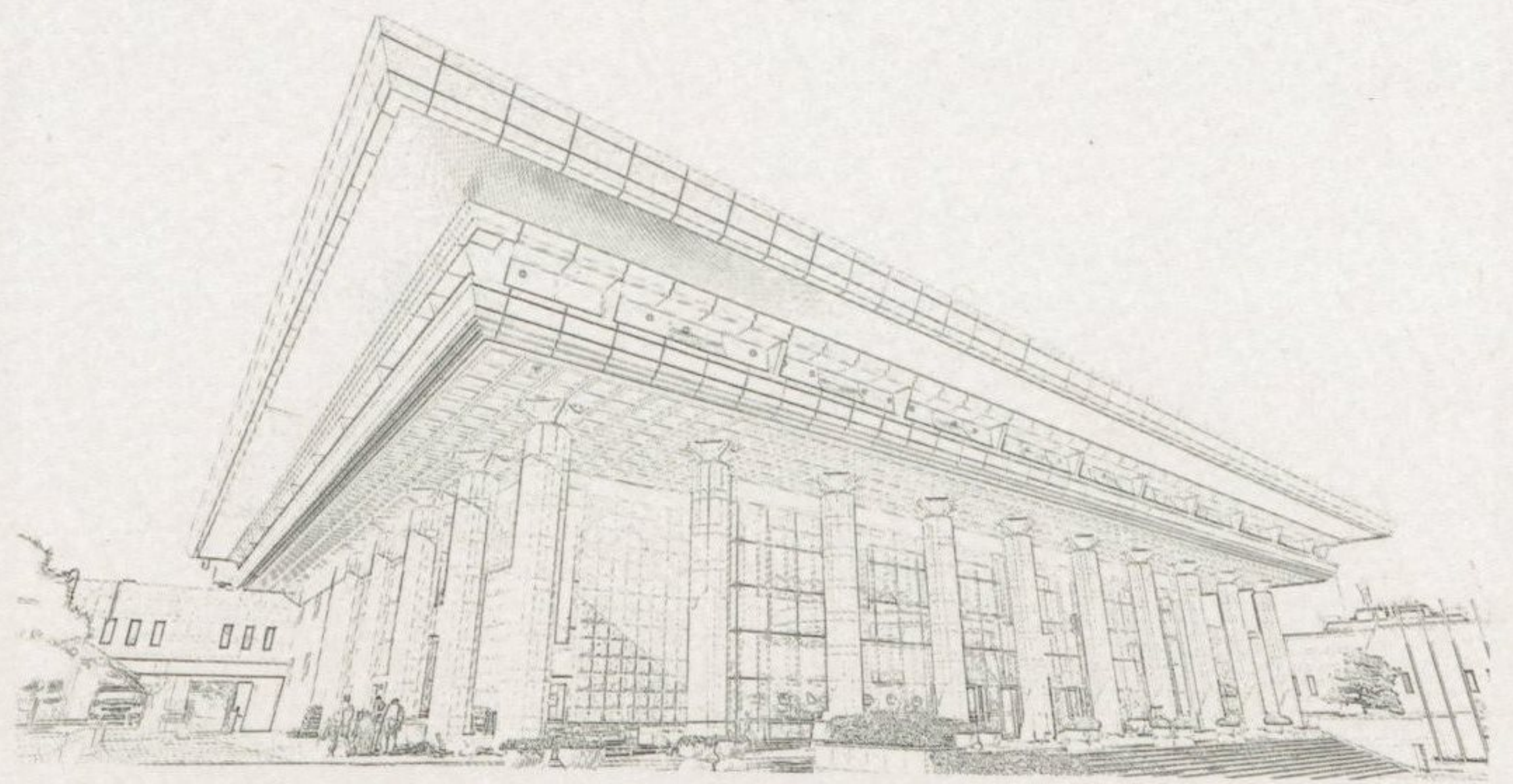
### | 전형개요 |

- 전형일자 : 2014년 3월 17일(월) 10:00  
※ 전형자는 오디션 당일 09:00까지 대기실에 입실 완료(추첨)
- 전형장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년 3월 3일(월)~3월 13일(목) 17:00  
※ 우편접수는 2014년 3월 13일(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학교장 (학과장) 추천서 1부  
응시곡목: 협연곡(자유곡) 악보 7부 제출  
본인 프로필 1부
- 합격자 발표 : 2014년 3월 19일(수) 14: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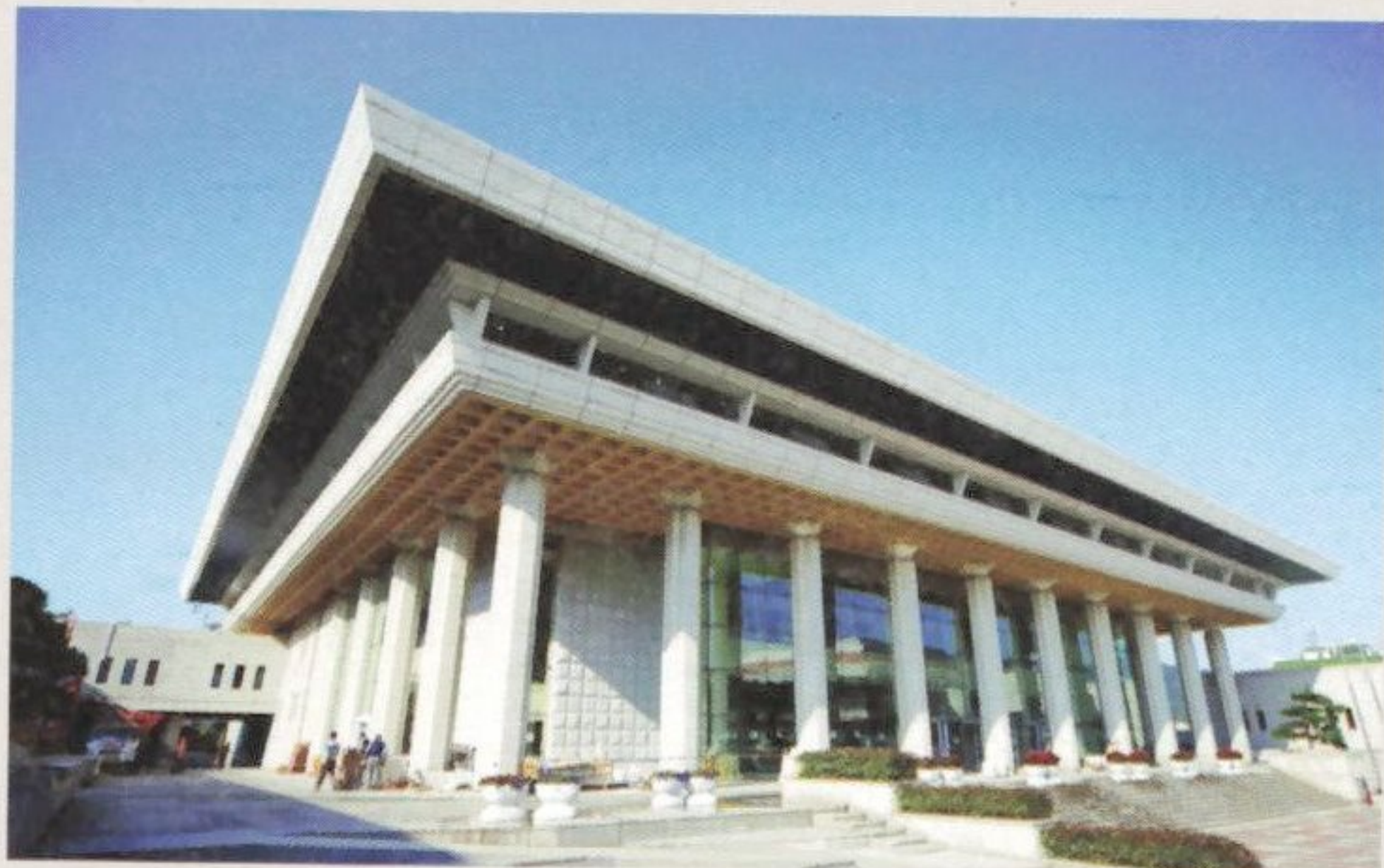
### | 접수처 및 문의 |

- 접수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무실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내)
-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051-607-3121~4)





## ❖ 2014년 하반기 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 |대 상|

극장(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전시실(대전시실, 중전시실)

###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14년 7월 1일-12월 31일
- 대관가능일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팝업 참조
- 접수기간 : 2014년 3월 10일(월)-3월 21일(금) (2주간)
-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 접수방법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방문, 팩스, 우편
- 결과통보 :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허가 여부 통보

###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정치·종교·상업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 |대관신청 및 허가절차|



###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 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체결
-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T. 607-6051~6)



# 문화악기사 서진악기

부산문화회관 주변에는 차 한잔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음식점, 꽃집, 메이크업스튜디오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산문화회관을 공연장으로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바로 악기사라 할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인근에는 문화악기사를 비롯해 서진악기, 벤들롱피아노, 알렌오르간 등 모두 4곳의 악기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악기사인 문화악기사는 부산문화회관이 개관하던 지난 1988년 11월 문을 연 후 변함없이 부산문화회관로를 지켜오고 있다. 방찬규 씨가 대표로 있는 이곳은 현재 아버지 뒤를 이어 유럽에서 현악기 수리, 제작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방지현 씨와 함께 현악기 판매와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 최고의 연주가인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악기 수리는 물론이고 부산문화회관과 접해있어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연주자들과 관객들도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예전과 달리 입시나 신학기 때에도 찾는 고객수가 많이 줄었다는 방찬규 씨는 삶의 활력소가 되는 음악을 즐기는 애호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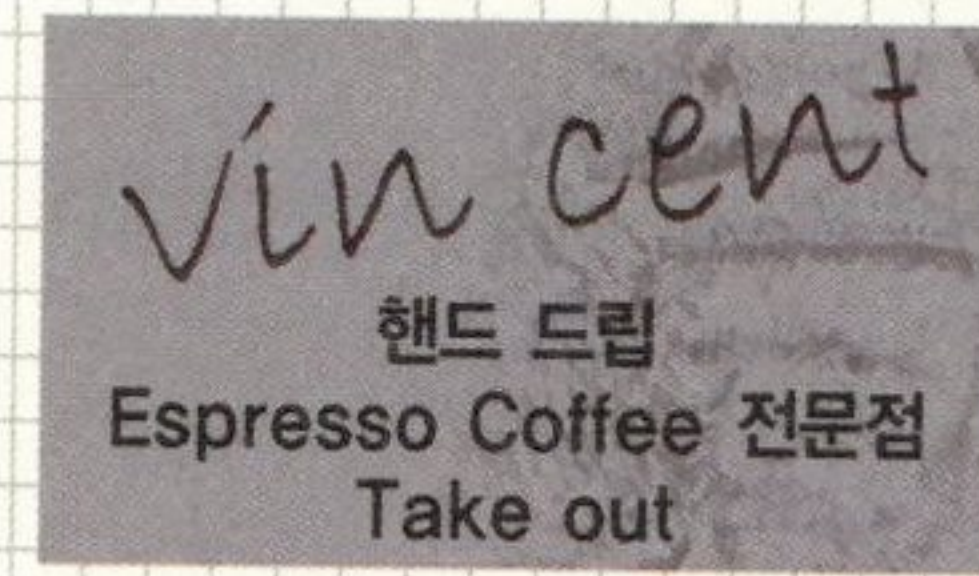
지난 2010년 3월 문을 연 서진악기는 부산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현악기 전문 악기사에 10년간 근무하다 독립한 김명식 씨가 좋은 악기를 좋은 가격에 공급하고자 문을 연 악기사이다. 악기사 이름인 '서진'은 악기를 통한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진행되어 온 세계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쳐진 이름이라고 한다. 악기 전공자이자 또 현악기 전문 악기사에서 10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에 누구보다도 연주자의 마음을 잘 안다는 김명식 대표는 그래서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한다. 악기사가 부산문화회관과 가까워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악기사를 홍보할 수 있어 좋다는 김명식 대표.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서진악기를 찾아 악기연주를 통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희망해본다.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부산문화회관 주변에는 갤러리, 영화관 등 문화공간에서부터 식사나 한잔의 차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많습니다. 공연관람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을 찾으실때 부산문화회관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

**MOZART**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el. 051)622-1456

**송림정**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

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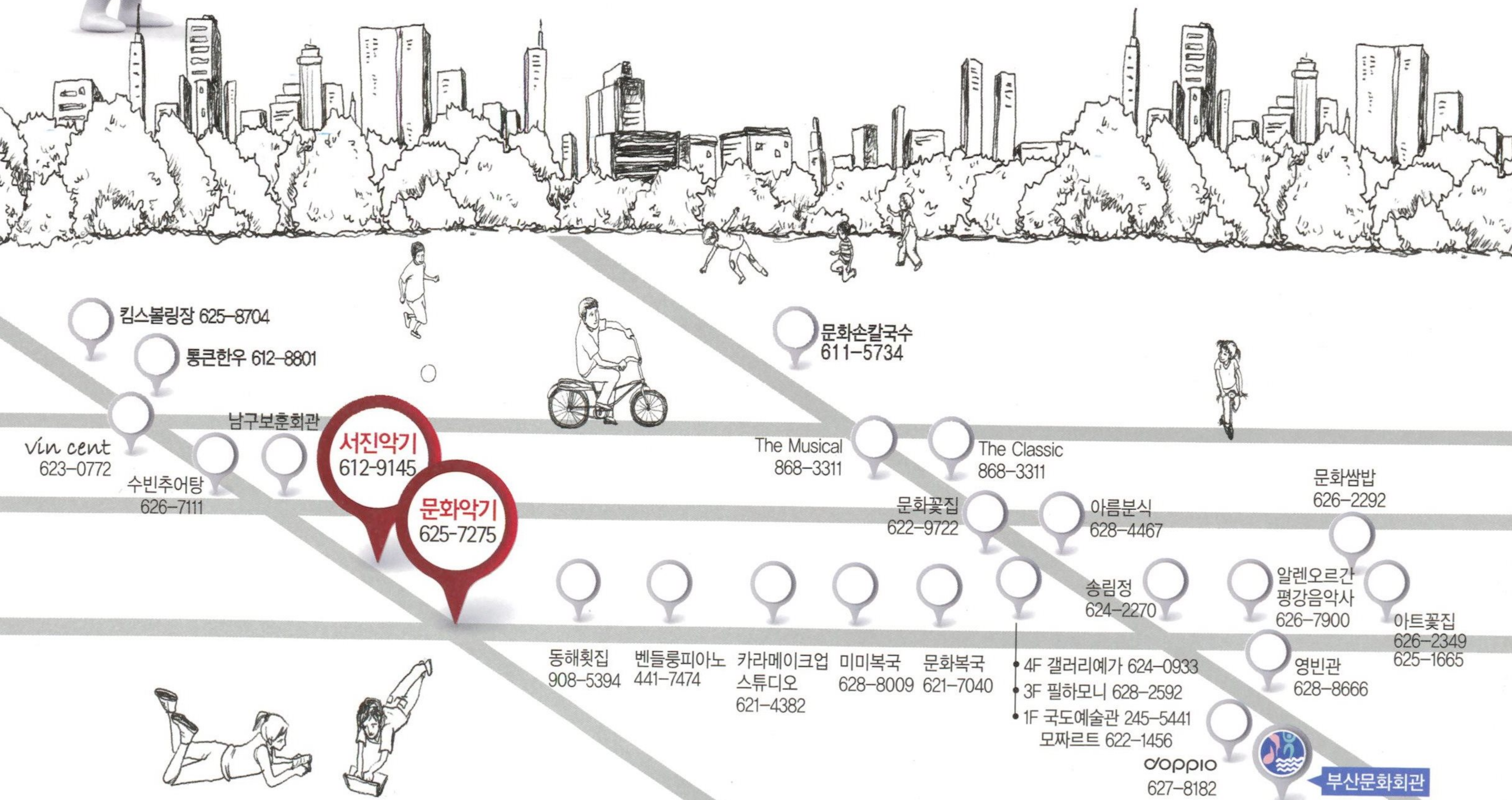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el. 051)626-2592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와 할인쿠폰 소지자  
**특별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것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 ‘오늘저녁’

합창으로 맛보는 음식백화점

# ‘뽕뽕’



총주방장(지휘) 오세종 요리사 이승윤, 이경미

종업원 부산시립합창단

### 차림표

김치, 콩보리밥에 해장~

시래기 / 김치밥국 / 내 사랑 김치 / 콩보리밥

여자들끼리 군것질

떡볶이송 / 밥풀데기 송 / 라면 송 I, II / 바나나 송

오늘저녁 막걸리 한잔?

간장 / 북어 / 맛있는 불고기 / 어머니와 고등어

늦은 사람들~ 식사하세

멸치똥 / 된장 / 중화반점 / 월드 비빔밥

2014. 3. 27 | 목 |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10,000원, S석-7,000원, A석-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합창단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연극 '스캔들'**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뮤지컬 '코미디 넘버원'**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뮤지컬 '사랑할까요?'**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우연히 행복해 지다'**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면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송인  
 제265호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4동 848-4)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가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CULTURAL SCHEDULE**

2014 MARCH **3**

부산문화회관 3월 공연일정

- |       |  |    |  |
|-------|--|----|--|
| 1     | 15: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초청 '라 바이레르'<br>대극장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br>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 22 | 11:00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공연<br>중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
| 1~2   | 15:00 부산시립극단 우수 레퍼토리 Season II - 언행이 곡마단<br>19:30 소극장 1만원,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    | 16:00 토요일상설무대-재즈밴드 러브레터가 들려주는 이른 봄의 재즈<br>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
| 4     | 19:30 2014 평화통일콘서트 대극장<br>초대/부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866-6363)  | 23 | 18:00 Piano Duo 앙상블 클랑 창단연주회<br>중극장 무료/클랑(625-6012, 010-8706-7424)   |
| 5     | 14:00 제7기 시민교양교실 '오페라 속 다양한 사랑의 스펙트럼' 수료식<br>국제회의장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24 | 19:30 U.K.O 난처병 어린이를 위한 제32회 사랑 나눔 음악회<br>대극장 2만원/U.K.O(010-3863-3087, 626-8084)                           |
| 6     |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8회 정기연주회<br>'그레이트(The Great)' 대극장<br>2만원, 1만 5천원, 1만원, 5천원<br>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 19:30 부산음악사랑회 제8회 정기연주회<br>초대/부산음악사랑회(010-3885-6600)   |
| 7     | 19:30 해금 아쟁 연주단 '숯방' 창단연주회 '2014 활의 노래'<br>중극장 초대/해이연(010-2396-0540)                                 | 25 | 19:3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6회 정기연주회<br>2014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시리즈 1 - '독일 오페라'<br>대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 8     | 19:00 김해자의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br>대극장 6만 6천원, 5만 5천원, 4만 4천원<br>극단 화랑(1800-8987)                 |    | 19:30 한국피아노연주와 교수법협회 'New face New Music-피아노 앙상블로 듣는 봄의 향연'<br>중극장 균일 1만원<br>한국피아노연주와 교수법협회(010-4280-7365) |
|       | 16:00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봄이 오는 길목에서'<br>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    | 19:30 Jung Dance Company Project 2014<br>'춤, 형형색색' 소극장<br>3일 관람권 2만원/정신혜 무용단(010-8234-2342)                |
| 9     | 15:00 김해자의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br>대극장 6만 6천원, 5만 5천원, 4만 4천원<br>극단 화랑(1800-8987)                 | 26 | 19:30 Jung Dance Company Project 2014<br>'춤, 세대감동' 소극장<br>3일 관람권 2만원/정신혜 무용단(010-8234-2342)                |
| 11~14 | 11:00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br>구경당당 신선비' 소극장<br>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27 | 19:30 임미성 켈렛과 함께하는 시네마 재즈 콘서트<br>대극장 4만원, 3만원, 2만원/부산문화(1600-1803)   |
| 13    |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1회 정기연주회<br>'만남, 아름다운 봄' 대극장 1만원, 7천원, 5천원<br>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    | 19:30 부산시립합창단 제149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맛보는 음색백화점' 중극장<br>1만원, 7천원,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 15    | 19:00 2014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 특별연주회<br>대극장 무료/코랄하우스(010-4183-2293)                                   | 29 | '18:00 청소년-일반을 위한 제 10 회 박한주 Wings Dance Company 발레 공연 대극장<br>2만원, 1만원 / 박한주(010-4552-9605)                |
| 16    | 18:00 이만아의 춤 - 箭(순) 중극장<br>초대/이만아(010-5051-0242)   |    | 16:00 토요일상설무대-일파기아름잡무단<br>'봄의 향기, 꽃의 향기, 가이님의 향기' 소극장<br>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
| 17~20 | 11:00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구경당당 신선비'<br>소극장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30 | 17:00 리온제나 청소년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중극장<br>초대/김혜정(010-2425-5204)   |
| 18    | 19:30 이미지 세텔레 제4회 정기연주회 중극장<br>3만원, 2만원, 1만원/이미지 세텔레(010-9334-6105)                                  | 31 | 19:30 마에스트로 오송근과 부산시립포니오케스트라<br>'라흐마니노프 교향곡시리즈 III' 대극장<br>3만원, 2만원, 1만원 / 부산시립포니오케스트라(621-4577)           |
| 21    |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신춘음악회-봄의 길라'<br>대극장 2만원, 1만 5천원, 1만원, 5천원<br>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 19:00 옥수예술단 평화와 손잡다 중극장 균일 5천원<br>옥수예술단(010-8291-2311)   |
|       | 19:30 크누아윈드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중극장<br>초대/크누아윈드오케스트라(02-746-9252)  |    |  |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051)622-1456

**하나투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빌리 210호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051)626-2592

**연극 '스캔들'**

2014.1.9(목)~3.9(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4시, 7시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공연 3만원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주)조은극장(1588-2757)

**연극 '코미디 넘버왕'**

2014.2.27(목)~4.27(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5시, 8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공연 3만원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주)조은극장(1588-2757)

**무지컬 '사랑할까요?'**

2014.3.1(토)~4.27(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5시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공연 2만원  
장 소: 공간 소극장  
문의 및 예매: 공간 소극장(611-8518)

**무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2014.1.1(수)~Open Run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공휴일 오후 2시, 5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공연 3만5천원  
장 소: 조물우산 가운다트홀 2관  
문의 및 예매: 문화력(1600-1602)

**CULTURAL SCHEDULE**

2014 MARCH 3

1	15:00	Korean National Ballet Invited Company 'La Bayadere' Grand Theatre 100,000/80,000/60,000/40,000 B.C.C(607-6058)	22	11:00	Special Performances for Foreigners Medium Theater Free/B.C.C(607-6056)
1-2	15:00	The 49th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Small Theater 10,000/5,000 B.M.T.C(607-6051)		16:00	Saturday Regular Stage-Jazz Band Love Letter Medium Theater Free/B.C.C(607-6056)
4	19:30	2014 Peace & Unification Concert Grand Theatre Invitation/Peace & Unification Concert(866-6363)	23	18:00	The 1st Concert of Piano Duo Ensemble Klang Medium Theater Free/Klang(010-8706-7424)
5	14:00	The 7th Classic Class for Citizen-The Spectrum of Love in Opera 'Salem by Richard Strauss' International Conference B.P.C(607-3111~5)	24	19:30	The Regular Love Sharing Concert of U.K.O Grand Theatre 20,000/U.K.O(010-3863-3087)
6	19:30	The 498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Great' Grand Theatre 20,000/15,000/10,000/5,000/B.P.C(607-3111~3)		19:30	The 8th Regular Concert of BMLA Medium Theater Free/Han Seongwon(010-3885-6600)
7	19:30	The 1st Concert of 奚牙淵(Hae Geum&A Jaeng) Medium Theater Invitation/Seo Hyeonin(010-2396-0540)		19:30	Jung Dance Company Project 2014 Small Theater 3days 20,000/J.D.C(010-8234-2342)
8	19:00	Kim Hyeja's Mono Drama 'Oscar! et la dame rose' Grand Theatre 66,000/55,000/44,000 Hwarang(1800-8987)	25	19:30	The 46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2014 Orchestra Series in Opera-German Opera' Grand Theatre 2,000/B.P.Y.C(607-3111~3)
	16:00	Saturday Regular Stage-Busan Metropolitan Chorus Small Theater Free/B.C.C(607-6056)		19:30	Korea Piano Performance & Pedagogy Association 'New Face New Music' Medium Theater 10,000/Anna Lee(010-4280-7365)
9	19:00	Kim Hyeja's Mono Drama 'Oscar! et la dame rose' Grand Theatre 66,000/55,000/44,000 Hwarang(1800-8987)	26	19:30	Jung Dance Company Project 2014 Small Theater 3days 20,000/J.D.C(010-8234-2342)
11-14	11:00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The Dance Story for Children' Small Theater 1,000/B.M.D.C(607-3131~2)	27	19:30	Lim Misung Quintet Cinema Jazz Concert Grand Theatre 40,000/30,000/20,000 Busan Culture(1600-1803)
13	19:30	The 171st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Spring Concert' Grand Theatre 10,000/7,000/5,000/B.M.T.C(607-3123)		19:30	The 150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Taste the Food Court of the Chorus' Medium Theater 10,000/7,000/5,000 Busan Metropolitan Chorus(607-3141)
15	19:00	Choral House Man's Festival Chorus Grand Theatre Invitation/Soonin Culture Foundation(010-4183-2293)	29	18:00	The 10th Regular Performance of 'Park Heonju Wings Dance Company' Grand Theatre 20,000/10,000/Park Heonju(010-4552-9605)
16	18:00	Lee Mina's Dance Medium Theater Invitation/Lee Mina(010-5051-0242)		18:00	Saturday Regular Stage-Ipa Gayageum Ensembles Small Theater Free/B.C.C(607-6056)
17-20	11:00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The Dance Story for Children' Small Theater 1,000/B.M.D.C(607-3131~2)	30	17:00	The 1st Concert of Raonjaena Youth Orchestra Medium Theater Invitation/Kim Hyejeong(010-2425-5204)
18	19:30	2014 Spring Concert Medium Theater 30,000/20,000/10,000 Amici Setelle(010-9334-6105)	31	19:30	Busan Symphony Orchestra 'Rachmaninoff Symphony Series III' Grand Theatre 30,000/20,000/10,000 Busan Symphony Orchestra(621-4577)
21	19:30	2014 Spring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Grand Theatre 20,000/15,000/10,000/5,000/B.P.C(607-3111~3)		19:00	The Special Performance of Oksu Art Company Medium Theater Oksu Art Company(010-8291-2311)
	19:30	KNJA Wind Orchestra 'Getting Concert' Medium Theater Invitation/KNJA Wind Orchestra(02-746-9252)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지휘 리 신차오  
Li Xincao



호른 김영률

# Bartók

## CONCERTO FOR ORCHESTRA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2014.4.1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하이든 | 교향곡 제96번 「기적」  
F.J.Haydn | Symphony No.96 "Miracle"

F.슈트라우스 | 호른 협주곡  
F.Strauss | Horn Concerto

바르톡 |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B.Bartók | Concerto for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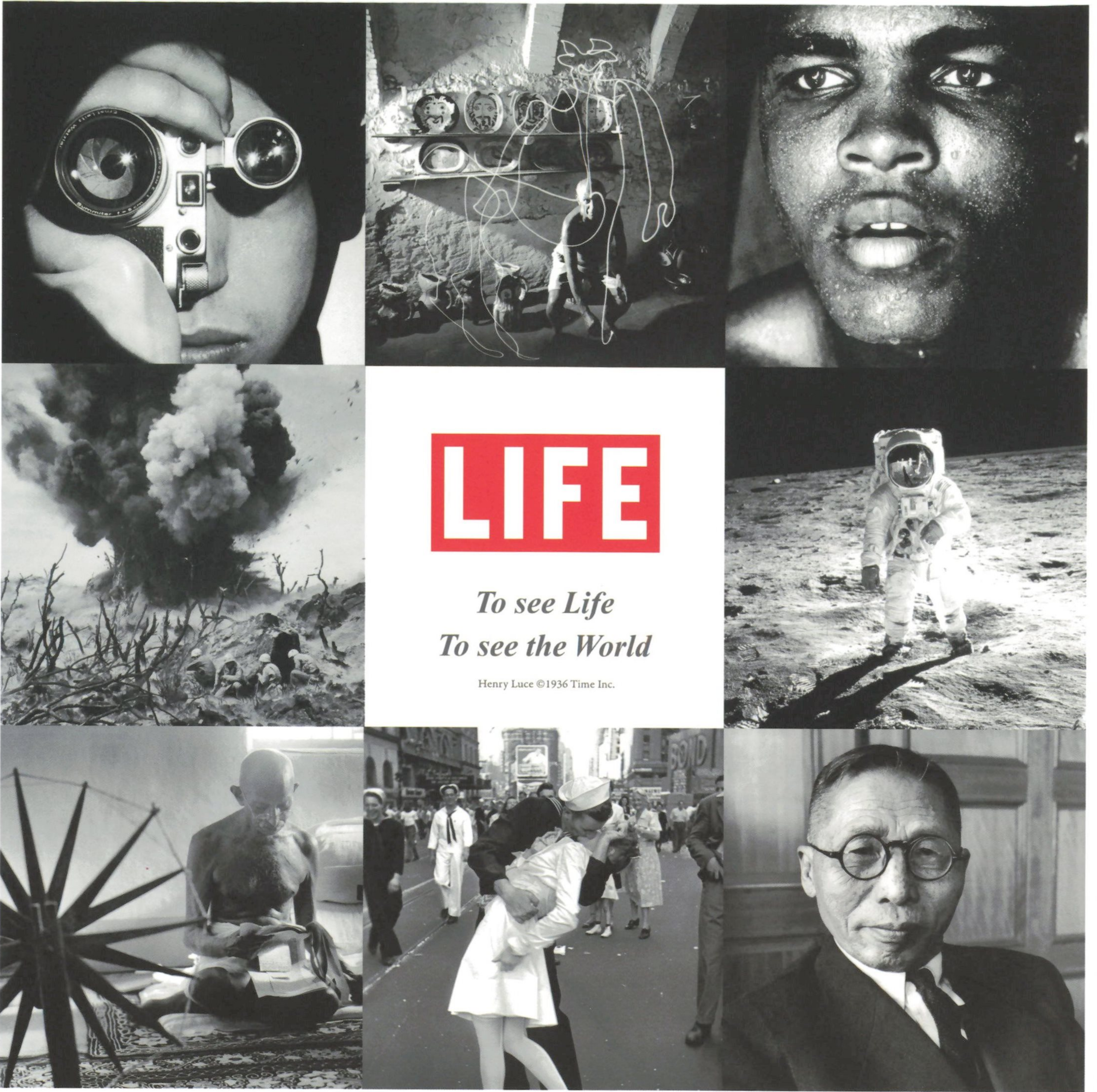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LIFE**

*To see Life  
To see the World*

Henry Luce ©1936 Time Inc.

정점의 순간에서 전설이 된 20세기 최고의 기록 <LIFE>, 그들이 남긴 불멸의 역사를 만난다.

# 라이프 사진전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2014. 1.5 - 4.12

10:00~20:00 /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www.seelife.co.kr

티켓. 일반/대학생 12,000 중학생/고등학생 10,000 초등학생/유아 8,000 특별할인 6,000

(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자녀)

전시문의 612.6619

주최.



부산 MBC

| 주관.



UNIQUEPIECE

© The Picture Collection Inc. All rights are reserved.